



- 투표일 : 11월 23일(화) ~ 25일(목)
- 2차 합동유세 : 11월 22일(월)
- 정책토론회 : 11월 17일(수)
- 1차 합동유세 : 11월 15일(월)

선거
일정

선거공동 정책자료집

연세대학교 48대 총학생회 및 23대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48대 총학생회 및 23대 총여학생회

선거공동 정책자료집

선거
일정

- 1차 합동유세 : 11월 15일(월)
- 정책토론회 : 11월 17일(수)
- 2차 합동유세 : 11월 22일(월)
- 투표일 : 11월 23일(화) ~ 25일(목)



연세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8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공동공약

〈생활협동조합 관련 공동공약〉

제안 : 학생복지위원회

1.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학부 학생 대표로서의 학생이사는 학부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생활협동조합 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1.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는 학생회 집행부를 구성함에 있어 생활협동조합과 관련된 일감을 책임있게 진행할 생협담당자 혹은 생협국을 설치한다.
1.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는 학생복지위원회와 함께 정기적인 생협학생조합원연석회의를 구성하며, 생협 학부생 대의원 회의를 연 4회 개최한다.
1. 생협학생조합원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신입생 조합원 교육을 새터나 O.T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반성폭력 공동공약〉

제안 : P군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1.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는 11학번/12학번 새내기들이 각 단과대 클럽으로 가기 전에 모임을 갖는 커뮤니티를 공식적으로 만든다.
1.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는 1에서 말한 커뮤니티 내에서 성폭력 혹은 성폭력적인 문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관리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1. 커뮤니티 관리자들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 관련 공동공약〉

제안 : 주거실천단 '집을 짓는 달팽이'

1. 총학생회는 2011년에도 연세대학교 학생사회에서 주거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학생들을 어려움을 대변하는 기구로써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도록 한다.
1. 총학생회 집행부 내에 주거팀을 꾸려 주거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1. 2011년도에도 기숙사 신축 논의가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유승룡은 무용공민간사 호랑이춤 128세

눈앞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어느새 낙엽이 떨어지고, 시린 겨울이 다가옵니다.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각자의 집의 따뜻한 온기를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의 생각이 곧,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는
언제나 편하고 따뜻한 우리의 집은
지금껏 '우리'가 꿈꿔오던 학교를 생각나게 합니다.

'나'의 집과 '우리'의 학교는 아직 많이 다르겠지만,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품 없이, 큰소리 없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뜬구름들이 날아가고 나면
푸른 하늘만 남고,
햇빛이 따스하게 비추고 새로운 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그리고 우리가 꿈꿔온
모든 바람들이
지난 겨울의 추위를 잊게 하는 따스한 봄바람처럼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막연히 바랐던 소망들을 싣고

지금, 연세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후보소개]

[후보]

발행처: (주)문화인류



[후보소개]

정후보 강한철

(사회체육4)

- 1983 경남 삼천포출생
- 1995 삼천포 대방초등학교 학생회장
- 1998 삼천포 제일중학교 학생회장
- 2001 삼천포고등학교 학생회장
- 2002 친구와 배추장사
- 2005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입학
 - 연세대학교 중앙째즈동아리
쏘왓 활동
- 2006 사천국제타악축제
통역요원활동 (~2008)
- 2008 군복무후 복학
 - 연세대학교 학회연합회 부회장
 - 연세대학교 무용채플단원
- 2009 대동제 기획단 기획B팀장
- 2009 제47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신바람 연세)
- 2010 기숙사 자치회 대외 협력부장



[후보소개]

부후보 조국선

(문화인류3)

- 1988 서울출생
- 2002 서문여자 중학교 누리단 단장
- 2003 서문여자 중학교 부학생회장
- 2005 서문여자고등학교 학생회 활동
 - 까리따스 봉사동아리 시나브로 부대표
- 2008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입학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강력3반 배정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36.5
문화기획국 국원
 - 연세대학교 무악대동제
젊은날의 BLUES STAFF
 - 연세대학교 연고제 파랑주의보 기획단
- 2009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회장
 - HI SEOUL FESTIVAL 리더
자원 활동가
 - 지역활력찾기 아이디어공모전 3등상
 - 연세대학교 동아리 '땀' 활동
- 2010 춘천국제마임축제 인턴활동
 - 연세대학교 동북아시아
국제포럼 NEAN CE매니저



당신과 나의 소망이 담긴
연세대학교를 그리며..



CONTENTS

2010 총학생회 평가

정책도출과정

신바람연세가 찾는 연세인의 권리

*등록금

*교육

*복지

신바람연세가 고민하는 연세인의 책임

*상상

*참여

신바람연세가 생각하는 특별한 정책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견고 싶은 백양로 만들기

*자치공간

*주거공간

신바람 연세의 정책 한눈에 보기

차례



2010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살펴보기

제 47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변화의 조건
you

그 어느 때보다 '2010년의 연세'의 모습을 그리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포부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의 2010년이, 그리고 연세가 그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땀과 눈물의 경쟁 끝에, 연세인이 선택한 키워드는 YOU 였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목합니다' 라는 그들의 메시지는 수많은 연세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고, 그 동안과는 또 다른 생각과 열정을 지닌 새로운 총학생회의 등장에 모두의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시작이었습니다. 총학생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시작이었기에 더 발전적인 총학생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1년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가능성' 만큼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지금의 총학생회는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는 느낌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보다는 총학생회 그 자체의 목소리를 주로 들어온 1년이었습니다. 가끔은 사회에 비춰지는 연세대학교의 생각에 학생들의 생각보다는 총학생회만의 생각이 담긴 듯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연인 사이나 친구 사이처럼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와 우리를 대표하는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좀더 주고 받을 수 있었다면, '나'와 '너'로 나뉘지 않은 '우리'가 되어 변화된 연세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입니다.

한쪽은 투명한, 그러나 다른 한쪽은 불투명한 유리로 덮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회에는 투명한 유리로 열려있었고, 그 사회에 대한 총학생회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연세에게는 불투명한 유리로 가려진 총학생회였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존재하는 1년의 동행이었고, 학생들과의 거리와 소통은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러한 아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신바람 연세의

연세의 2011년을 꿈꾸는 신바람 연세의 고민은 그 시간이
1년 더 늘어난 만큼 누구보다 크고 깊었습니다.

조금 더 다가가 연세인의 고민과 생각을 느끼고자 했고,
우리가 느낀 연세인의 마음들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가벼운 약속이 아닌 연세인의 1년을
걸고 하는, 진정성이 담긴 약속이기에 시작의 순간만큼 신중을
기해 우리 신바람 연세의 정책들은 세 가지 뿌리를 가지고
뻗어나갔습니다. 권리와 책임, 그리고 공간. 이를 바탕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은 시작되었습니다.

정책 도출과정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긴 좀 바뀌면 좋을 텐데...' 와 같이 백양로를
지나며, 혹은 학생식당에서 친한 선배와 밥을 먹다가 문득 느낀, 어쩌면 사소한
불편함에서부터 매년 더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등록금과 교육제도 문제같이 중요한
부분까지, 연세인들의 '권리' 를 찾아주기 위한 문제들을 깊게 고민해보았습니다.

또한 신바람 연세는 사회로 나가기 직전인 대학생이란 시기가, 더 가치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나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단계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연세인의 대학생으로서의 책임'
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찬/반' 으로 갈리는 이분법적, 갇힌 사고가 아닌
주체적이고 열린 사고로 사회에 참여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학생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바람 연세' 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세가 연세인의 마음 속에 보다 행복한, 아름다운 그리고 편안한
'공간' 으로 기억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의 '공간' 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세인 모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중도와 백양로를
보다 머물고 싶고, 걷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자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펼쳐 보았습니다.

첫번째 우리 이야기, 권리



등록금

등록금 동결을 촉구합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확대
사회적 차원에서의 등록금 문제 해결
졸업학기 학점당 등록금납부제도 실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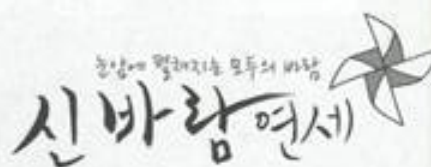
학점포기제
절대평가 재도입
학점이월제
스포츠과목 비용지원

복지

무선인터넷 환경개선

학관가격인하, 식권/과자자판기 확충
연잠공동구매, 수업교재 추가 구비
연세템블러 제작

첫번째 권리 등록금



등록금...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학교와의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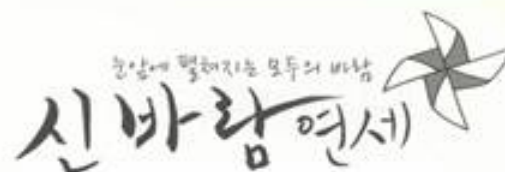
2010년 연세대학교는 등록금을 2.5%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산출의 근거는 교원과 직원의 임금, 관리 운영비(시설관리 운영비, 일반 관리비, 운영비)와 연구비를 예산 측정한 세출 예산의 총괄 비용이 학교 측의 수입 수단(등록금 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 수입)보다 96억원 부족하였기에 가장 유동적인 금액인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위의 부족금을 보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등록금 상한제 입법이 확정되었습니다.

표면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5%이내의 상한제 정책이지만 등록금은 그 자체가 워낙 큰 비용이기에 5%이내라는 인상 상한제는 등록금에 대한 우리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연세대학교에
등록금 동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권리, 등록금]



01 쌓여만 가는 적립금

현재 우리 연세대학교 적립금은 세대학교의 적립금(매년 축적예산 보다 남는 금액)은 5113억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연간 등록금 평균 90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02 새어나가는 등록금

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등록금 책정 자료를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항목에 대한 공시뿐, 정확한 사용 내역을 알기는 힘듭니다.

대학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등록금의 집행 내역을 모두 학생,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학은 등록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허덕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내는 등록금의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등록금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등록금 내역을 찾아내겠습니다



03 등록금=눈치싸움(?)

2010학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대학은 4년제 106곳, 전문대 80곳 등 총 186곳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4년제대 37곳과 2년제 24곳 등 61개교는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절반정도로 줄어든 수치이며, **매년 대학들은 등록금 입장발표에 앞서 타 대학의 눈치를 보며 그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는 2010년도 전년대비 2.5%의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등록금 동결을 눈치싸움으로만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매년 학생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에만 혈안이 되어 단순히 타 대학의 눈치를 보며 그 인상률을 결정하는 상황은 사라져야 합니다.

04 등록금 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비 감면시 기준일 설정, 등록금 반환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이라고 설립의 목적을 명시한 만큼 대학 내에 민주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도 학생들의 참여가 최소한에 그친다면 등록금 인상 및 사용처 결정 과정의 거수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기에 신바람 연세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확대**를 주장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는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이므로 등록금을 심의, 산정하는 절차에서 가능한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바라고 또한 참여해야만 합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생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선별적으로 뽑아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와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그 물건의 품질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지불하는 등록금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05 사회적 차원의 문제해결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매년 등록금의 인상률로 각 학교와 투쟁, 협의하고 조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신바람 연세는 각 대학들의 연대를 추진하여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등록금 상한제가 입법되었다더라도 등록금의 규모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더 이상 각 학교 내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등록금 해결을 위한 연대를 구축하여 조금이라도 등록금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6 졸업학기 학점당 등록금납부제도

현재 우리 연세대학교는 추가학기(9학기 이상의 학기) 12학점 이내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학점당 등록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8학기에 맞추어 졸업하는 학생들은 졸업학기인 8학기 폐가 되면 자신의 수강학점과는 관련없이 자신의 과에 맞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졸업학기에 취업과 졸업학점 이수 충족 이유로 하여 적은 학점을 듣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는 매우 부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재정 행정적인 문제를 이유삼아 학점에 상관없이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바람 연세는 졸업학기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주장합니다.

두번째 권리

교육

눈앞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권리, 교육]

눈앞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1. 학점포기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졸업하기 전까지 6학점 이내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성적과 상관없이 포기할 수 있는 제도

현재 학점 포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부산대, 한양대, 숙명여대, 경희대, 고려대, 이화여대

[도입근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2010년도 졸업생 A권 학점 비율	53.3%	46.7%	26.3%

몇 해전부터 대두된 사회적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학점에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대학 알리미에서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0년도 서울대와 고려대의 졸업생 학점 중 A권 비율이 각각 53.3%, 46.7%로 나온 반면, 우리학교는 26.3%로 다른 두 학교보다 두 배 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취업시장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경쟁력이 타대 학생들에 비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학점 포기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2. 절대평가 재도입

4000단위 전공의 절대평가 재도입.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상대평가의 도입이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 심화 보다는 **적당히 쉬운 수업만 골라 듣자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뀐 절대평가 제도 도입 첫 학기부터 몇몇 교수님들이 수강 인원을 A학점을 50%로까지 줄 수 있는 60명 혹은 교수 재량 평가가 가능한 40명으로 제한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의 절대평가제도를 지속해야만 합니다.

졸업생 절반 'A'... 서울 주요대 학점 인플레이션 심각

정유진 기자 yujin72@yna.com

2009. 10. 21

입력 : 2009-10-21 22:07:02 | 수정 : 2009-10-21 22:07:02

- 14개 대학 분석 - 동국대 57.5% 최고
- 최근 3년간 C학점자는 크게 줄어들어

지난해 서울지역 주요 대학을 졸업한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평균 A학점을 받고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최근 3년간 서울지역 대다수 대학에서 A학점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C학점자는 계속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서울 주요대학 졸업생 A학점 비율 (단위: %)
(자료: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

대학	비율	대학	비율
동국대	57.5	숙명여대	53.3
이화여대	56.8	경희대	51.0
건국대	53.3	고려대	46.7
서울대	53.3	성균관대	41.1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21일 서울 소재 대학 14곳의 '2009년 졸업생 졸업학점'을 분석한 결과 A학점자 비율은 동국대(57.5%), 이화여대(56.8%), 건국대·서울대·숙명여대(이상 53.3%) 순으로 높았다. 또 경희대(51%), 고려대(46.7%), 성균관대(41.1%)도 A학점 졸업생이 절반을

학교가 주장하는 절대평가 폐지의 근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학교가 위의 기사에서 빠진 이유는 기사의 의도와 맞지 않게 **A학점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26.3%)** 따라서 학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유로 절대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학점이월제

연세대학교 학부생의 경우 한 학기에 최대 19학점을 수강할 수 있지만 17학점이나 16학점을 수강했을 경우 다음 학기에 18학점을 기준으로 1학점이나 2학점을 추가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부득이하게 남은 잔여학점(2학점 이하)을 다음 학기에 이월해주는 학점이월제는 중앙대, 제주대, 성균관대, 원광대 등이 이미 도입해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한양대, 건국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이 제도의 장점을 인정해서 올해부터 학점이월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점이월제를 통해 잔여 학점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진로 준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계절학기 수강 수요의 일부가 정규학기로 전환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학생별 수강신청 가능 학점	실제 수강신청 학점	이월 학점
18학점	15학점	0학점
18학점	16학점	2학점
18학점	17학점	1학점
21학점	18학점	0학점
21학점	19학점	0학점

기준 학점을 18학점으로 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19, 20, 21학점을 신청하더라도 18학점을 신청하게 된다면 다음학기에는 이월되는 학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7학점 이하의 학점으로 신청하게 되면 18학점-(17학점 이하 학점) 수 만큼 이월되게 됩니다(단, 2학점 이내). 단 학업적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6학점 이내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되더라도 23학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4. 스포츠과목 비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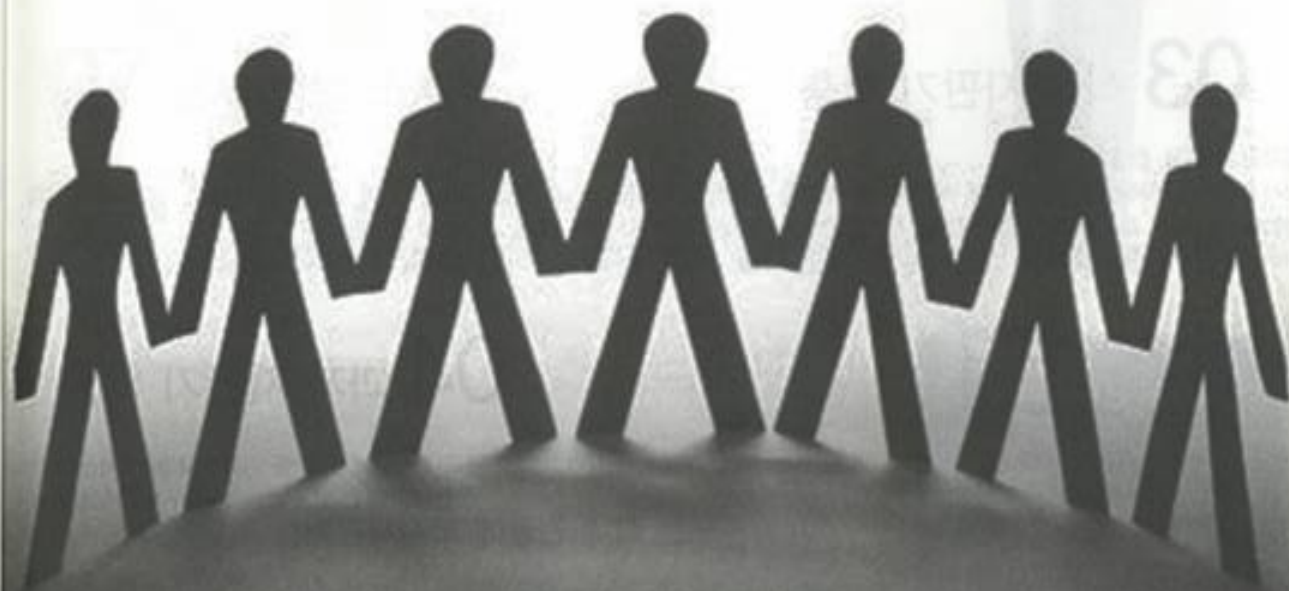
현재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교양, 전공 스포츠과목이라는 특수성으로 등록금 이외에 추가적인 수강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 외 실습비를 지급해야 되는 과목과 비용은
골프 6만원, 볼링 6만원, 승마 20만원.
알고 계셨어요?

추가적으로 드는 실습비를 학생본인이 부담해야되는 상황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권리에 위배되는 현상입니다.
이에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강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세번째 권리 복지



01 학내 무선인터넷 환경 개선

“AP주소를 찾는 중입니다...” “무선랜 링크가 끊어졌습니다. 가까운 AP장소로...”
 학교에서의 무선 인터넷 연결, 속도는 느리고 신호는 잡히지도 않고 ... , 답답하죠?
 늘어나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비해 현재 학내의 네스팟 공유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도에서 진행 중인 공유기 설치 공사를 종합관, 연희관까지! 학내 모든 건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네스팟 아이디어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 갱신 기간을 한 학기로 연장하겠습니다.

02 학관 가격 인하

신촌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비싼 우리학교 학관 메뉴, 신바람 연세가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하나. Happy Hour 제도 시행!

연세인의 지갑이 행복한 10~11시, 2~3시!

학관 이용이 적은 이 시간만큼은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Happy Hour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둘. Size 다양화

학관의 모든 메뉴에 더 저렴한 Small Size를 추가하겠습니다. 더 적은 양을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3 식권 자판기 확충

청경관, 상록생, 한울생...

식사시간이면 언제나 불비는 단과대 식당에서는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과 식권을 구입하려는 학생이 모두 같은 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좀처럼 줄지 않는 긴 줄, 신바람 연세는 연세인 여러분의 1분 1초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학관에 설치되어 있는 식권 자판기를 모든 단과대 식당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04 과자 자판기 확충

짧은 쉬는 시간, 과자 하나 사려고 해도 단과대 식당에서 긴 줄 기다려야 하는 지금의 현실
 연세인의 간식! 신바람 연세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학내 건물에 과자자판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05 연잠 공동 구매

연세인의 상징, 따뜻한 연잠! 하지만 가격은 조금은 부담되는 7만원...

신바람 연세가 모든 과,반 단위의 연잠 신청을 수합해 공동 구매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각 과, 반 단위가 개별로 업체에 구입하는 방식을 바꾸고,총학생회 차원에서
 과,반의 신청을 수합해 대표 업체에 대량으로 주문하여 더 저렴하게 연잠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연세가 4만원 대의 저렴한 연잠으로 연세인의 추운 겨울을 책임지겠습니다.



06 수업교재 추가구비

회계원리, 마케팅, 공학수학... 수업에서 쓰는 꼭 필요한 교재들! 하지만 중도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다 많은 연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한 만큼, 중도에 추가수량을 구비하겠습니다.

07 연세 텀블러 제작

시험기간, 커피가 먹고 싶어도 일회용 커피 컵은 중도에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사중의 텀블러는 비싸고, 커피전문점 마크까지 찍혀 있고...

자랑스러운 연세 마크가 찍힌 연세인의 깔끔하고 핫한 텀블러! 신바람 연세가 만들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이야기, **책임**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

.....

문화정책사업

문화제

체육지원사업

연세인 생각지원사업

사회참여

.....

연세애듀캠프

연세인 사회적기업

연세인 활동지원사업

첫번째 책임 상상



농장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대학생의
책임입니다. 기존의 사회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신바람 연세에서는
연세인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지원 합니다.

[책임, 상상]

농장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문화제]

01 권리 찾기 문화제

저희 신바람 연세에서 이야기 하는 가장 큰 두가지 축은 권리와 책임입니다.

권리를 즐겁게 이야기 하면서 사회적 책임인 보다 나은 사회를 상상하는 것까지 포괄 할 수 있는 문화제를 만들겠습니다.

02 슈퍼스타 Y

연예계엔 슈퍼스타 K가 있다면 연세대학교에서는 권리를 자신의 끼로서 발산하고 학우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권리문화제 연세스타Y를 만들겠습니다.

03 Antinoising ZONE

축제는 다 같이 즐기는 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축제를 꺼리는 연세인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축제기간에 조용한 공간에 있고 싶은 것 역시 권리입니다. 신바람 연세에서는 축제기간에도 조용할 수 있도록 중도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까지를 anti noising Zone을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축제를 즐겁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4 upgrade 대동제, 연고제

지금까지 '장'과 '무관심'으로 이야기 되던 대동제와 연고제를 신바람연세에서는 보다 학생 간 networking에
중심화된 대동제와 연고제로 만들겠습니다. 대동제와 연고제의 의미를 되살려 보다 풍부한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체육지원사업]



총장배 체육대회

기존 남학우 중심의 몇 종목으로 한정된 체육대회! 종목과 대상을 늘려 보다 많은 학생이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동장 온라인 예약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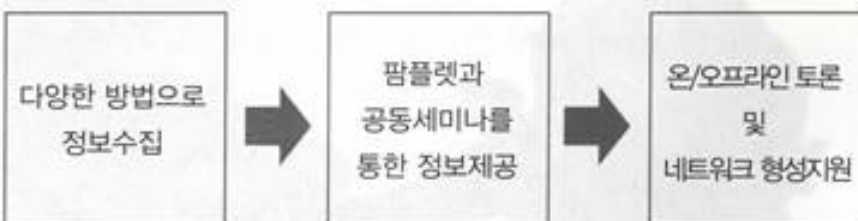
밤을 새는 고달픈 기다림, 너무나 힘들었던 운동장 예약! 온라인으로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운동부 멘토링

비운동부 학생에 대한 연세대학교 운동부 학생의 멘토링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운동부 학생들은 운동부 학생들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운동방법을 전수 받고, 운동부 학생들 역시 그 활동을 통해 비운동부 학생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신바람연세가 체육활동의 networking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세인 생각지원사업]

정보의 홍수 속, 믿을 수 없는 정보들, 그리고 그 가운데 사회적 판단을 해야 하는 우리, 그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연세인 생각지원 사업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연세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연세인 간의 토론의 장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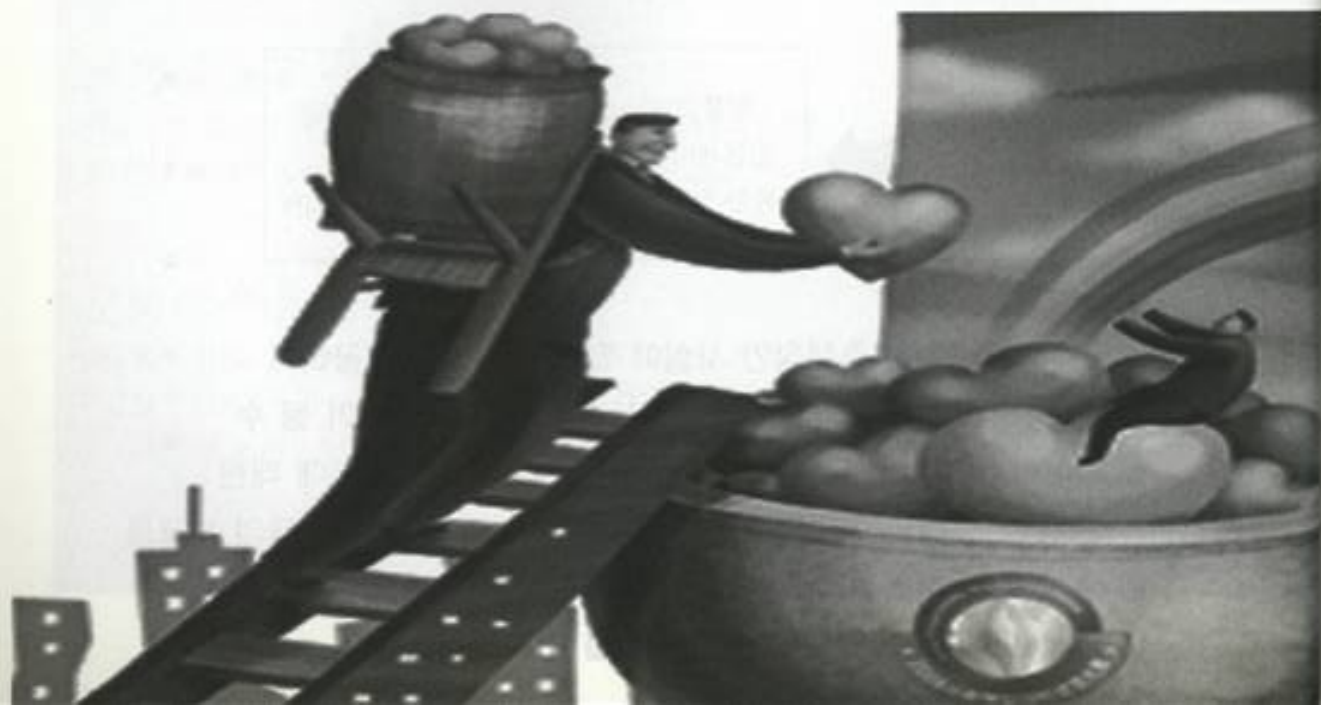


편파되지 않은, 총체적인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연세인들의 사회적 판단 기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기존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인 '찬/반' 형태의 이분법적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열린 형태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두번째 책임 참여

농업에 열려있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 이 사회에 대한 연세인의 고민과 상상력을 자극 하는 것이
었다면 '사회참여' 파트는 직접적으로 연세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나가기 전 보다 중립적일 수 있는 위치에서 사회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책임, 참여]

농업에 열려있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에듀캠프]



이전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서 시행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사회참여를 향한 의도가 같기에 신바람연세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지속 및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학교와 협력하여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연세인들에게는
사회참여에 대한 인정과 격려를 하고,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더 높은 만족도를
주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캠프를 계획 및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연세인들이 가장 큰 고민은 **‘취업’**.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으려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름뿐인 스펙에 사실은 고민이 많은 우리입니다. 이에 신바람연세에서는 연세인들의 능력을 믿어 연세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연세인들의 고민을 해결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연세인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

- ‘총학생회 내 사회적 기업팀
- + 연세대학교 학생
- + 연세 창업지원센터
- + 국내외 유명기업’의 합작 형태

종목을 정하여 ‘사회적 기업’ 형식의 기업을 만들고
연세인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을 활용해 기업을 운영한다.

[연세인 활동지원사업]

사회에 대한 당신의 열정. 신바람 연세가 지원합니다.

연세인 활동지원사업은 연세인들이 사회적으로 의의가 있는 활동을 기획한 것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의 형태는 금전지원, 인력지원, 홍보, 공간지원 등으로 다양하며 지원 사업에는 총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01 봉사기획안 공모 및 지원

연세대학교 내 개인이나 단체가 기획한 사회적인 봉사활동 기획안을 공모하여 한 학기당 몇 팀씩 지원하겠습니다.

02 생각지원 사업 결과 지원

‘사회를 위한 새로운 상상’에 있는 ‘생각지원 사업’에서 토론과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활동이 만들어지면 그 결과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03 교내 아이디어 지원

사회적인 아이디어는 학교 내의 새로운 도전에서부터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던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 이야기, **특화**



구중도 리모델링
학술정보원 리모델링

보도 포장 교체
벤치, 테이블 확충
교내 가로등 추가설치

중도

백양로

조모임 공간확보
반방, 동아리방 확보
거울, 방음 연습실 확충

기숙사 부족문제
자취 문제

자치공간 주거공간

[특화, 중도]

중앙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첫번째 특화

중앙도서관

중앙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현재 중앙도서관의 불편함을 개선하겠습니다.
연세-삼성 학술정보원과 구중도가 이제 연세인 누구나 쾌적하고 편한 환경 속에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것입니다.
국내 최대, 최고의 대학도서관 명성에 걸맞는 연세인의 새로운 자랑,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 연세



구중도 리모델링

구중도(구 중앙 도서관) 건물의 노후화 및 시설의 노후화, 낙후된 학습 환경은
국내 최고 대학 도서관으로의 위용을 무색하게 합니다.

구중도는 많은 연세인들이 가까이하고 자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점점 낙후되어가는 환경과 시설은 구중도를
우리가 잃어버린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추진 예정인 구중도 리모델링 사업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바람 연세가 고민합니다.

구중도 리모델링 세부사항

6층

쾌쾌하고 즐거운 더운 열람실은 이제 그만!

→ 6층 열람실의 시설을 교체하고, 환기와 온도조절이 잘 되는 쾌적한 자습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행사 많은 중도 앞 민주광장... 우리는 조용하고, 방해없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 방음시설을 확충하여 조용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휴게실이 너무 좁고 지저분해요

→ 여자휴게실과 놀라운을 개선하고 24시간 개방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연세인에게

따뜻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하

열람실이 너무 답답하고 환기도 잘 안돼요

→ 지하 열람실을 좋은 시설과 환기와 온도조절이 잘 되는 쾌적한 자습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늦은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매점을 우리도 갖고 싶어요!

→ 슛을샘 24시간 운영을 확대하여 연세인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기타

2,3,4 층 일반 열람실에도 소음방지 카펫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소음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냄새나고 오래된 화장실

→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여 고민거리를 풀 수 있는 기분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도난사고가 너무 빈번한 것 같아요

→ CCTV를 확충하여 더욱 안전한 구중도를 만들겠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단의 난간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바꾸겠습니다.

조모임 장소 걱정은 이제 그만!

→ 넓은 로비와 잉여공간을 개선하여 더 많은 조모임 공간과 학생전시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학술정보원 리모델링 세부사항



시험기간 3층 대열람실 24시 개방

매 번 11시가 되면 아름다운 음악소리와 함께 짐을 싸서 자리를 옮겨야했던

학술정보원 3층 대열람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오랜 시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연세인들을 위해 시험기간 3층 대열람실 24시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중도 연결통로 개방

밤이면 밤마다 바로 눈 앞에 두고 옆으로 돌아가야했던 구중도

이젠 주말에도,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구중도 연결통로를 개방하겠습니다.

옥상 카페테리아 테이블 추가 설치

공부에 지친 더 많은 연세인들이 시원한 옥상에서 쉴 수 있도록 옥상 카페테리아 앞 정원에

테이블과 의자를 추가 설치 하겠습니다!

두번째 특화 백양로

중앙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아스팔트 포장으로 딱딱한 회색 빛 백양로
비가 많으면 강이 되고 곳곳에 웅덩이가 생기는 백양로
연세의 상징인 백양로를 연세인들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건고 싶은 백양로를 향한 모두의 바람을 신바람 연세가 담겠습니다

[특화, 백양로]

중앙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건고 싶은 백양로 만들기 프로젝트

보도 포장 교체

화단으로만 구분 되어 있는 보도를 기존 아스팔트에서, 보도블럭, 우레탄 등 걷기 편한 보도로 바꾸겠습니다.

벤치, 테이블 확충

기나긴 백양로를 걷다 지친 당신의 다리를 위해, 백양로 및 교내 곳곳에 벤치와 테이블을 확충하겠습니다.

교내 가로등 추가 설치

우리학교는 넓은 면적에 비해 가로등의 숫자가 적고 다소 어둡습니다.

밤에도 밝고 안전한 연세대학교를 위해, 주위를 경계하며 걸음을 빠르게 재촉해야했던 연세인들을 위해,
백양로, 기숙사, 동문, 서문 등 학내 곳곳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밝기를 조절하여,
밤에도 안전하고 걷기 좋은 백양로, 걷기 좋은 연세대학교를 위해 신바람이 달려가겠습니다.

[세부사항]

현재 백양로에 중앙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과 동일하게 양쪽 길(화단 쪽)에 가로등 설치
구중도와 백양로로 이어지는 곳, 양쪽으로 가로등 설치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푸른색 전등으로 가로등 교체
노천극장과 동문, 청송대, 서문,
기숙사 가는 길 가로등 사이 보조등 설치
전체 가로등 30lx 이상으로 밝기 조정 (현재 가로등 사이 적정조도 3~6lx에 훨씬 못 미치는 0.1~2.5lx)
LED 등으로 전면교체함으로써 조도개선과 에너지 절약 달성
(기존 175w로 100lx의 밝기를 내던 가로등과 달리 35w로 500lx)

세번째 특화 자치공간

농장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특화, 자치공간]

농장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부족한 조모임 공간 확보

"조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백양관, 종합관 강의실들을 수업 외에 쉽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내 스터디, 조모임을 위한 공간의 부족으로 오늘도 많은 연세인들은 이 곳 저 곳 자리를 찾아다니며 카페로, 사설 스터디 공간으로 나섭니다.

이젠 신바람 연세가 학부대학(백양관, 종합관)의 강의실 대여시스템을 정비하여 학생들이 손쉽게 강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스터디, 조모임, 총회 등 모임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세요!

반방, 동아리방 부족문제 해결

반 방이 없는 단과대.., 학회실 자치공간이 없는 학회, 그리고 동아리들.

캠퍼스 내 신축예정건물에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이를 위한 공간 확보를 약속받아

반방, 동아리방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공간을 향한 모두의 바람! 신바람 연세가 앞장서겠습니다.

거울, 방음 연습실 확충

주위의 시선을 무릅쓰고 오늘도 루스채를 유리를 바라보고 공연 연습중인 학생들...

노천극장 내부의 거울 연습실을 개방하고 학내에 다양한 공연 연습, 악기 연주 등을 위한 연습 공간을 확보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특화

주거공간

농장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특화, 주거공간]

농장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기숙사 부족 문제

무악학사 학부생 우선 배정

매 학기 추첨에 당첨되기를 기도하는 연세인들.. 무악학사에 학부생 수용인원은 왜 이리 적은지. (10% 수준)

학교, 기숙사등과 협의하여 무악학사에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 수용 비율을 줄이고 학부생을 우선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축기숙사 문제

소문만 무성한 연세대학교 신축 기숙사.. 땀은 얼마를 더 팔아야 할지...

신축 기숙사 건립 계획 수립 및 진행을 위해 신바람 연세가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기숙사 신축문제에 대한 연세인들의 외침을 이뤄내겠습니다.

주거 문제를 향한 모두의 바람이 기숙사에도 펼쳐집니다.

[자취문제]

연세 자취 정보 사이트(자취 넷) 개설

학교 근처에서 자취나 하숙하시는 연세인 여러분, 방 구하기 많이 어려웠죠?

중간에 이사라도 가야되면 또다시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고 가격을 비교하고

짐까지 옮겨야하는...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자취 정보 사이트에서는

- 서문, 동문, 남문, 정문 하숙집 & 원룸 위치, 시설, 가격 등 정보 제공
- 방 구할 때 고려해야 할 팁 조언
- 하숙집 간 경쟁을 통한 실질적인 하숙비 인하
- 용달 업체와 제휴, 저렴하고 편리한 이사

자취문제 고민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신바람이 발로 뛰겠습니다.

자취금 저리 대출 추진

자취금 저리대출 혜택을 위해서 학내에 입점한 은행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자취 보증금, 월세에 대한 연세인들의 고민을 신바람 연세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신바람 연세 정책 한눈에 보기] 신바람 연세가 찾는 연세인의 권리

[등록금]

등록금 동결을 요구합니다.

학교 관계 부처에 적립금 및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등록금 심의 위원회의 위상을 재검상 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비율 확대를 촉구하겠습니다.

졸업학기에는 수강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절대평가제도를 재도입하겠습니다.

졸업 전까지 6학점에 한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는 학점 포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체육과목의 등록금 외 추가적인 수강료 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기 별 남은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는 학점 이월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복지]

학내 무선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학관 음식의 가격을 인하하겠습니다.

교내 단과대 식당에 식권 자판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학내 모든 건물에 과자 자판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연장 공통 구매를 시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수업교재를 추가 구비하겠습니다.

연세 텀블러를 제작하겠습니다.

[신바람 연세 정책 한눈에 보기] 신바람 연세가 고민하는 연세인의 권리

[상상]

연세인의 창의적인 상상을 위한 새로운 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총장배 체육대회 확대 운영, 운동장 예약시스템 변경 등의 체육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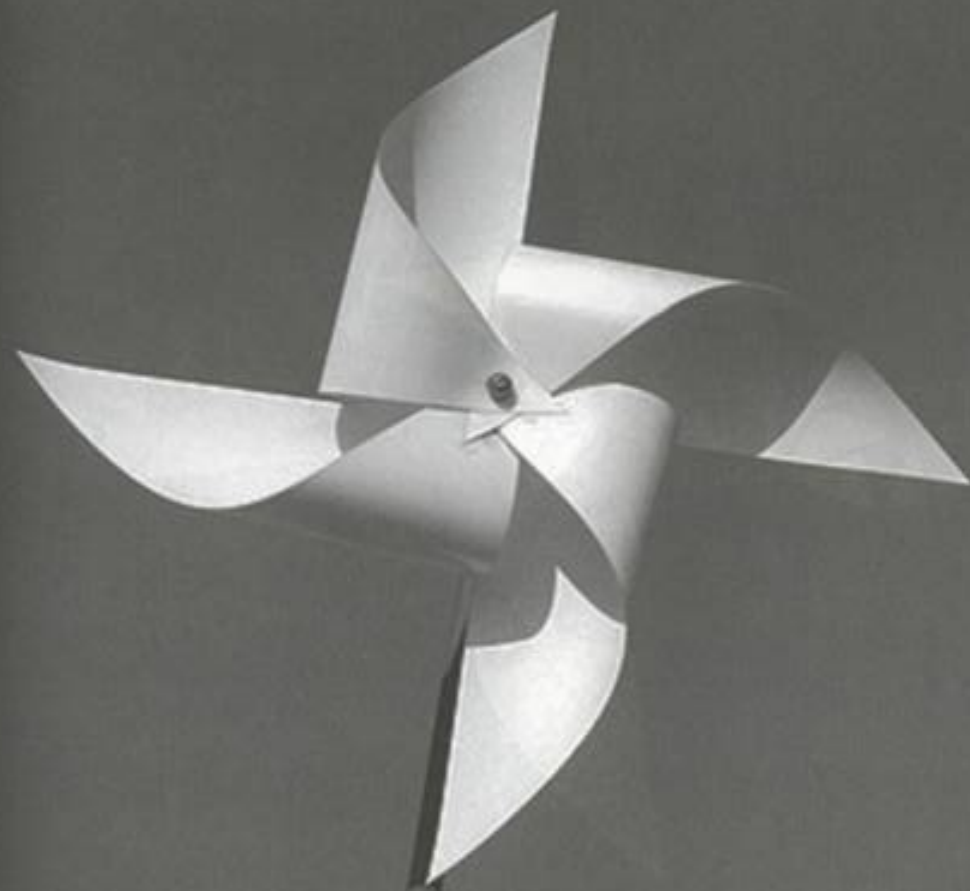
연세인이 우리사회에 관하여 스스로 가치 판단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여]

기존의 에듀캠프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연세인의 사회적 기업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연세인 스스로 사회기여 활동을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연세인 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바람 연세 정책 한눈에 보기] 신바람 연세가 생각하는 특별한 정책

[중앙 도서관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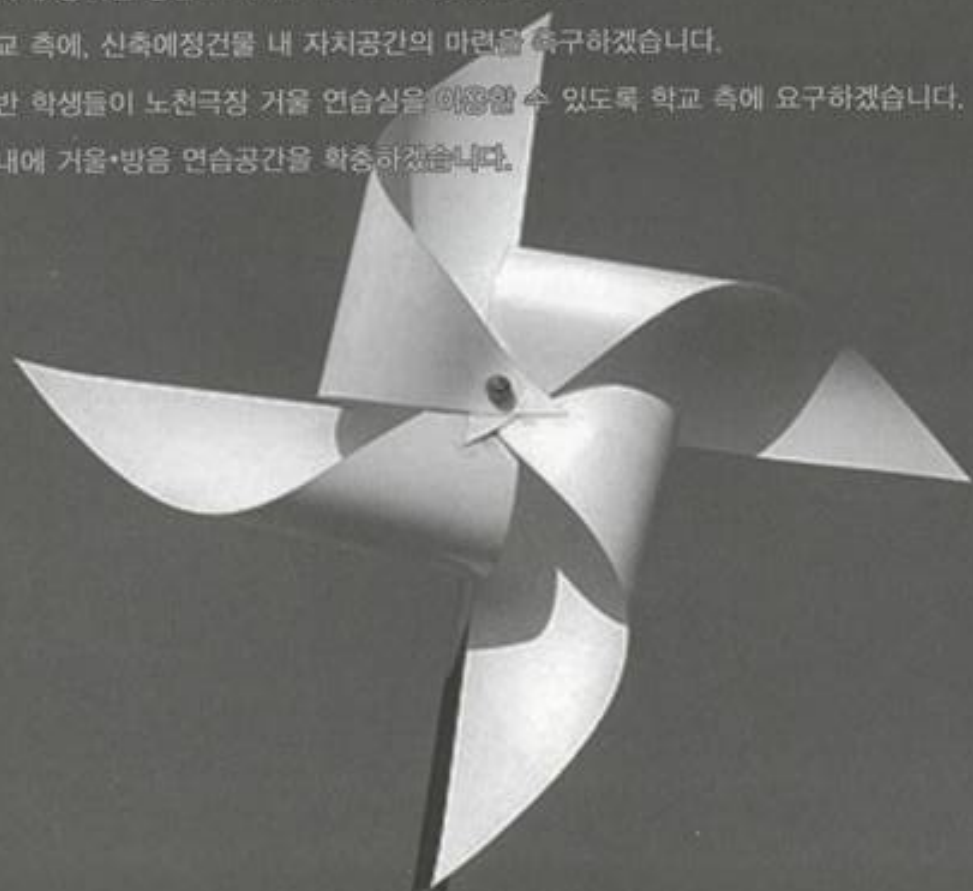
연세인들이 더 쾌적하고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 중도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세-삼성 학술정보원 운영 시스템과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견고 싶은 백양로]

보도블럭과 우레탄으로 백양로 보도 소재를 교체하겠습니다.
학내에 벤치와 테이블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치공간]

단과대 강의실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측에, 신축예정건물 내 자치공간의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노천극장 거울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하겠습니다.
학내에 거울·방음 연습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두의 바람

신바람연세

당신과 함께라면 ☀
Yes, We Can!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실망감은 커져만 갔다.
그렇게 나는 점점 작아져야만 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손을 잡아주었다.

뜨겁게 마주잡은 두 손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서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고
눈 앞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다시 당신과 함께 손을 마주잡으려고 한다.
혼자가 아닌,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는 확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라면, Yes, We Can!



Yes



We Can!



총학생회장 후보

정준영

(사회4)

부총학생회장 후보

김창민

(세라믹3)

사과대2반 우리사2부회장으로 반 공동체를 튼튼히 다지다.

사과대 동아리연합회장으로 동아리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다.

부자학교편드감시단 활동 속에 대학의 현실과 학생들의 권리를 고민하다.

제 46대 사과대학생회장으로 사립인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 변화를 만드는 학생회를 그리다.

2009 교육공동행동 2만마일, 2010 연세인 미션: 등록금을 올려라에서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다.

제 47대 총학생회 부집행위원장, 2010 생활협동조합학부생이사로 연세인의 삶에 주목하다.

다시 한 번 당신과 함께 도약하기 위해
제 48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후보에 입후보하다

연세대학교 공학부에 입학하여 새로운 꿈을 펼치기 시작하다.

학회 프롤로그, 울동패 꿈을 활동을 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알아가다.

공학 4반 부회장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다.

6.3 공과대학 학생총회 실천단 활동으로 공학인들의 보다 나은 일상을 위해 힘쓰다.

2010년 연세인 미션: 등록금을 올려라! 활동으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제 47대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공학인들과 함께 삶의 문제를 고민하다.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 송도분과위원회 학생위원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다.

당신과 함께 꾸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제 48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후보에 입후보하다

Yes, We Can!



- 2 프롤로그
- 4 후보자 소개
- 8 20대의 눈으로 바라본 2010 한국사회
- 12 47대 총학생회 평가
- 14 [중간점검] 우리의 교육권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주거권 / 등록금
- 16 연세대학교 재단은 어떤 곳일까?
- 18 [1부] 우리가 만드는 소중한 삶의 변화 Yes, We Can!
돈 걱정없이 편안한 집에서 공부할 권리, 주거
건강한 삶을 향한 발걸음, 보건
우리들이 가고 싶은 학생식당 만들기, 밥값
행복한 내일을 향한 청사진, 청년고용
- 38 [2부] 우리가 꿈꾸는 학교의 변화 Yes, We Can!
우리의 교육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 등록금
학교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발걸음, 학생참여
더 쉽게, 더 편하게 교육받기 위한 권리, 교육환경
- 52 [3부]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변화 Yes, We Can!
우리가 주인이 되는 가능성의 실현, 생협
행복한 우리 삶을 향한 발걸음, 문화
당신과 함께라면 보다 나아지는 우리
- 64 당신과 함께라면 현실이 될, 핵심 정책 정리

20대의 눈으로 바라본 2010 한국사회

하나, 눈앞으로 다가온 졸업. 우리가 갈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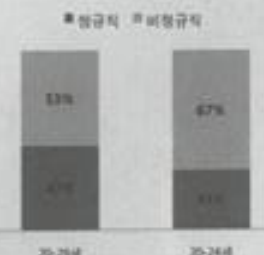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비정규직 노동자



20대 비정규직 비율



20대 비정규직,
이제 정규직보다 많다

IMF 때보다 낮아진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률,
우리가 졸업하고 마주하게 될 현실



‘청년 실업 100만’
‘등록금 1000만’ 시대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둘, 대학은 더 이상 우리들을 감사해주지 않는다

2010년 3월, 고려대학교 학생 김예슬의 선언, 그리고 자퇴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사회는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고,
‘용기 있다’ ‘대단하다’ 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20대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자격증 장사 브로커? 배움 없는 대학?
“이미 다 아는 얘기,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다”



어느 대학은 한 학기 200만원에 육박하는 민자 기숙사를 유치하고,
어느 대학은 학내에 홈플러스 유치하려는 노력을 한다.
대학을 움직이는 논리? 간단하다. 이익창출

중앙대학교 구조조정 목표:

‘불필요한 학과를 통폐합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행정학과 + 법학과 → ‘공공인재학부’ (일명 고시반) 신설
대학교육의 목표? 간단하다. 맞춤형 인재 양성

이제 더 이상 대학은 ‘지식의 전당’이 아니다
학문을 위한 공부보다는 출세를 위한 공부를 강요하는 기업형 학교

2010년 대학의 ‘진짜’ 모습이다

셋, 성공의 사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고시 평균 준비 기간 14.8개월

외무고시 평균 준비 기간 22.3개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에게 필요한 노력은? 면접 1시간

외교부 특채로 시작된 논란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까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의 비리와 실상은 양파껍질 까듯 끝없이 파헤쳐졌다.

한국사회의 현주소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호의호식할 수 있다.



‘혈연이라는 동아줄을 타고’

우리들이 안간힘을 써서 오르려는 성공의 사다리
돈도, 집안도, 인맥도 없다면 그것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다.

‘그들만의 리그’

특권층은 이미 하늘 위에 존재한다

넷, 20대의 힘을 보여준 2010 지방선거

기성세대의 통념:

20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20대는 개인주의가 강하다.

20대는 스스로의 일에 목소리를 낼 용기도 없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

주거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20대 문제의 이슈화 및 공약화

2-30대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고려대, 경상대, 울산대 등
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지방선거 투표율,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2.9% 상승

20대 투표율, 7.2% 증가

이제 20대는 기성세대의 통념을 깨고
그 동안 내면화된 무력감과 열등의식을 깨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선거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정치를 움직인 20대의 힘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변화의 조건, YOU
당신의 삶에 주목한 YOU. 지난 한 해, 어떠셨나요?

삶에 맞닿은 문제를 고민한 총학생회

마흔일곱번째 총학생회 YOU는 단순한 시설 개선보다는 당신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높아져만 가는 등록금에 힘들어하는 당신을 위해 10억 장학금을 얻어내었습니다. 낯선 땅 서울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당신을 위해 주거권을 이야기했고, 기숙사 신축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예쁜 학생식당보다는 다른 학교에 비해 너무도 비싼 우리학교의 밥값에 대해 고민했고 이는 메뉴의 300원의 할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외부 기업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생협을 존중했고 슬기생의 5%할인을 이루어냈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목하는 총학생회

또한 학생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바라보는 총학생회였습니다. 총학생회가 학생에게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여러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신촌 락 페스티벌, 대동제, 그리고 연고제 기획단이 꾸려졌고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학교생활을 위해 수요문화제를 열고, 월간YOU를 발행하였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총학생회, 그러나 공동체는 어디에?

학교의 주인인 당신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해 공동체에 주목했습니다.

연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소통하는 공동체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내의 공동체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그것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를 향해 내민 손에 잡히는 것은 흩어진 개인뿐이었습니다.

물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를 처리하는 데 서툰 점도,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지런히 움직인 총학생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총학생회의 새로운 상을 제시 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2만 연세인을 위해 1년동안 열심히 달려온 YOU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교육권은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 주거권

편안한 집에서 돈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 주거권은 곧 교육권입니다.

그러나

신촌 근처 자취생, 하숙생의 월 평균 주거비용 50만원

과외로, 알바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거는 권리가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제 47대 총학생회 YOU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거실천단 '집을 찾는 달팽이'를 꾸려

교육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의 주거권을 고민했습니다.

집을 찾는 달팽이는 주거권 강연과 선전전 등을 시작으로

학내외에 20대 주거권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중도 앞 602인 선언과 여러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6.2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20대 문제의 핵심으로 주거권을 인식하고 이를 공약화했습니다.

이는 20대 주거권이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인식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습니다.

그리고 2011년,

아직 주거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형성된 주거권에 대한 학내외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등록금

교육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학교가 함께,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하는 것입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우리는 '동결 VS 인상'의 구조에 갇혀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싼 등록금, 우리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합니다.

2008년, 부자학교 펀드감시단 "적립금 투자내역 공개하라!"
학교 본부 연세춘추 통해 적립금 운용 투자 비율 공개.

2009년, "2만 연세인 마침내 일어서다" (2만마일)
등록금 분할 납부 횟수 2회에서 4회로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화 실현.

2010년 47대 총학생회, 학교 본부와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요구.
등록금 2.5% 인상 합의, 성금 장학금 10억 신설 합의.

납부 방법 및 대출과정의 개선,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이렇듯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정부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해, 총학생회와 학교 측의 합의안은
학생과 학교가 함께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총학생회는 329 등록금문화제를 통해
학교가 정부에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것,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안과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그들만의 카르텔,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이하 이사회)는 우리학교의 주요 예·결산을 결정하고 장 임명권을 비롯한 인사권을 결정하는 등 우리학교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2010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의 주요행사

3월 3일 - 인천 국제캠퍼스 종합관에서 국제캠퍼스 봉헌식
 3월 9일 - 의과대학 교수동 봉헌식
 3월 19일 - 외국인 학생 전용 기숙사 SK국제학사(SK Global House) 봉헌식
 6월 3일 - 용인세브란스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봉헌식
 7월 13일 - 아시아 암 허브병원 '연세 암전문병원' 착공식
 9월 28일 - 송도 자유경제구역에 '세브란스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9월 29일 - 동문 앞 대신동 부지에서 연세재단 동문 앞 빌딩(V빌딩) 착공식



이 중에 학생들에게 사전에 알려지거나, 학생들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을까요?

이사회의 사안이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라서 그렇다면,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를 학생의 손으로 직접 뽑거나 최소한 학생들이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2010년의 연세대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과 같고, 국회의원을 직접 뽑지 못하고, 국회에 참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학내 주요사안의 최종결정권자인 총장을 선출하는 자리에 이사회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학생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동안 재단이사장은 14년 동안(97년~) 한 사람(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우영)이 독점하였고, 그 사이 이사회는 불투명하게 운영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학생들도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이사회에 학생참여를 요구합니다!

하나. 재단이사회의 안건과 결과, 회의록을 전체 학생에게 메일링하라
 하나. 재단이사회에 학생 참관을 보장하라
 하나. 학내 주요사안의 최종결정권자인 총장선출에 학생참여를 보장하라

재단이사회에 주목합니다!

그 동안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학교법인으로서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는 내팽개쳐둔 채 돈이 되는 의료원에만 집중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원에는 2010년에만 건물이 3채 올라간 것에 반해 본교에는 특별한 공간문제개선이 이루어진 점이 없는 점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재단 경상비전입금_ 의료원 117억 원 vs 본교 32억 원
 재단 자산전입금_ 의료원 103억 원 vs 본교 0 원
 재단 부속병원투자지출_ 의료원 791억 원
 (출처 : 2010년 연세대학교 자금예산 공고)

재단이 의료원에만 투자를 집중하는 사이 등록금은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등록금에 대한 재단의 책임은 학생 개인에게 떠맡겨졌습니다. 이사회는 이제 본연의 의무에 집중하고, '연희전문대학' 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회는 본교에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고 등록금문제와 공간문제 등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교에 대한 재단전입금 확충을 요구합니다!

하나. 본교에 대한 재단전입금을 확충하라
 하나. 구체적인 재단전입금 사용계획을 공개하라
 하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1부 우리가 만드... 소중한 삶의 변화

주거

돈 걱정없이 편안한 집에서 공부할 권리

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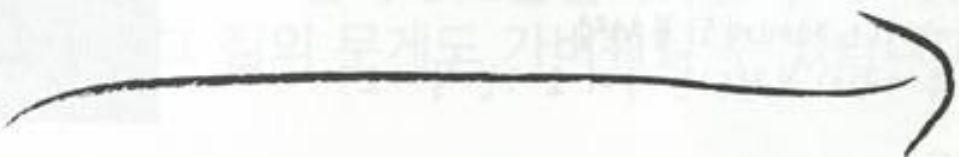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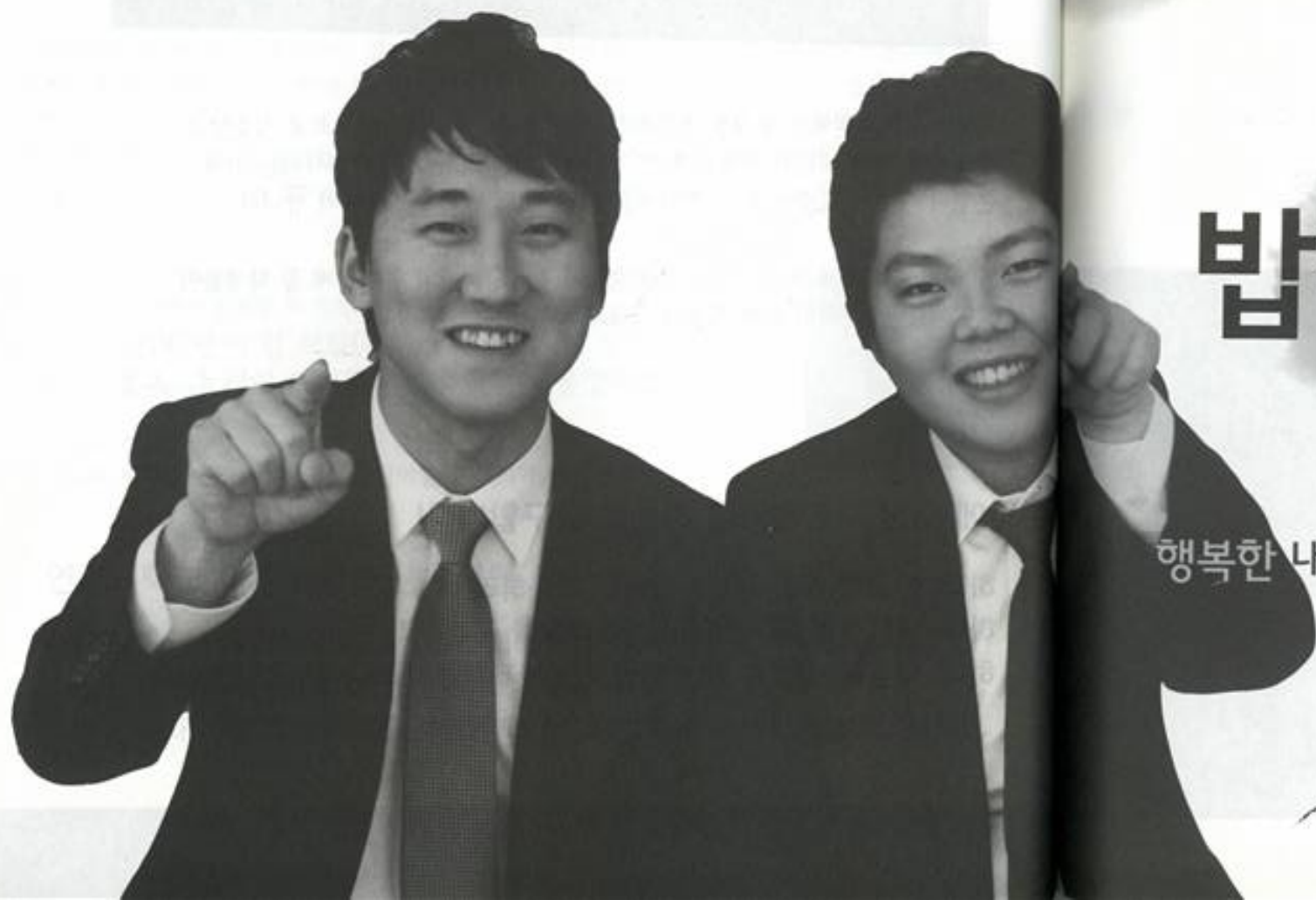
건강한 삶을 향한 발걸음

밥값

우리들이 가고 싶은 학생식당 만들기

청년고용

행복한 내일을 향한 청사진



우리가 만드는 소중한 삶의 변화 Yes, We Can!

돈 걱정없이 편안한 집에서 공부할 권리,

주거

어느 20대 자취생의 별 헤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가을 속에 별들을 하나씩 헤아리며
내 마음 속의 것들도 하나씩 헤아려봅니다.

별 하나에 이번 달 방세 50만원과
별 하나에 다 내지 못한 보증금 500만원
별 하나에 주인아주머니의 화난 얼굴
그리고 별 하나에 허리가 휘어가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변듯한 기숙사, 돈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런 단어들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어 보입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어머니, 저에게도 봄처럼
주거권이 보장되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Yes, We Can! 이 보장하겠습니다!

주거권은 곧 교육권이라는 믿음 아래 열심히 달려온 지난 일 년.
이제 수많은 '어느 20대 자취생' 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하나 생협을 통한 자취방 보증금 저금리 대출제도

현재 연세대학교 교직원들은 생협에서 운용하는 '교직원 대여기금' 을 통해
연 3.5%의 이자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들은 생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학생들의 경우 비싼 주거비용과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신용리스크의 문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교직원들에 비해
생협을 통한 대출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YES, WE CAN 이 제시하는

생협을 통한 자취방 보증금/생활자금 대출제도

대출제도	이자율	대출한도	대출기간
자취방보증금대출제도	연 3%	1,000만 원	1년 만기 일시상환
생활자금대출제도	연 3%	100만 원	6개월 만기 일시상환

(대출대상자: 자유장학금 기준에 충족되는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자취방을 구하거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학생)

(대출기간: 대출자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경제적 여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연장 가능)

1년에 600만원이라는 주거비용,
우리 함께라면 그 짐의 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



기숙사 건립시 추가로 수용 가능한 인원, 1600명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지하 3층, 지상 7층의 기숙사를 신축할 경우, 신촌의 비싼 방값 때문에 힘들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1600명의 학생들이 새로 기숙사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신촌에서 방을 구하던 1600명의 수요자가 줄어들어 신촌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타 대학들의 기숙사 신설을 자극하여 전반적인 20대 주거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숙사를 짓는 일은 20대 주거권을 보장하는 첫 걸음입니다.

현재
실질적인
기숙사 수용률
6.22%

200억의
건립비용



기숙사 건립시
실질적인
기숙사 수용률
15.6%

현재 연세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16.48%

그러나 무악3학사(의치간 전용),

법원학사 등을 제외한 실질 수용률은 6.22%

현재 가장 유력한
신축 기숙사 건립 후보지



YES, WE CAN이 기숙사 건립에 대처하는 두 가지 자세

- 2011년부터 매년 50억 원씩 4년 예산을 편성할 것을 학교에 요구한다.

최근 지어진 SK국제학사 건축비용으로 계산하면 기숙사를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억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4년 동안 매년 50억 원씩을 기숙사 건축 예산으로 편성하는 일은 1년 예산이 4000억에 이르고, 신규사업에 397억 원을 배정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재정상황에 전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닙니다.

- 기숙사는 외자 유치의 방법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내부기금으로 건립되어야 한다.

만약 외자유치를 통해 기숙사가 건설된다면 이는 SK 국제학사처럼 또다시 비싼 기숙사비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때의 '학교내부기금'은 우리의 등록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재단의 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악1, 2학사 한 학기 기숙사비
약 70만원(식비제외)

SK 국제학사 한 학기 기숙사비
약 154만원(식비제외)

약 2배

20대 주거권 보장의 첫 걸음을 떼는 일,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우리가 만드는 소중한 삶의 변화 Yes, We Can!

건강한 삶을 향한 발걸음,

보건

가족들과 떨어져 신촌에 살고 있는 당신
집이 가장 그리울 때는? '집 밥이 생각날 때'
가장 서러울 때는? '아플 때'

날씨가 쌀쌀해지는 11월,
끓이지 않는 재채기와 기침소리,
강의실에 들어서면 온몸 감기환자 투성입니다.
'20대는 돌도 씹어먹을 나이' 라는 말 때문에
우리들의 건강문제는 모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너무 아파 수업을 들지 못하겠는데
우리는 당장 갈 병원이 없습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지천인 신촌에서 이비인후과와 내과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종합감기약을 제공해주는 정도일 뿐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학교 건강센터.
아프면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데 왜 학교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나요?

우리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헌법 제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건권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4대 보험에
'건강보험'을 포함하고 국민들이 최소한의 보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건강보험 수준은?

2008년 기준 평균 의료비 보장성	
OECD 국가	한국
약 80%	62.2%

OECD 회원 29개국 가운데 28위



하지만 건강보험도 기성세대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20대는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거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는데, 이 두 계층은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미구나 대학생의 경우, 이들의 보건권을 보장하는 '학교보건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법률과 규제가 미비한 탓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교는 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보건권'은 당연히 학내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시스템'만 갖춰져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건강, 더 이상은 개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와 학교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학생들의 보건권 향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IN 신촌... 보건권 수준은?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면 아플 때마다 세브란스 병원의 혜택을 누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캠퍼스 앞에는 한국에서 최고급인 대학병원과 의료원 시설이 있지만, 캠퍼스 안의 건강센터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매 학기 내는 등록금에는 7,600원의 보건비가 포함되어 이에 기반해 건강센터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현재 건강센터에서 실질적인 진찰과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 후에 종합 감기약을 받아오거나,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진료가능 과목 비교

연세대학교: 내과/ 치과

서울대학교: 내과/ 치과/ 정형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학교 밖으로 눈을 돌려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신촌 지역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관련 의료시설이 넘쳐납니다. 반면에 이비인후과/내과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근처와 신촌역 부근에서 나의 하찮은 감기를 호소할 곳은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 5일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
학생들의 보건권은 이제 학교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 진료과목 UPGRADE!

• 이비인후과/내과 개설

가장 흔하고 고질적인 질병 감기!

현재 건강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찰의 상당 부분은 감기 혹은 복통·두통 등의 내과 질환입니다. 가장 수요가 많고 기본적인 과목인 이비인후과/내과 진료는 학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상담 수준에 그쳤던 진료를, 정규의사와 기구를 통한 진료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치과진료 개선

사실상 스케일링 이외의 기능을 하지 않는 치과, 인력과 시설의 보충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기본적인 수준의 치과 진료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X-ray 시설이 설치되면, 건강센터에서 구강검사·충치치료 정도의 치과진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교정과 임플란트 등을 상담 받아 세브란스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 건강센터,
이제는 '기본권' 의 측면에서
더 넓고 더 향상된 차원의 보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시설 UPGRADE!

학교기숙사에 입사하려면 제출해야 하는 건강검사자료, 흉부 X-ray가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지만, 현재 건강센터는 그마저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연세대학교 건강센터 규정 제 3조에 따르면, 건강센터의 수행사업에 엑스선 촬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X-ray시설을 비롯한 의료시설 개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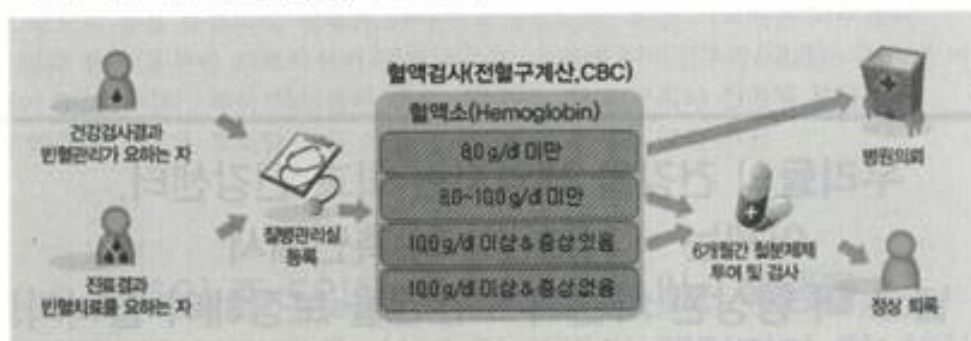


건강 프로그램 UPGRADE!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고, 아프지도 않은 데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포기하곤 합니다. 체중관리, 빈혈관리, 피부과 상담 등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시) 이화여자대학교 빈혈관리 프로그램



보건복지부에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보건사업에서 대학교의 보건사업은 초중고에 비해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또한 대학 건강센터의 운영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운영주체도 무분별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요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대학진학률이 90%에 육박하는 지금, 대학교의 보건사업은 단지 학교의 자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 보건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 인원, 특히 상근 의사와 간호사를 확충하여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각 대학의 건강센터를 기술적으로 지원·감독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Yes, We Can! 이 보건복지부에 제안합니다!
대학 건강센터의 상근인원을 확충하고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대학생들이 학내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보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소중한 삶의 변화 Yes, We Can!

우리들이 가고 싶은 학생식당 만들기

밥값

사람이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밥'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듣다가 허기가 질 때 생각나는 밥과 이를 제공하는 학생식당은
학생들이 교육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필요한 '밥'은 비싸고, 가끔씩 먹는 '특식'이 아닌,
'양질의 저렴한 밥'이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밥'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제공되는 '밥'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4500원에 달하는 학생식당 메뉴

그동안 연세대학교에서 '밥'은
교육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저 수익사업이었을 뿐입니다.



하나

고를샘 리모델링 학생참여

학생식당에서 아직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곳, 고를샘
고를샘은 아직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만큼,
리모델링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적의 공간입니다.

이미 카페테리아와 프레프레에서는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이 아닌,
신촌에서도 먹을 수 있는 '가끔 먹는 비싸고 특별한 음식'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고를샘에서는 '가끔 먹는 음식'이 아닌,
'일상적인 음식'이 판매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49차 생협 이사회를 통해서
고를샘에 '배식코너'나 '국밥코너'를 개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Yes, We Can!은 고를샘에서 배식코너나 국밥코너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를샘 운영업체 선정'에서
13년동안 학생식당을 독점운영한 (주)아워홈과 자동적인 계약이 아닌,
직영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가고 싶은 학생식당 만들기,
Yes, we can!이 당신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닌 교육을 받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밥' 을 요구한다!

학내 모든 식당 메뉴의 200원 인하

우리학교 학내 식당의 평균원가 중

'수도광열비' (수도료+전기료+가스비+기타)와 '생협수수료' 가 차지하는 비율은 7.2%

ex) 프레프레(옛 부를샘) 평균원가 3,720원 중 '수도광열비' 와 '생협수수료' 는 268원



우리학교 전체 식당의 수도광열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연간 2억 5천만원
즉, 2010년 연세대학교 재단의 세브란스 병원투자비(719억)의 0.348%
1%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우리학교 전체 식당의 수도광열비를 지원할 **연세대학교 재단은** 여력이 충분합니다.

생협의 식당 수수료는 학생식당 리모델링 이전에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리모델링 이후에 생겨난 원가 항목입니다.

생협의 '협동 복지 상생' 의 생협 가치를 생각한다면,
생협은 학생식당을 '수익사업' 이 아닌 '복지사업' 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협은 학생식당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이 아닌 '교육을 받기위한 필수적인 조건' 으로서
'밥' 은 학생들만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세대학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재단' 과
학생식당을 책임지고 있는 '생협' 이 함께 부담해야합니다.

Yes, We Can! 은

학내 식당 밥값을 인하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재단의 지원을 요구하고,
'수익사업' 이 아닌 '교육을 받기위한 조건' 으로서
학생식당을 운영하기를 생협에 요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2011년 안에 학생식당을 포함한 청경관, 상록샘, 교직원식당 등
학내 모든 식당의 모든 가격을 평균 200원씩 내리겠습니다.



비싼 밥값 때문에 메뉴 선택에서부터 즐겁지만은 않았던 우리의 식사시간,
YES, WE CAN! 라 함께라면 즐거워집니다.

우리가 만드는 소중한 삶의 변화 Yes, We Can!

행복한 내일을 향한 발걸음

청년고용

이태백_ 이십대 태반이 백수

청년실신_ 대학생들은 졸업 후 실업자가 되거나,
빌린 등록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

알부자족_ 알바로 부족한 학자금에 충당하는 학생들

십오야_ 십오세 이상이면 이십대 때 껌껌해진다

청년고용문제.

이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아니 그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더 나은 삶.

행복한 삶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청년실업 해결을 외치지 않습니다.



이제 청년고용은 '생존' 과 관련된 의제입니다

인턴? NO! 비정규직? NO!

청년실업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해법 '청년인턴제'
그런데 과연 인턴이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권고한 청년고용 3%를 지킨 공공기관은 86개 중 12개에 불과하며,
48개 기관은 아예 청년을 고용하지 않았다..."



2009-10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정규직 채용확률 3.2%

"20개 공공기관의 5800명 청년 인턴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고작 188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던 '청년인턴제'는 취업이 절실한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턴이란 이름의 비정규직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가차없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인턴이 아닙니다.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직장. 언제 쫓겨날 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
우리는 그곳에서의 정규직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용정책들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장기적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Yes, We Can!

하나, '청년고용할당제' 를 제안합니다!

지금의 한국과 같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던 나라, 벨기에
1998년 당시 신규 졸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실업자였습니다.
이 때, 그 속을 살아가는 청년실업자의 이야기를 다룬 '로제타'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로제타의 삶은 곧 벨기에 청년들의 현실이었고, 이 영화는 새로운 고용정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벨기에는 이른바 '로제타 플랜' 을 도입하여, 시행 첫 해 5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50인 이상 기업에서 3%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입니다.

5%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 를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권고사항이 아닌 규제사항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이를 100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세대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유니온으로 청년
노동의 질 향상을 통해 청년
세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활동하는 조직



둘, 청년유니온과 연대를 제안합니다!

2010년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20대 대학생들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혹자는 능력이 없는 세대라고, 혹자는 생각이 없는 세대라고, 혹자는 행동할 용기가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손가락질에 점점 무너지고 익숙해져 '쿨한' 대학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한 방송에, 20대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손가락질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20대에게 내면화된 무력감과 열등의식을 깨버리고 세상에 우리 세대의 절박함을 외쳤습니다.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고 누구도 대변해 줄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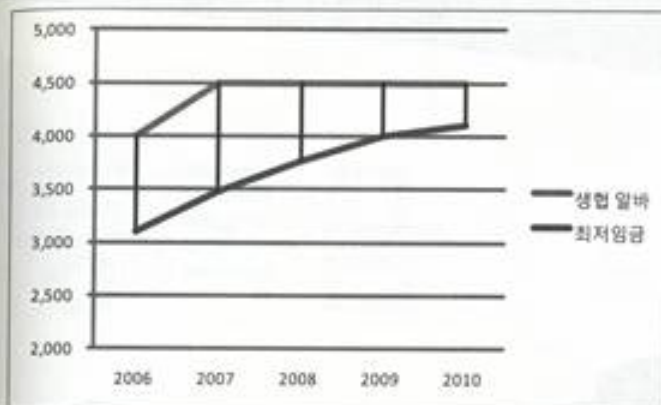
그들이 '청년유니온' 입니다.

'청년유니온' 과 연대를 통해 청년문제를 공론화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가 청년 노동 및 실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학내에서 대학생노동 권리 찾기

- 생협 아르바이트 시급 인상

공강을 이용해 녹색 조끼를 입고 편의점의 물건을 채워 넣습니다.
1시간 내내 제대로 허리 한 번 못 피면서 일해야 5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협 아르바이트 시급은 고정되어왔습니다.

'협동, 복지, 상생' 의 가치로 만들어진 생협에서조차 대학생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물가가 오르고, 등록금이 오르는 만큼 우리가 사는 삶의 부담은 무거워졌습니다.

Yes, We Can! 은 대학생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발걸음을
학내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실현시켜 나갈 때
더 큰 공동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실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Yes, We Can! 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5000원인 생협 아르바이트 시급을 7000원으로 인상하고,
생협직원 임금상승률만큼 매년 생협 아르바이트 시급을 인상해야 합니다.

2부 우리가 꿈꾸

학교의 변화
YES, WE CAN!

등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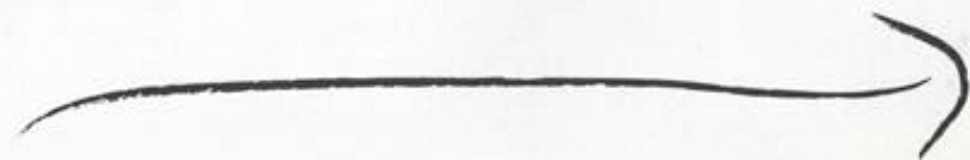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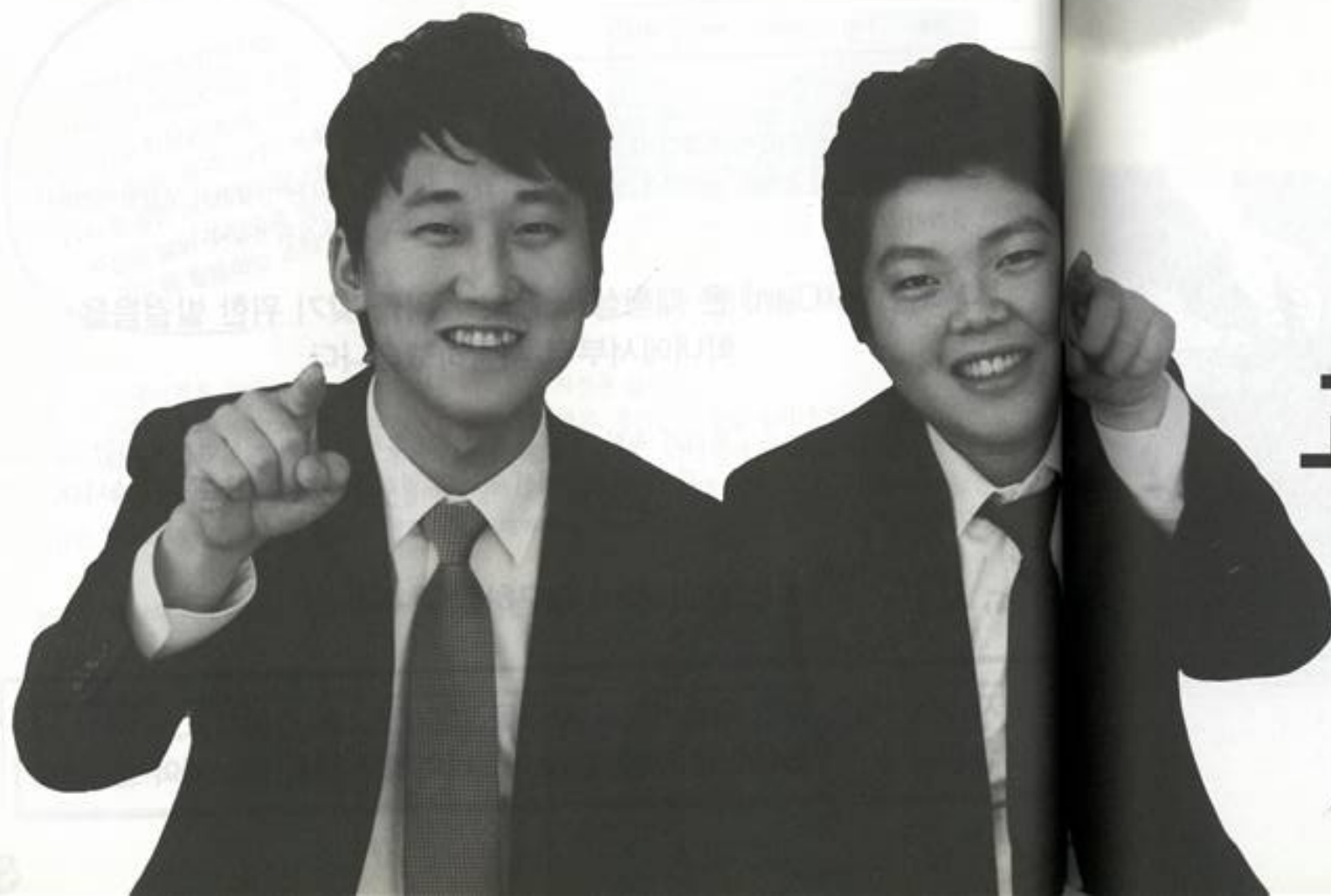
우리의 교육권을 되찾기 위한 발걸음

학생참여

학교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위한 발걸음

교육환경

더쉽게, 더편하게 교육받기 위한 발걸음



우리가 만드는 소중한 삶의 변화 Yes, We Can!

우리의 교육권을 되찾기 위한 발걸음,

등록금

우리들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권은
대학생의 행복 추구를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2010년 연세대학교 평균 등록금? 연간 907만원.
대한민국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355만 2천원.

한 가구의 세 달 월급 < 일년 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싼 등록금. 대체 왜?

WHY?

대한민국 GDP 대비 고등교육비 2.4%
이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 0.6%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고등교육재정

[2010 OECD 교육지표]

구 분	고등교육단계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2.4	0.6	1.9

2010년, 전국의 사립대학 적립금 6조 돌파
연세대학교 적립금 누적액, 3907억
한없이 '쌓여있지만' 하는 대학 적립금

2009년 적립금 증가액 상위 10개 대학			2009년 누적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순위	대학	증가액	순위	대학	누적액
1	이화여대	838억194만	1	이화여대	6250억3950만
2	연세대	758억1344만	2	홍익대	4857억8542만
3	동국대	583억4992만	3	연세대	3907억9281만
4	수원대	548억4731만	4	수원대	2579억7983만
5	고려대	287억9798만	5	고려대	2304억4854만
6	숙명여대	245억7988만	6	숙명여대	1894억3718만
7	상명대	244억7279만	7	연희대	1342억3780만
8	한양대	183억4903만	8	경희대	1102억
9	국인대	154억4833만	9	장신여대	1040억9000만
10	세강대	141억1903만	10	세강대	988억4601만

그러나,

부족한 고등교육재정을 외면하는 정부와,
'학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 이 아니라
'학교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만을 내세우는 학교.

우리의 교육권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 2010년도 합의안 이행

2010년, 학교와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교 본부와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함께 논의하여 등록금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정부 측에 고등 교육에 대한 대책을 함께 요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학생들을 위해 10억의 장학금을 확충하고,

교육 재정이 증가 될 시 일부를 학생복지 향상에 우선 사용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등록금 인상액에 올해 등록금 인상분이 포함되어**

향후 등록금 부담이 더 커지는 기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 등록금 책정시에 현재의 인상분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YES WE CAN!은

학교가 총학생회와 함께 국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할 것과

합의안에 명시된 등록금 책정 시에 현재 인상분을 고려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2011년도 등록금 동결을 이끌어내겠습니다!

ex) 2011년도 등록금 책정시 2010년도 인상분 고려시

문과대 등록금 2009년도 기준 361만원,

2010년도 기준 369만원.

2011년도 등록금 기준은 361만원 기준이므로,

최대 2.5%* 인상하더라도 369만원

동결!

* 등록금 인상을 상한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2011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의 최대 한계는 5%

2011년 등록금 문제도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YES, WE CAN! 이 되겠습니다.

둘

10억장학금 상설화(쿼터제)

2010년도에 확보했던 10억 장학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장학금으로 만들겠습니다.

2010년 확보된 10억의 총학생회특별장학금은

'섬김장학금' 으로 만들어져

기존 가계곤란 장학금의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낮아진 기준 : 평량평균 : 2.5->2.0

학기초과자 -> 신청가능!

총학생회특별장학금과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고, 동문기부금

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총 20억의 섬김장학금에서

2011년 같은 금액의 총학생회 특별장학금을 확보해

장학금 쿼터제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10억의 특별장학금으로부터 시작하는 장학금 쿼터제,
YES WE CAN!

우리가 만드는 소중한 삶의 변화 Yes, We Can!
학교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발걸음,

학생참여

대학에서 내려지는 크고 작은 결정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있을까요?

The First and The Best라는 연세대학교,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의 단계인 정보제공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정보도 알 수 없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지금,
'대학의 주인' 이라는 말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진정 **학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대학생이

대학의 사안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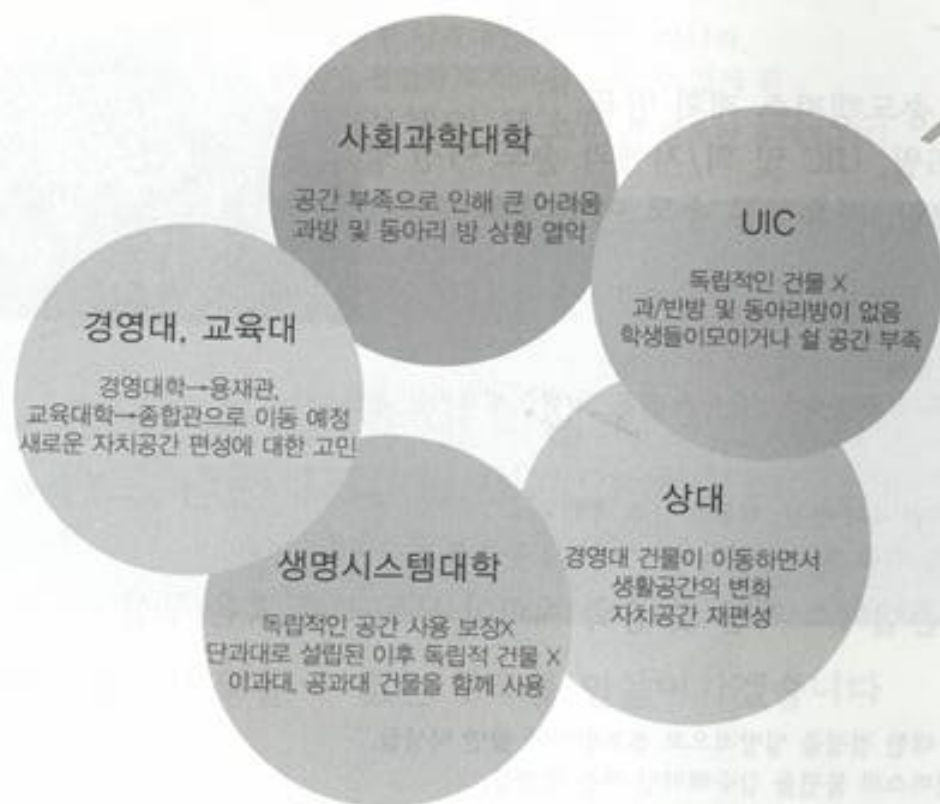
하나

단과대 자치공간

부족한 우리의 자치공간을 이야기하다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과방과 동아리방.
동아리 모임이 있을 때, 과 행사가 있을 때, 모임 공간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지금 여러 단과대에는 함께할 공간이 없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자 하는데도 공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과대에 공간 문제를 이야기하는 공간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공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과대 학생들과 함께 공간문제를 이야기하고,
공간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며
자치공간 확보에 함께하겠습니다!

드물

송도캠퍼스

2006년, 송도캠퍼스 계획 발표

2009년 6월, UIC 및 의/치예과 송도 이전 발표

2010년 2월, 자유전공 송도 이전 발표



이 모든 일들이

아무 정보도 학생들에게 공유되지 않은 채 기습 발표되는 동안,

신촌캠퍼스

제 2학생회관 계획 무산, 체육관 신축 계획 축소

공대 타워동 계획 보류,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무산 등

신촌캠퍼스 개발 및 증축 계획이 모두 보류 혹은 무산

그러나

송도캠퍼스에 대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야 했던 학생들,

그리고 신촌캠퍼스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학생들.

이 모든 학생들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No!

송도캠퍼스의 계획은

2006년 발표 이후로 일관성 없이 끊임없이 달라지지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 결정권이 없는 송도분과위원회는

여전히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es!

이는 이전이 확정된 단과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송도캠퍼스 때문에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신촌캠퍼스 학생들 전체의 목소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YES WE CAN! 은

- 송도분과위원회 내 학생 의결권 보장
- 송도 관련 자료 및 회계의 투명한 공개

를 학교에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송도캠퍼스 문제를 고민하는 신촌의 당신,
당신과 함께라면 YES, WE CAN!

셋 총장 직선제

대학 안에서는 총장과 이사회가 대부분의 일을 결정할 뿐, 정작 대학의 주인인 대학생은 대학의 일을 결정할 권리도, 대학의 결정에 목소리를 낼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정책위원회에서는 명목상으로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있지만, 학생은 단순히 등록금 인상률을 통보받을 뿐입니다. 송도 이전 역시 각 단과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송도분과위원회에서도 학생의 의사결정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정글고?!

현재 총장이 내릴 수 있는 결정들

- ✓ 학사제도 인준
- ✓ 등록금 인상률 인준
- ✓ 캠퍼스 내 건축 계획 승인/기각
- ...etc

연세대학교에서는 2004년 15대 총장 선출부터 교직원이 총장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총장 후보들의 공약에 교직원을 위한 공약들이 포함되었습니다.

2007년 모 총장후보의 공약

- ▲ 단과대학 운영 자율권, 예산권 보장
- ▲ 포지티브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 합리적 평가시스템 도입
- ▲ 교수·직원의 국내 최고수준 급여 보장
- ▲ 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전문화

학생이 총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학생을 위한 공약 역시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받고 생활하는 공간을 책임지게 될 총장에 대한 선거권은, 대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YES WE CAN!

이 제안하는 새로운 총장 선출 방식



당신과 함께라면, 총장도 우리 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소중한 삶의 변화 Yes, We Can!
더 쉽게, 더 편하게 교육받기 위한 발걸음,

교육환경

일주일에 5일, 하루에 약 12시간,
학교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 약 60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우리에게 있어
교육을 받는 공간이자,
또한 일상의 공간입니다.

또한
배움은 학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의 실천 역시 학교 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더 쉽고 편하게 교육받을 권리.
더 많은 배움을 찾고 나눌 수 있는 권리.

YES WE CAN이 제안하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입니다.



하나 중도 리모델링에 학생의견 수렴

환기가 잘 안 되고 냉난방이 들쭉날쭉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중앙도서관(구중도).
리모델링이 결정되기는 했다는데
어떻게 바뀔다는 것인지, 정말 리모델링을 하긴 하는 것인지,
궁금한 점들만 늘어갑니다.

2010년, 중도 리모델링 계획은 부활했지만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미진했습니다.



YES WE CAN! 은

기존에 존재했던 중도 리모델링 계획을 바탕으로
연세-삼성 학술정보관과 송도캠퍼스 계획으로 인해 외면당했던
중도 리모델링 계획에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한 수렴해
보다 새롭고 편안한 중도를 만들겠습니다.

중도에도 옥상 카페테리아를 만들고 싶은

당신과 함께, *Yes, We Can!*

OCW (Open Course Ware, 강의나눔운동)

❁ ocw란? 미 매사추세츠공대(MIT)가 2001년 시작한 것으로 대학 강의를 인터넷으로 대중에게 무료 공개함으로써 대학의 사회기여와 지식나눔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 case study

'내 강연 볼 수 있게 한 숙명여대, 고마워'

2010년 OCW를 도입한 숙명여대는 국내외 석학들의 강연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하면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강연자들에게서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대학의 진정한 목적인 지식의 공유와 배움의 사회 기여를 실천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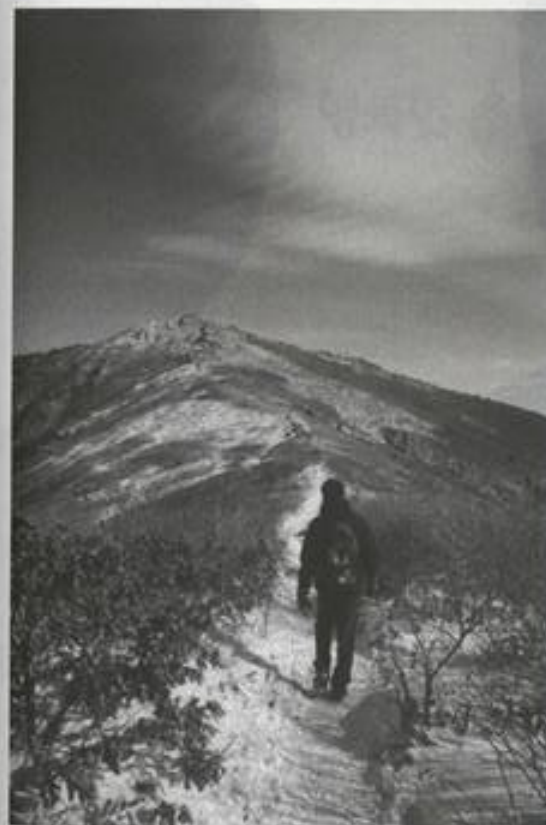
인터넷에서 OCW 강의를 들을 경우 : 1학점 P/NP 인정
한 학기에 1학점, 전체 학기 중 최대 4학점 인정
의 연세대학교 OCW를 제안합니다.

❁ 당신과 함께한다면, 있을 법한 미래

1 졸업필수학점이 135학점인데다 재수강까지 겹쳐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리스 신화의 이해'를 듣지 못했던 A양은, OCW를 통해 Harvard University의 '그리스 신화와 미학'을 집에서 들은 후, 1학점 PASS까지 인정받았습니다.

2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군에 입대한 B군은 행정병으로 배치받아, 쉬는 시간 틈틈이 OCW를 이용해 현대생명론 수업을 이수해 소중한 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보다 즐거운 강의를 나눌수 있습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쉰의 '고향' 중에서

3부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변화
YES, WE CAN!



생협

우리가 주인이 되는 가능성의 실현!

행복한 우리 삶을 향한 발걸음 문화

당신과 함께라면

Yes, We Can!

우리가 주인이 되는 가능성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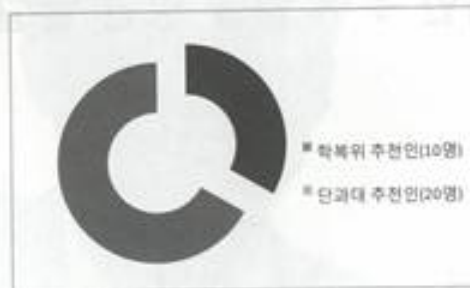
생협

하나, 생협 담당 학생기구 강화

슬기샘 직영유지와 전 도서 5% 할인판매, 프레프레 메뉴 300원 인하,
그리고 4월의 대의원총회, 5월의 생협 조합원 한마당, 10월의 생협학교까지...
이처럼 생협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생협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 되어야 합니다.

생협 대의원 30명이 모여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30명의 대의원은 단과대 학생회장이 맡아왔는데,
이를 생협에 관심있고 활동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배정하겠습니다.



(총학, 총여, 학복위) 10명 + 각 단과대 대표자 20명
총 30명이 모여 생협에 관한 많은 단위의 목소리를 모으겠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생협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Yes, we can! 은 2011년에도 생협의 공간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생협 담당 학생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브란스 푸드코트 5% 학생할인 재 실시

9월 1일, 새로 오픈한 푸드코트에서 학생할인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도 엄연히 학내 공간입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
학내 공간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새로 리모델링된 세브란스 푸드코트에서
기존의 5% 학생할인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치과대학 '그라찌에' 의·치·간 학생할인 실시

본교학생들은 학내 커피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의·치·간 학생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 '그라찌에'는 본교보다 500원 비싼 가격으로 음료를 판매합니다.

의료원 차원에서 미래에 의료원 구성원이 될 학생들에게
본교학생들만큼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요?

치과대학 '그라찌에'에서도 의·치·간 학생할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삶을 향한 발걸음!

문화



생동감 넘치는 젊음의 대명사인 20대.
우리는 가장 활발하게 문화를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문화의 소비자의 역할만 강요되었을 뿐,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YES, WE CAN!



하나, 노천극장에서 쌈싸페* 즐기기

지난 3월 26일, 신촌 락 페스티벌의 감동을 기억하시나요?
신촌 락 페스티벌은 소비지향적인 신촌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손으로 기획한 축제였습니다.
이제 쌈싸페에서 그 때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세요!
쌈싸페 측과의 협의를 통해
축제의 기획에 연세인 여러분의 참여를 보장하고,
오디션을 통해 학내 밴드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쌈싸페: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의 약칭. 음악축제이다.
비영리적 의류기업 쌈지의 문화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며
연이어 2회, 3회도 노천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당신 곁에 찾아가는 공연, 수요문화제

현재 우리학교에는 수많은 밴드와 노래패, 율동패 그리고 풍물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내에서 공연할 기회는 무악대동제와 단과대 축제뿐이고
학외에서 공연하자니 대관료가 비싸 주저하게 됩니다.

열심히 연습한 여러분, 이제 학내에서 무료로 공연하세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수요문화제가 열립니다.

당신 곁에 찾아가는 공연
수요문화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백주년기념관 앞
공연참가신청 및 공연 일정 확인

you.yonsei.ac.kr

제47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you



셋, 연세인을 위한 첫번째 문화 초대권

대학로에서 또 홍대에서 그리고 많은 극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표를 구하는 것도, 그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 향유 또한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즐거운 일상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학외의 다양한 문화행사에 연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넷, 연세인을 위한 두번째 문화 초대권

우리에게 친숙한 노천극장, 대강당, 백주년기념관에서도
자주 외부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 공간은 우리학교의 건물이고
따라서 공간대여로 인한 이익은
학생들에게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YES, WE CAN은 학내에서 진행되는 외부 공연 티켓의 2%를
연세인을 위한 초대권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섯, 학내 공간 대여 간편화

백주년기념관 그리고 노천극장 연습실.
가까우면서도 이용하기는 참 어려운 공간들입니다.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대여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신의 그 권리를 위해
대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여료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여섯, 학교에서 유명 작가의 강연회 듣기

좋은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인생의 책 한권쯤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존경하는 작가를 선정하여
강연회를 열고 대화의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보다 나아지는 우리,

Yes, We Can!

하나, 무선인터넷을 빠르게, 아이디 발급은 간편하게

우리는 등록금을 내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을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최근 넷북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내 무선인터넷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AP 기기의 개선을 통해 무선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KT측에게 AP기계를 최신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이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우리는 다른 컴퓨터를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제 NESPOT이 연결되지 않아도 무선인터넷을 통해 아이디 발급 창까지는 접근할 수 있도록,
노트북 자체에서 아이디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어플로 만나는 배달백서와 멤버십카드



배고파~ 배달백서는 어디있지?
과방에서, 동아리방에서 시켜먹으려고만 하면 없는 배달백서!

20대 대학생의 소비주권을 누리하고자 하는 의미의 멤버십카드.
그러나 매년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자원낭비.

배달백서 어플, 멤버십 카드 어플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셋, 백양관 엘리베이터 설치

글쓰기와 여러 교양 수업이 열리고,
리더십 센터 등이 있는 백양관
그러나 백양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백양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넷, 생과대, 이과대에도 셔틀버스 운행



많은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도,
정문에서 약 500m 떨어진
생활과학대학, 이과대학은 셔틀버스 노선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셔틀버스 노선에서 소외되었던
이과대, 생과대 학생들을 위해
오전 노선 셔틀버스(경복궁-정문)가
생과대와 이과대까지 경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선 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 기숙사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나요? 기숙사 통금제도 개선

새벽 1시가 넘으면 들어갈 수 없는 기숙사.
중도에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친구들과 좀 더 놀고 싶은데 어찌지?
같은 학교인 SK 국제학사에도,
다른 학교인 서울대 기숙사에도 없는 통금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귀가할 수 있게 하는
기숙사 통금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여섯, 총학생회 중간평가

48대 총학생회 선본 YES, WE CAN은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직접 만나 학생들의 평가를 듣겠습니다

5월 말, 총학생회 간담회를 열어

-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 및 총학생회비 감사
- 총학생회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보고
- 총학생회 평가 및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곱, 총학생회의 지저킴, 트위터 개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트위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장소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 트위터를 만들어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하겠습니다.
학생회 진행 사업을 tweet과 Retweet을 통해 다른 학우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청경관 식권자판기 설치

왜 김밥 한줄, 샌드위치 하나 사려고 20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제 2분이면 식권자판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우레탄 농구장 개선

연세대학교에는 50여개의 농구 동아리 및 소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구팀이 이용하는 우레탄 농구장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미끄러운 우레탄 바닥
그리고 체육관과 다른 골대.
체육관은 리모델링 된다는데, 우레탄 코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농구 연습을 위해 우레탄 농구장을 개선하겠습니다.

열, 야구장 펜스 설치

야구장 펜스설치는 예년부터 모두에게 공감할 얻었던 이슈입니다..
하지만 벌써 수년째, 펜스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야구장 펜스는 야구장 옆을 지나는 연세인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야구 연습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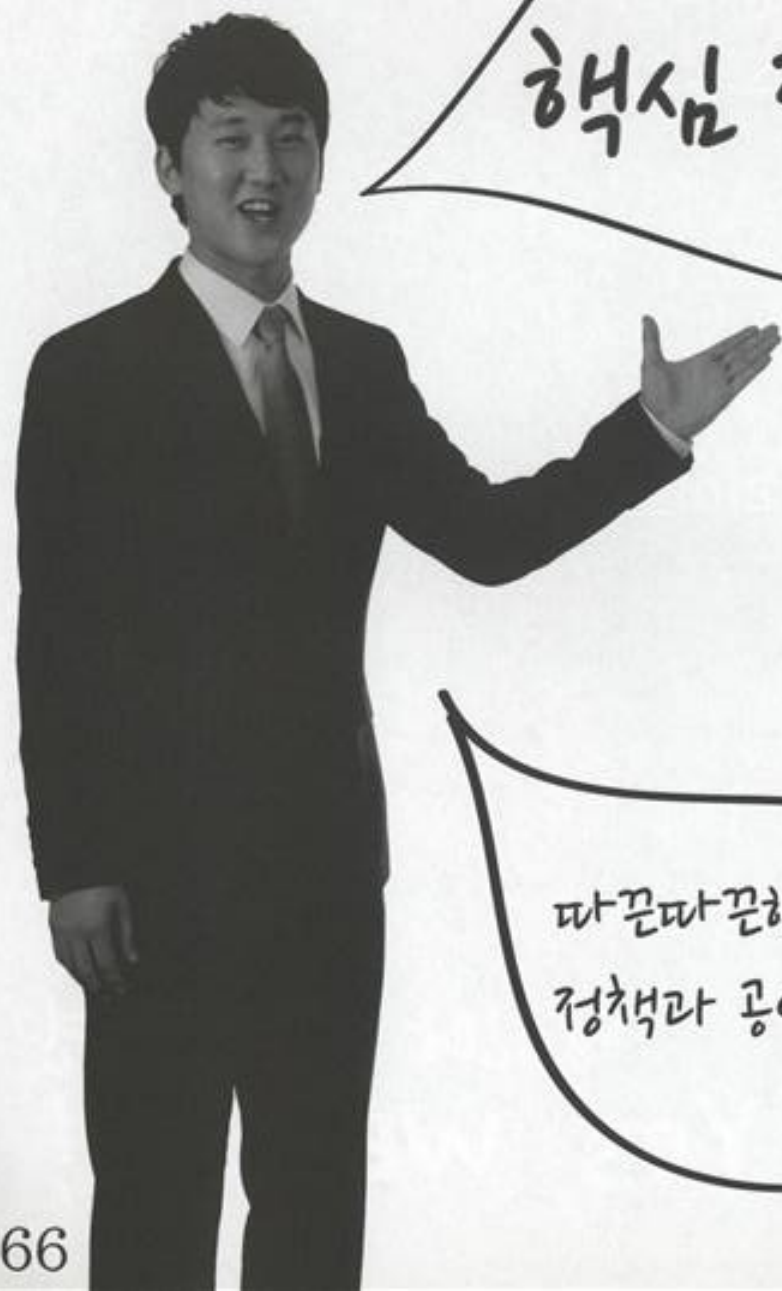
열하나, 대운동장 라이트, TURN IT ON

연세인 모두를 위한 대운동장.
하지만 가벼운 운동을 위해 대운동장에 나선 어느 저녁,
너무 어두운 대운동장에 움츠러든 적, 있으신가요?
대운동장을 위한 라이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켜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6PM-1AM(익일), 더 이상 어둡지 않은 대운동장을 만나보세요

당신과 함께라면
Yes, WE CAN!

당신과 함께라면
Yes, We Can!



당신과 함께라면 현실이 될

핵심 정책 정리

따끈따끈한
정책과 공약들이에요!

그들만의 카르텔,
연세대학교 재단이사회에 주목합니다!

연세대학교 이사회에 학생참여를 요구합니다!

본교에 대한 재단전입금 확충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소중한 삶의 변화 Yes, We Can!

생협을 통한 자취방 보증금 저금리 대출제도

기숙사 건립 학교에 50억씩 4년 예산 편성 요구

학관 의료센터

이비인후과/내과 개설, 치과진료 개선 진료과목개선

X-ray시설을 비롯한 의료시설 개선 의료시설개선

체중관리, 빈혈관리, 피부과 상담 등의 프로그램 개설 건강프로그램 확충

고를샘 리모델링 학생참여 고를샘에서 집밥을 먹자!

학내 모든 식당 메뉴의 200원 인하

청년고용할당제 제안

청년유니온과의 연대

시급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생협 아르바이트 시급 인상

우리가 꿈꾸는 학교의 변화 Yes, We Can!

2010년도 합의안 이행 2011년도 등록금의 실질적 동결을 요구
10억장학금 상설화(쿼터제)

단과대 공간문제 고민 공간위원회에 학생참여 요구

송도캠퍼스 송도분과위원회 내 학생 의결권 보장
송도 관련 자료 및 회계의 투명한 공개

총장 직선제 총장도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뽑자

중도 리모델링에 학생의견 수렴

OCW(Open Course Ware, 강의나눔운동)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변화, Yes, We Can!

생협 담당 학생기구 강화

세브란스 푸드코트 5% 학생할인

치과대학 '그라씨에' 의·치·간 학생할인

노천극장에서 쌈싸페를 즐기자!

당신 곁에 찾아가는 공연, 수요문화제

연세인을 위한 문화 초대권

1 한 달에 한 번, 학외 다양한 문화행사 초대

2 학내에서 진행되는 외부 공연 티켓의 2%를

연세인을 위한 초대권으로 확보

학내 공간 대여 간편화

학교에서 유명 작가의 강연회 듣기

당신과 함께라면 보다 나아지는 우리, Yes We Can!

AP개선으로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아이디 발급을 간편하게!

어플을 통해 배달백서와 멤버십카드를!

백양관 엘리베이터 설치
생과대, 이과대에도 셔틀버스 운행
기숙사 통금제도 개선

총학생회 중간평가

총학생회 트위터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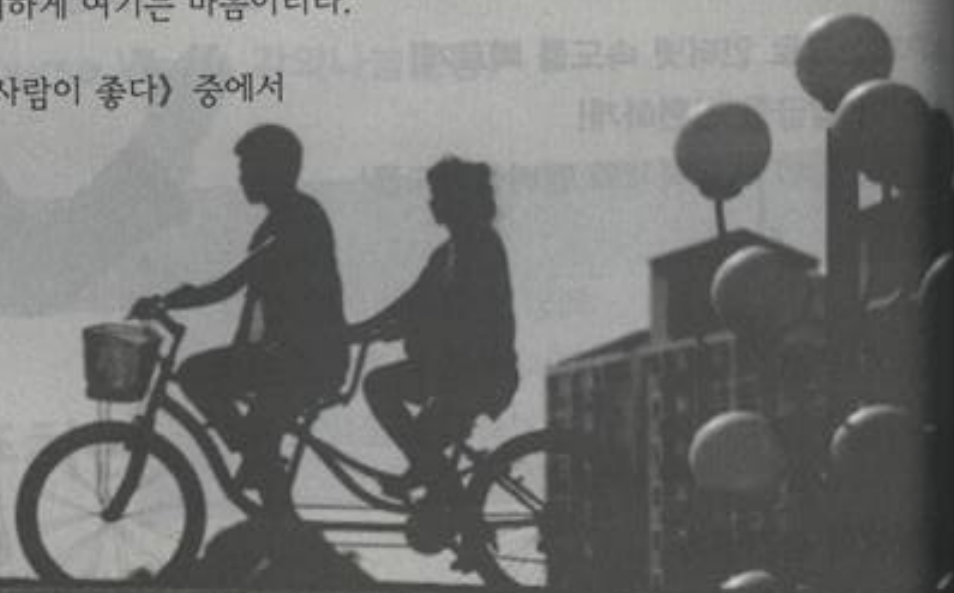
우레탄 농구장 개선
야구장 펜스 설치
대운동장 라이트, TURN IT ON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함께'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싶다. 우리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도 결국은 사람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중심이 아닌 조건들에 불과하다.

문득 주위를 돌아보면, 개개인은 모두가 소중하지만
우리들의 관계는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는지 모른다.
인생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을 소중히 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 장성숙의 〈그래도 사람이 좋다〉 중에서



제23대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공동공약

〈생활협동조합 관련 공동공약〉

제안 : 학생복지위원회

1.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학부 학생 대표로서의 학생이사는 학부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생활협동조합 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1.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는 학생회 집행부를 구성함에 있어 생활협동조합과 관련된 일감을 책임있게 진행할 생협담당자 혹은 생협국을 설치한다.
1.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는 학생복지위원회와 함께 정기적인 생협학생조합원연석회의를 구성하며, 생협 학부생 대의원 회의를 연 4회 개최한다.
1. 생협학생조합원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신입생 조합원 교육을 새터나 O.T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반여성폭력 공동공약〉

제안 : P군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1.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는 11학번/12학번 새내기들이 각 단과대 클럽으로 가기 전에 모임을 갖는 커뮤니티를 공식적으로 만든다.
1.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는 1에서 말한 커뮤니티 내에서 성폭력 혹은 성폭력적인 문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관리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1. 커뮤니티 관리자들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합니다.



함께 갑시다.
연세 好

하하호호

정후보 박 희진

연세 好

부후보 강 효인

1. 프롤로그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다.

그러나 그런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
·
·
·
·
·
·

여학우님들,

이 문구에 **동의** 하십니까?



이런 사회를 원하십니까? ^^*
Beautiful Change!
이런 모습은 어떤가요? *^^*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好**

女子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女子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원하십니까?

저희 연세 好(호)는, 女子
남녀가 동등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남녀가

함.께.가.는. 총여학생회!

모두 함께 하하호호웃을 수 있는 총여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왜 연세 好(호) 인가?

좋다 好(호)의 의미

- ㉠ 좋다
- ㉡ 사이좋다
- ㉢ 아름답다
- ㉣ 좋아하다
- ㉤ 사랑하다
- ㉥ 구멍
- ㉦ 우의, 정분, 교분(交分)
- ㉧ 친선의 정
- ㉨ 곧잘, 자주, 걸핏하면

남녀가 함께 있으니 좋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남녀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함께 갑시다! 연세 호!

좋다, 참 좋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갑시다, 연세 好(호)!

연세 好

목차

I. 프롤로그

II. 후보자 소개

- 정후보 약력 소개
- 부후보 약력 소개

III. 여성운동의 발자취

- 여성운동의 시작
- 여성운동의 발전
- 한국 여성운동의 태동
- 연세 여성운동의 변천사
- 제 22대 총여학생회 분석

IV. 연세好가 바라보는 새로운 총여

- 연세호의 여성운동
- 연세호의 역할

V. Beautiful Change

- 아름다운 여성건강
- 아름다운 캠퍼스
- 아름다운 양성평등
- 아름다운 문화

VI. 함께갑시다. 연세好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好

연세好 출마의 변

정후보 박희진

안녕하십니까? 제 23대 총여학생회에 정후보로 출마하는 박희진입니다.
06학번이라는 고학번으로서 출마하게 된 것이 조금 멋쩍네요. 그렇지만 외쳐야 할 것이 있을 때 과감하게 외치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연세에서 배웠기에 부족한 제가 감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5년 동안 보고 들어왔던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보면 학우들의 무관심이 느껴질 만큼 소수의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총여학생회의 존재 논란이 있을 때조차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의 공감조차 얻지 못하는 모습은 총여학생회의 존재와 방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최근 학내에서 이슈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총여학생회에 관심을 가진 학우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여학생회는 연세대학교 여학생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기구입니다. 학내에 여성이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부분을 외쳐서 알리고 여성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그 존재 목적입니다. 또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와 혜택을 여학생에게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연세의 여성들이 그러한 당연한 권리들을 모두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총여학생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는 양성평등문화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바람직한 사회란, 여성 혹은 남성이 주를 이루는 사회가 아니라,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아닐까요? 이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와 내가 모두 존중받고 사랑받는 캠퍼스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름답고 건강한 연세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내 피부에 와닿는 실제 복지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5년동안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아름답고 행복한 연세를 이제는 연세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연세 好는 여러분의 목소리만을 내는 총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정후보 박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세好 출마의 변

부후보 강효인

2009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교정을 오가며 수많은 플랜카드와 대자보들을 보아 왔습니다. 성과 관련된 논의들과 이를 풀어보려는 여성주의 운동의 노력... 그리고 반발과 분쟁. 이에 대한 토론이 열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그저 지극히 평범한 연세 여학우 중 한 명인 저의 얘기를 들어주고 제 필요를 채워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총여학생회가 외치는, 이야기들은 저와 같은 다수에 속한 일반 여성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까움을 품던 중,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연세인들이 저뿐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제가 생각하고 바라고만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여지는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변화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함께갑시다, 연세 好'는 소수의 목소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수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여학우들과 소통하는 채널을 다양하게 열어줌으로써, '함께갑시다, 연세 好'는 진정한 '연세'의 여학우들의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또, 이제까지의 여성주의 운동은 어느새 '함께 평등'한 지점을 벗어나 여성 상위의 개념마저 등장할 정도로 극단으로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남학우들의 입지를 좁게 하며,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양성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갑시다, 연세 好'는 남성들도 동의하는 여성운동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행복한 연세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연세 여러분!
행복하고 평등한 연세를 위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연세인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부후보 강효인입니다. 감사합니다!

II. 후보자 소개



박희진 (경제 06)

정후보 약력

1987. 03. 30. 서울 출생
2003. 03. 동명여자고등학교 입학
2005. 08. 연세대학교 수시 1학기 합격
2006. 03. 연세대학교 06학번 입학
2006. YBS
연세 교육방송국 시청자위원회 3기 활동
2006.
학부대학 뉴스레터 Ucoter 3기 활동
2006. 제 18대 무악민국 모의국회 활동
2007.
연세 영상제작센터 YVAC 18기 활동
2008.
연세 영상제작센터 YVAC 제작팀장
2009. 환경통계동아리 ESC 활동
2010. 환경통계동아리 ESC 학부대표

II. 후보자 소개



강효인 (경영 09)

부후보 약력

1990. 02. 06. 전북 군산 출생
2002. 03. 전주 서신 중학교 입학
2005. 03.
전북 호남 제일 고등학교 입학
2009. 03. 연세대학교 09학번 입학
2009. 06.
가양 4 종합 복지관
우수자원봉사자 수상
2009. 08.
제 3회 충무로 국제 영화제 자원봉사
2010. 03.
세계화와 빈곤 문제 GP3 활동

III. 여성운동의 발자취

연세 好를 말하기에 앞서,

여성운동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1. 여성운동의 시작

여성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의 힘을 얻게 된 것은 1970년대 초!!!
그러나 표면화되지는 않았을 뿐,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792년 영국의 여성운동가 M. 울스턴 크래프트는
남성에게 합리적인 친구관계를 제의하였고,
여성에게도 법적 권리와 균등한 교육적 기회를 요구하였습니다.

19세기 초에는 유럽에서
여성의 재산 및 소유권과 교육권에 대한 요구로
여성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참정권에 대한 요구로 확장되었고,
미국에서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
S. 앤터니 등이 여성참정권을 위한 투쟁을 벌입니다.



(당시 참정권을 위한 시위 사진)
1940년대부터 1950년대에는
여성들이 여성운동에 관해 침묵을 지켰지만,
예외적으로 1953년 프랑스의 여류작가 보부아르가 《제2의 성(性)》이라는 저서에서,
여성이 왜 제2의 성으로 간주되게 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역사·생물학·문학·철학 등을 파헤치고, 여성의 주체성을 역설하였습니다.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好

Beautiful Change

2. 여성운동의 발전

19세기에는
여성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기 시작함에 따라
여성주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여성주의 운동은 특히
19세기 사회 개혁 운동(초기 사회주의 운동)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주의적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
1837년 féminisme라는 단어 도입

"여성의 권리 신장이 모든 사회 진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1869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하나의 성이 타 성에게 법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인류 발전에 크나큰 장애다."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20세기 초반부터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17년의 러시아 10월 혁명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에 가장 큰 공헌!
당시의 러시아 혁명 정부는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완전히 동등한 정치권을 주었으며,
가사노동 이외의 사회 활동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많은 수의 여성들이 노동에 참여하면서
편견과 차별 등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을 자각하여 일어난
성별에 따른 차별철폐를 주장하는 여성해방운동
고용 및 교육의 기회 균등
동일 노동에 따른 동일 임금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제 34차 UN 총회에서 여성 차별 철폐 조약을 채택
1981년 9월 3일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남녀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확보할 국내입법의 의무화,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 임신매매 금지,
교육과 노동의 기회, 임금의 평등,
결혼 또는 해산에 따른 차별해고 방지 등이 있습니다.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그런데,
여성운동이
서구에만
국한되어있었을까요?

?

아닙니다.^^
19세기 말부터,
한국에서도
여성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 한국 여성 운동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조선 말기 여성들을 속박하던 봉건적 관습과 법에서 벗어나고자
'찬양회'를 근간으로 하여
여성교육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사회활동의 참여를 목표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도래하게 된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한 2중 3중의 착취와 억압으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 무권리,
극심한 남녀 불평등이 야기됨에 따라
반일부녀회, 근우회 등
여러 방면으로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여성대중을 조직 했으며,
항일운동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며
동일한 지위를 획득 하였습니다.

3.1운동에서 여성들의 만세 시위



해방 후 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진보적 사회운동세력이 초토화되었고,
국민들 사이에 패배의식이 심화되었다.
이로써 여성운동도 파괴, 단절되었다.

.... 그러나, 다. 시.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女

Beautiful Change

연세好

1960년대 70년대에

여성 노동자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민중적 운동
1980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1983년 청년지식이 여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념을 가진 여성평우회, 여성의전화,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여성부 등의 단체가 조직되었습니다.

90년대에는

문민정부 이후
비판과 정책 개입 중심의 운동이 전개됩니다.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여성적 과제를 여론화하고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각각 1994년, 1997년, 1999년에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에는

결혼퇴직제 반대운동,
임금/직무배치/승진/수당 차별 철폐운동,
호주제 폐지운동,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을 진행하였고,
명절문화 바꾸기,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 및 월경축제 등의 문화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3년 5월 26일 일부 조항(국적법 관계)을 유보한 채
UN의 여성 차별 철폐 조약에 89번째로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차별 철폐 조약과 상충되는
민법 중의 친족 상속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여성정책위원회 설립,
관련법규의 개정을 검토·추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好

그럼 이제,



‘연세’의 여성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好

4. 연세의 여성운동

최초 총여학생회 탄생
총여학생회는 지난 1987년
총학 여학생부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소외된 여학생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70%의 투표율과 9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며
1988년 3월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여학생회장 이은희 동문(철학·85)

"새로 출범한 총여학생회는
여성불평등 사회구조의 타파와 평등한 연세공동체를 이룩해
해방연세 민주연세의 초석이 될 것"

1997

1997년

* 여성자치연합 발족
96년 11월

다양한 학내의 여성주의 공동체들의
연석회의자리로써 여성자치연합이 발족되었고,
제 1회 여성제, 총여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 등의 활동

* 제 1회 여성제- 길들여지지 않은 자신감
97년 3월,
제 1회 여성제 '길들여지지 않은 자신감'이
여성자치연합의 주최로 진행
공존하는 다양성, 여성적 연대를 모토로
여성자치연합 발족식, 성매매에 관련한 강의,
여성주의 연극, 여성주의 영화제,
성정치 기획 도서전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주일동안 진행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女

연세 女

1999년

* 제 2회 여성제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99년 제 2회 여성제는 여성자치연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여성학 자치 도서관 <페미니리>
9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학내 여성운동의 가치 있는 활동 기록과 자료들을
정리하고 알리는 작업들이 페미니리 자료집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고,
여성학 강좌 개설, 세미나 커리큘럼 발간,
여성학 수업 모니터링등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도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에서
여성학 도서관 페미니리에서
연세 여성주의 운동에 관련한 과거의 자료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999

2000년
* 새터 反성폭력 내규 제정/ 反성폭력 학칙 제정

2001

2001년

* 여휴만만
여휴만만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학내 공간 속에서
여학생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학내 여학생 휴게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생긴 모임입니다.
1년동안 여학생 휴게실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작업을 통해
사물함이 들어오면서 위협받은 중앙도서관 6층 여휴를 지켜내고,
사회대 상대, 이과대, 문대 등의 여휴를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女

연세 好

2002년

* 나를 움직이는 내규, 기분좋은 새터 <하하호호 새터내규> 발간
내규 제정 후 세 번째 해인 2002년에는
14대 총여학생회, 문대 여성주의모임 모반,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와 함께한
2002 새터 반성폭력 내규 기획단에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내규에 대한 설명, 기
존의 놀이문화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놀이의 제안,
여자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등을 담았습니다.

2002

2003년

* 새터 반성폭력 내규 1차 개정
성폭력 개념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과 사례가 더해져
풍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차 가해에 대한 규정,
성폭력 사건 대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연세 여성주의자 하계 체육대회
연세여성주의자의 단합과 체력단련을 위해 기획한
성별, 연령, 전공 불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3

2004

2004년

* 反성폭력 학칙개정
몇 년간 이어져왔던
反성폭력 학칙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운동을 이어받아,
교육투쟁과정에서 본격적으로
反성폭력 학칙을 학생측 개정안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反성폭력 학칙은
성폭력대책위원회, 실무소위원회 등을 거쳐
2004년 11월 2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好

연세 好

2006년

* 월경공결제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함께
<여성교육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 월경공결제>란 자료집을 발간하고
월경공결제 시범운동을 하였습니다.

2006 / 2007

2007년

* 생리결석제 공식 제도화
2007년 2학기에 생리결석제가 공식 제도화 되었습니다.

*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 <아랫목> 자료집 발간
방치되어온 여학생 휴게실 조사와
공간의 새로운 활용을 모색하던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아랫목>이
1년의 활동을 정리하며 12월달에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연세 여성 학우들의 권리를 위하여 달려온 총여학생회!!

그렇다면 올해 제 22대 총 여학생회는 어땠을까요?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好

제 22대 총여학생회

가부장적 사회에서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판단주체는 남성이고 비장애인이며, 이성애자이다.

이러한 판단 주체가 특정한 이미지를 보편, 객관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권력외의 목소리는 비 가시화된다.

학내 문화가 가부장제 이성애중심 사회와 맞물려 돌아간다. 예) 학내의 FM, 응원문화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권력은 여성/남성에 관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아름다움과 삶의 양식에 관한 이미지들을 필요로 하고, 만들어내고, 소비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인의 삶을 손아귀에 틀어쥐는다.

주요 공약

1. 반 성폭력 운동
2.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나 관계를 말하다
3. 갈리지 않는 몸, 긍정하며 피워 올리다
4. 에코페미니즘
5. 여학생 교육권
6. 여성주의 소통하기

•
•
•

출처 : 연세춘추 1642호 [2010년 09월 06일]

총여의 공약·주요활동, **“지나치게 이념적”**

설문에는 현재 총여의 활동을 지나치게 이념적이라고 평하는 의견이 많다.
'이념만을 선전해 실제로 여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거나
'오히려 여학생들의 거부감을 일으킨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22대 총여학생회??

이○○(불문·06)씨는 “총여의 활동이 여성만을 주장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때문에 강한 이미지로 학생들에게 비춰진다고 말했다.

또한 동성애라는 성의 광범위한 문제까지 포괄해 너무 넓게 접근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그간 총여의 공약 중 하나였던 탈이성애중심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현재 총여가 벌이는 활동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이어진다.
'최근 총여가 주도하고 있는 활동을 알고 있는가'라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81%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총여가 주도하고 있는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서도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9%에 불과했다.

총여가 벌이는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것이 1~2회에 그쳐버린다고 답한 단발성 참여자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가 필요해

총여에 바라는 점을 주관식으로 써 달라는 문항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실질적인 복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실질적인 여학생 복지를 해달라' 혹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원한다'

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총여 측은 "복지 역시 중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며 "공약이었던 가로등과 여학생 샤워실 설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설문 내용 중 단연 회자가 많이 됐던 것은 여학생 휴게실(아래 여휴)의 문제였다.

단과대 여휴는 각 단과대 학생회가, 논지당은 여학생처가 각각 담당한다.

총여에서는 그간 여휴의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해왔으며

현재 역시 여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여휴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요인은 여휴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없어 관리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여학생의 복지를 관할하는 의무를 지고있는 총여가

단지 여휴의 환경 개선 요구만을 하고 있을 뿐

총괄하지 못하는 것을 학생들은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것처럼

총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참여는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총여가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쳤다고 답했다.

반면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여학생 복지였다.

이후 총여의 활동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길 바라본다.

연세 好

학우들의 공감을 얻는 양성평등운동,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여성문화제,
실질적인 여학생의 복지를 실현하는 총여,

제 23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연세 好(호) 선본의
마음입니다.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好

남녀 간 갈등의 원인을 시정하고
평등과 공존을 지향하는 여성운동,
우리가 기다린 여성운동이 아닐까요?

여성운동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 중심에

연세女가 있습니다.
(호)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女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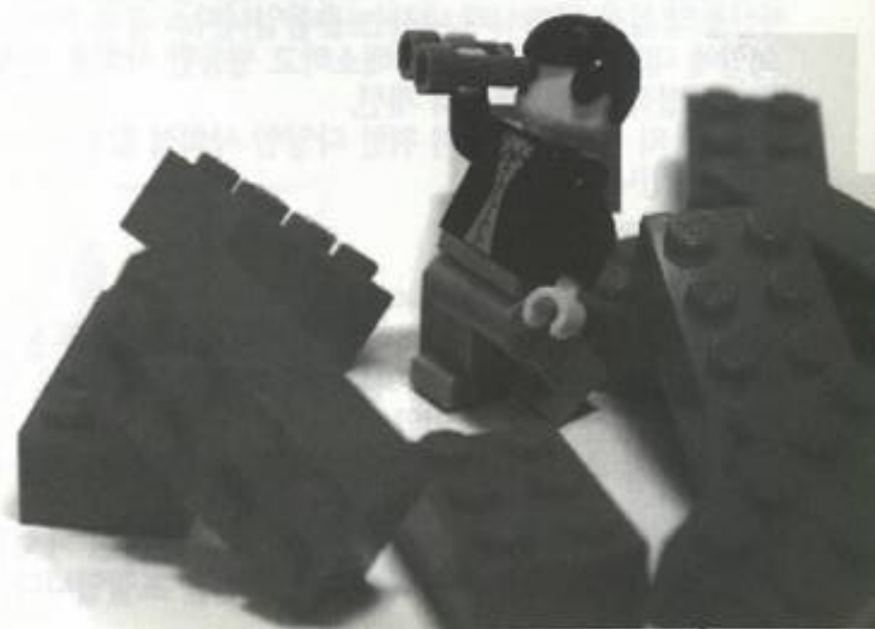
연세好와 함께
양성평등의 연세를 만들어 갑시다.
연세好가 바라보는 새로운 여성운동

연세好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즉, 남성과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세好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남학우들이 여학우들에게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이 있다면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학우들이 남학우들에게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이 있다면 또한 외칠 것입니다.

이제,
그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女
(호)

IV. 연세好가 바라는 새로운 총여

- 연세호의 여성운동

여성운동의 목표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모든형태의 차별을 거부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기 삶은 물론이고, 나라와 사회,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여성은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① 무엇보다 여성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여성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성문제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뿌리깊이 박힌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재해 있는 성차별의식 등을 말하며 여성운동은 여성들 스스로가 사회에 만연한 여성문제를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떨쳐나서는 과정 (무엇 보다 광범한 여성들을 의식화, 조직화 하는 과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② 여성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여성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입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며 억압 차별적 인 법, 제도의 개선, 양성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여성운동입니다.

③ 여성들 자신의 삶뿐만이 아닌, 사회의 온갖 억압, 차별, 폭력을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입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비롯하여 계급, 민족, 문화, 인종... 이 땅에 만연한 차별 과 억압, 온갖 폭력과 소외를 강요하는 사회구조 및 이데올로기들을 극복하고 다수 대중들의 자주성과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과정 전반을 포괄합니다.

함께 갑시다!

연세女

(가)

연세好

- 연세호의 역할

여성의 지위는 분명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차별받는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여학생의 소외를 막기 위해 여성정치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남녀 평등 문화가 확산되어, 총여학생회가 없어도 여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성주의를 알려내는 여학생 대표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학교 내에서의 학내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여성으로서 성차별 받는 영역이 없도록 도우며, 여성이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우고 사회에 서로가 용납될 수 있도록 일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내 여성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내 여성의 자기계발을 도울 것입니다.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연세대학교의 모든 여학우를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는 총 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여성 우월주의자 아닌, 여성의 권리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모두 함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연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
저희 연세 好(호)가 바라는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女

(나)

연세호의 공약

V. Beautiful Change

Beautiful Change No.1

... 아름다운 여성리더십 · 건강

1) 여성리더십

* 연세 미래 여성 지도자 선정 100인 - 릴레이 초청 강연회 개최

2006년에 연세미래여성지도자 100인을 선정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학내에는 여학생처, 여성커리어개발팀, 연세여성네트워크 등 여학생들의 취업과 복지를 위한 기구들이 학내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와 연세여자동창회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젊은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후배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여성지도자 100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연세미래여성지도자 100인의 릴레이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여 만남의 장을 열겠습니다.

* 여학생 Career-Start! 멘토링 활성화

학생복지처에서 주관하는 <여학생멘토링-Career Start>을 아시나요?
학내 다양한 멘토링 시스템, 학내 복지에 대한 정보, 동문들과의 만남소식을 전하며 여학우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총여학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저희 연세호는, 여학우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학내의 프로그램들을 개최하고 홍보하며, 연세의 여성들이 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연세 女

연세 女

2) 여성건강

* 유방암 무료 조기검진 서비스 연계 - 맘모버스

맘모버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맘모버란 무료 유방암 검진 버스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고 한국존슨앤드존스메디칼(주)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맘모버스는 유방암 조기검진에 대한 인식 확대 및 무료 조기검진 제공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2004년 시작되어 2006년까지 총 10,500명에게 무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네요.

(출처 : <http://www.breasthealth.co.kr>)

2010 경희대 총여학생회에서는 1학기에 2일간에 걸쳐 학내에서 진행했습니다. 신청자를 미리 받고, 2일간 100명을 검진했다고 합니다. 연세 女(호) 총여에서도 맘모버스와 연계하여 신청자에 한해 유방암 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자궁경부암이 얼마나 위험한지, 백신접종을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보셨나요?

연세호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연세의 여성들에게 알려내고, 또한 부담스러운 가격의 백신접종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女

학내환경

* 찾고 싶은 여휴! One week-One day 클린 시스템 구축

피곤할 때 쉬터가 되어주고, 편하게 식사도 하는 공간, 여휴!
하지만 쓰레기들러 더러워진 여휴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지는 않았나요?
'도대체 여휴 청소는 누가 하는거야?' 한번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나요?
이제 여휴는 우리가 지킨다!
여학생 휴게실의 청결을 위한 총여학생회 자체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총여학생회가 학내 휴게실의 청결상태를 점검합니다. 점검표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번, 점검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학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번! 여휴를
찾고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총여실에 주요 상비약 비치

갑자기 배가 아플 때, 학관 2층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많이 찾으시죠?
하지만 진료소가 오후 6시에 문을 닫은 후에는요? 저 멀리 약국까지 가자니 번거로우
셨죠? 이제는 걱정마세요! 각종 상비약을 총여학생회실에 구비해 놓겠습니다!



* 각 단대별 생리대 자판기 확충

현 총여학생회에서 생리대 자판기 추가 신설에 관해 여학생 센터와 논의 중이라고 합
니다. 생리대 자판기가 지금 학내에 대략 한 건물에 하나씩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든 연세 여학우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연세 好(호)는 생리대 자판기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확실히 실행에 옮겨지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어두운 밤길, 이제는 무섭지 않다! - 가로등 설치

현 총여에서 기숙사 길 가로등 설치에 관해 학교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가로등이 필요한 곳은 어디 기숙사 길 뿐만이겠어요? 동문과 서문 자취생들이 다니는
길의 가로등 설치도 매우 필요합니다. 연세 好(호)는 학교 관재처와 가로등 설치 방안
의 논의하고,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 호신술 특강

나약한 여성이 아름답던 시대는 이제 옛날이죠!
연세의 여성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당당함이 매력입니다!
호신술 특강을 열어, 이 나날이 사건사고가 많아지는 세상에서 여성 스스로 자신을 보
호할 수 있는 간편하지만 실제적인 방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OT/새터 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올해에도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매해 한 두번은 항상 일어나는 성희
롱, 성폭력 사건을 더 이상 후속적인 대책으로만 대처해야 할까요? 누구나 피해자, 가
해자가 될 수 있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더 이상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식과 교
육이 절실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학우들에
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학내 성희롱적 발언이나 성폭행이 일어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연세 好

Beautiful Change No.3

... 아름다운 양성평등

1) 공모전

* 연세 양성평등 문화 만들기 공모전

학내 양성평등을 만들기 위한 공모전을 적극적으로 시작합니다. 성차별이 있는 경험에 대해 자신이 느낀바와 참신한 대안을 주신 분들에게 시상을 하겠습니다.

2) 초청강연회/세미나

* 각 분야 전문가 초청강연회 및 세미나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표본이 될 만한 분들을 초청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초청강연회와 세미나를 열겠습니다.



3) 문화제

* 양성 평등 문화제 개최

양성 평등을 위한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성교제 특강이나, 서로의 성에 대해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강연도 열겠습니다. 이로써 진정한 연세 양성평등의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 好

연세 好

Beautiful Change No.4

... 아름다운 문화

1) 아름다운 나눔문화

* 장롱속의 옷을 꺼내라! 바자회와 기부파티 개최

맘에 들어서 사긴 샀는데, 정작 한 번도 햇빛 구경을 못한 옷들, 女(여)러분의 장롱 속에 많지 않습니까?! 장롱속의 옷을 꺼내세요! 잠자고 있는 옷들이 필요한 물건이 되어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성금으로 기부파티를 합니다! 불필요한 옷도 처분하고! 맘에드는 옷도 사고! 불우이웃 돕기까지! 일석삼조!

5월의 축제! 대동제 기간 전에 옷을 미리 수거하여, 옷을 직접 팔 것입니다. 수익금 전액은 연세대학교 여학우들의 이름으로 불우이웃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맘에드는 옷도 사고, 이웃에게 나눔의 기회를 실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세의 여성들은 나눌 줄 아는 아름다운 여성들이니까요!



연세好

2) 아름다운 식단문화

* 영양소 보충 식단 개발 & 판매.

철분, 칼슘등 20대 여성에게 부족한 영양소 공급 위한 식단 개발 & 판매를 추진 할 것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제36권 제12호(2007년 12월)의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신체계측, 식행동,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영양소 섭취상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대생은 단백질, 비타민A, 나이아신 및 인을 제외한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하고, 특히 **철분과 칼슘**의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저희 연세好선본은 철분과 칼슘의 섭취량이 부족한 연세 여학우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건강식단을 개발하여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래기리조또, 새우두부만두, 양배추두부찜 등과 같은 건강식단을 생협에 제안하여 **학관 메뉴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연세好

3) 아름다운 소통문화

연세 好(호)는 여학우들과의 소통을 위해 존재합니다.

* 女(여)보세요 폰!

학내생활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선뜻 건의하지 못하시겠다구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구요?

여러분의 여보세요 폰이 365일 대기중입니다!

연세호는 여학우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가까운 곳에서 듣고, 소통하기 원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女보세요 폰으로 전화주세요!

생리 결석제는 어떻게 쓰는지, 단과대 여학생 휴게실은 어디있는지,

생리대 자판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궁금한 건 다 물어보세요! 연세호가 답합니다



* 총여 홈페이지 관리

여러분, 혹시 총여학생회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연세호가 바꿉니다!

총여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시켜 여학우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총여에서 제시한 공약과 진행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 하면서

여학우들에게 더욱 가까운 총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총여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주실까요?!

* 졸업사진 메이크업&헤어&의상 제휴서비스

졸업사진 찍기 전, 의상 때문에 고민을 겪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졸업 사진 한 번 찍자

고 비싸게 돈 주고 사려니 아깝고, 그냥 찍기에는 마땅한 옷이 없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메이크업&헤어&의상 제휴서비스!!

이제는 비싸게 사지 마시고, 간편하게 빌려 입고 촬영하세요!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好

Beautiful Change, 함께갑시다! 연세好

연세 好(호) 공약 정리

Beautiful Change No.1

아름다운 여성리더십 · 건강

- 여성리더십 * 연세 미래 여성 지도자 선정 100인 릴레이 초청 강연회 개최
* 여학생 Career-Start! 멘토링 활성화
- 여성건강 * 유방암 무료 조기검진 서비스 연계 - 맘모버스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캠페인

Beautiful Change No.2

아름다운 캠퍼스

- 학내환경 * 찾고 싶은 여휴! One week-One day 클린 시스템 구축
* 총여실에 주요 상비약 비치
* 각 단대별 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 확충
* 어두운 밤길, 이제는 무섭지 않다! - 무악학사 가는 길 가로등 설치
* OT/새터 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Beautiful Change No.3

아름다운 양성평등

- 공모전 * 연세 양성평등 문화 만들기 공모전
- 초청강연회/세미나 * 각 분야 전문가 초청강연회 및 세미나
- 문화제 * 양성 평등 문화제 개최

Beautiful Change No.4

아름다운 문화

- 아름다운 나눔문화 * 장롱속의 옷을 꺼내라! 바자회와 기부파티 개최
- 아름다운 식단문화 * 영양소 보충 식단 개발 & 판매
- 아름다운 소통문화 * 女(여)보세요 폰! (긴급요청, 제안, 건의사항 시)
* 총여 홈페이지 활성화

함께 갑시다!

연세 女 (女)

체감으로 느껴지는
복지 수준이 확 다르다!

연세好와 함께하는 연세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연세好를 선택하시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연세 好

이념을 넘어 복지로

이념을 넘어 여학우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 공약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학우들과도
또 남학우들과도



하하 호호 ^0^ ^-^
함께 갑시다.

연세 女 (호)

questioning



남들

이어지는
삶,
변지는
가능성

Questioning



23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경은·화정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실은 항상 불안했어
 뭘 하고 먹고 살아야 할지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나는 잘 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살아도 되는 건지
 마음 속에 돌덩이처럼 머물며 목구멍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들
 불안, 공포, 소외감, 외로움, 아픔, 답답함, 무기력함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뒤에야 올라오는 것들을
 어디에 풀어 놓고 이야기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살아남기 위해 해엄쳐야 하는
 이 거대한 흐름이 휩쓸고 있는 건 나의 삶뿐이 아닐 텐데
 누구도 그 휩쓸림이 낳은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건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도피하는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저마다 허우적대며 외롭게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말하고 싶어
 이런 흘러감은 싫다고, 이런 당연한 삶은 싫다고
 나의 두려움과 막막함을 들어 줄 사람이 이 곳에는 없냐고
 다른 길은 없냐고

맞추어야 하는 것들과 따라잡아야 하는 것들 사이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지 말하지 못했어
 욕망되는 것과 인정받는 것 외에
 무엇으로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가 매기는 값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내가 가진 가능성들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



외침이 올림을 만들어내고
 각자의 방에서 꺼지던 한숨들이 언어를 갖고
 나도, 나도, 나도 입을 열 때
 차갑고 매끄럽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고
 하나, 둘, 셋,
 반짝이는 것들이 돌아날 거야
 균열을 타고 흐르며 번져나가는 것은
 누구도 기획하지 않은
 스스로 피어나는 춤들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던 땅에
 이렇게 수많은 물음표들이 고개를 내밀고
 규범과 각본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몸을 움직이며 변화한다
 무엇이 가능할까, 무엇을 해볼까
 함께하는 질문에는 힘이 있어
 와글와글, 복잡복잡
 머리를 맞대고 가능성을 작아내

그렇게 작아낸 빛을 따라
 생동하며 살아나는 것들이
 뒤흔드는 몸짓들이
 이제 갇힌 방에서 벗어나
 춤추자



- 04 후보소개
- 06 총여학생회론 - 여성주의와 총여학생회
- 08 기조 -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 10 22대 총여학생회 평가

퀘스처닝의 공약 살펴보기

- 14 공약 한 눈에 보기
- 16 Questioning 공약 정리
Questioning 공약 자세히 보기
- 18 1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 21 2 길을 벗어나 내딛는 한 발, 복직복직 틈새공작소
- 24 3 성별규범을 깨고 관계 재구성하기
- 26 4 일상 속에서 힘을 키우는 Action! 反 성폭력
- 32 5 다채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이터
- 33 6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 재구성하기
- 42 공약 한 눈에 보기

퀘스처닝의 이야기들

- 44 여성주의가 교육권을 놓지 않으려는 까닭에 대하여
- 46 불안을 떨기 위한 폭력, 호모토피아는 있어선 안된다
- 48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
- 51 일상의 공기 속, 장애와 비장애중심성을 성찰하면서
- 54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 57 캄캄한 방, 홀로 있을 모든 푸구리들에게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Questioning

가은

물이 흐르는 자리



총여학생회 정후보

경은 (교육학과 3학년)

- 2005년 채식 시작
- 2006년 연세대 인문계열 입학
교육반 교육학회 <물음> 활동
대안대학 <물뿌리 사회학교> 참여
학내에서 제3세계 어린이 교육시설지원을 위한 <작은파이집> 운영
대학생 환경운동을 위한 <에코캠퍼스>팀 활동
- 2007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 개발활동 <선재수련> 첫 번째 참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진학
생태공동체에서 생활(2010)
- 2008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 개발활동 <선재수련> 두 번째 참여
- 2009년 북한주민 대량아사방지를 위한 식량지원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
- 2010년 22대 총여학생회 에코페미니즘팀 활동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이는 성>기획단 활동
4대강 공사 반대 낙동강 도보순례
<잉어들의 낙동강 공습기> 참여
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기획단 활동

누군가의 고통 위에 쌓은 삶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몸부림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때 채식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대학 진학 후에는 대학입시의 참혹함이 싫어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뚜렷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제3세계와 자연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적 삶에 대해 고민하다가 대안을 찾기 위해 무소유 생태공동체에서의 생활을 2년 반 동안 경험했다.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총여학생회에서 만났고 여성주의 언어를 통해 내가 살아내고 싶었던 삶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음을 발견했다. 여성주의는 내가 느껴왔던 예민한 감성들을 지지해 주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다. 마음속에 터질 듯 쌓여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날개를 달고 세상으로 나아가 흐른다.



화정

내 인의 수천만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총여학생회 부후보

화정 (법학과 4학년)

- 2007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연세대 공법학회 활동
연세대 법과대학 2반 농활대 여성주체 여성농민반 진행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반 07대표
- 2008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2반 회장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여성주의 학교 <주말 아롱아롱 세미나> 참여
- 2009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단위 연대
13기 노수석 열사 추모제 기획단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활동
5.18 추모기획단
영지대 비정규직 부당해고 저지를 위한 지역대책위 연대
- 2010년 노동이 평등한 세상 노동이 살맛나는 세상 <살맛> 활동
연세대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돌리는 작은 교실> 한글교사
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참여

좀 더 날카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의 모순을 깨부수겠다고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내가 또 다른 범주를 만들거나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수 없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닌 또 다른 억압을 생산해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틀 속에 갇혀 규정될 수 없음에도 강제되는 규범들은 무수한 상처를 남게 한다.



여성주의의 언어는 얼마나 내가 단일한 구도로 모든 관계들을 파악하고 많은 존재들을 타자화해왔는지 깨닫게 했다. 이 깨달음은 나와 내가 살아온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모두를 뒤흔들어 버렸다. 이제 다시 나의 삶을 쌓아갈 차례이다.



여성주의와 총여학생회

학 교에서 학생은 좀처럼 발언권을 갖기 힘들다. 학생의 생활을 만드는 것은 학생 자신이 아니다. 학생은 자신이 낼 돈에 대해 협상할 수도 없고, 듣고 싶거나 듣고 싶지 않은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학교에 하지 못하며,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도 찾기 어렵다. 학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삶이 어떠한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이리러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다.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지금 누군가가 살고 있는 삶은 그 이야기에서 쉽게 소외된다. 과반 공동체나 동아리 내부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불편하며, 교실에서 교수의 어떤 발언이 자신을 상처받게 하는지, 학내의 어떤 장소가 두렵거나 접근 불가능한지 이야기하기에 이 학교는 너무나 거대하다. 그래서 학생의 목소리를 학교에 내기 위해 구상한 장치가 바로 학생회이다. 그러나 학생회가 반영하는 목소리는 어떤 학생의 목소리인가? 정말 2만 연세인은 모두 아가라카와 연고전을 원하는

가? 모두가 취업 외에는 다른 미래를 상상하지 않는 걸까? 토익시험을 보고 싶지 않고 대기업의 인턴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학교에서 어떤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학내에서 가시화되는 푸르른 연세대학생의 삶이 모든 학생이 원하는 삶은 아니다. 그러나 비가시화된 학생들의 목소리는 대의제라는 장치에서 걸러진다. 학생의 목소리를 모아 힘을 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회는 결국 권력을 가진 자의 목소리만을 반영할 뿐, 그 안에서도 또다시 약자가 된 사람들은 여전히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렇게 사라진 목소리를 드러내며 사라짐을 만드는 권력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여성주의이다.

총여학생회는 학내에서 여성주의 정치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어떤 공식적인 장소에서도 논의되지 않는 사소한 경험들에서 억압과 권력의 관계를 포착해내고 공론화하기 위함이다. 성폭력적인 발언과 제임이 난무하는 술자리, 농담으로 통하는 여성비하적 발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숨겨야 하는 월경의 경험 등 가부장적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권력적 억압들은 주로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삭제해 왔다. 그저 애정의 표현이었다고, 재미있기 위해서라고, 이 정도쯤 괜찮지 않냐고 말하며 용인되는 것들에서 상처 입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권력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총여학생회가 탄생했고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한 외침으로 그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사실 권력구조 속에서의 억압은 여학생만의 문제는 아니다. 누군가가 생태적인 삶을 원할 때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 놓고 돌아오는 MT는 그에게 어떤 경험일까? 채식하는 학생에게 학내의 무수한 식당들은 어떤 장소일까? 평등한 관계를 원하는 남학생에게 나이권력이 절대적인 과반 남성 연대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까? 자연스러운 듯 했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여성주의이고, 그 누군가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총여학생회는 성차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모든 차별과 억압

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노력의 일환이 가장 애증심성과 이상애증심성에 대한 공론화였으며 예코페미니즘에 기반한 활동이었다. 편안해 보이던 일상에 파문을 내는 드러냄과 문제제기는 수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력, 이 학교가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력을 흔들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한 기구가 총여학생회이다.

만약 총여학생회가 그저 여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기구라면 한계는 명확하다.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한다면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부장적 억압들을 재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때문에 총여학생회는 그러한 방식을 경계하며 비판해 왔다. 권력관계에 의해 주변화된 사람들의 경험이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고 그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것으로 취급되는 이 구조에서 작은 목소리들에 힘을 실어 주고 모두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여성주의 총여학생회가 해 왔고 앞으로 해 나갈 일이다. 총여학생회가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성별로서의 여학생들이 아니다. 권력구조 속에서 약자로서 존재하는 여학생들이며, 나아가 성별과 관계없이 가부장적 권력구조의 철폐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끊이지 않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는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총여학생회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대해 해 씨워 나갈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억압과 폭력을 만들어내는 모든 구조에 대항할 것이다. 그리고 성별이 더 이상 억압이 아니게 될 때, '남성'이 갖고 있는 가부장적 권력이 희미해지고 학내에서 더 이상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성주의와 총여학생회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기쁘게 벗어던질 것이다.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정말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 다정한 층의 규범들이 나를 틀 속으로 밀어 넣는다. 갖가지 규범에 들어맞지 않는 삶은 매순간 비난받고 차별받고 있음에도 모두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고 말한다. 이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인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개인이 틀에 맞게 변화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된다. 예컨대, 젠더규범이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않는 자는 비정상적으로 낙인찍힌 채 '정상'으로 들어올 것을 강요받는다. 또한 장애를 가진 몸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에서 '적응'하며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는 평등하다고 말하는 매순간 '우리'라는 범주에 들어오지 못한 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차별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희석된다.

'자유'와 '평등' 속에서 가려지고 잘려나간 삶들

정상/비정상, 중심/주변의 구도로 짜여진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위치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차별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소외받는 이들의 삶은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에 의해 잘려나가고 사라진다. 연세대학교 안의 삶들을 돌아보자.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서 성차별은 사라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대학의 분위기에서 여학생은 명예남성이 되거나 매력적인 연애 대상이 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밀려난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평등'한 학교에는 없는 것처럼 사라진다. 이제 학내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들 하지만 사실 성별화된 사회의 평가기준으로 인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유능하고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움과 상냥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이중의 압박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것은 순전히 개인의 능력 문제가 되어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순간 일등감에 괴로워해야만 한다. 생활은 소비와 폐기의 반복으로 지치고 병들어 가는데 언론과 매체의 설 새 없는 광고는 오히려 더 많은 소비를 욕망하게 하고 지친 삶들을 풍요로움으로 포장해버린다. 그 과정에서 파괴된 자연과 착취 받는 노동자, 농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무수한 상처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이 만든 거대한 중심의 구조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구조 속에서 각자의 삶들은 교차하고 경합하며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억압받고, 그 억압의 지점들은 서로 맞닿아 있다. 하지만 권력의 교묘한 작동은 이 맞닿아 있는 지점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상처들을 개인이 감당할 문제로 만들면서 고립시킨다. 결국 이 삶들은 좀처럼 이어지지 못한 채 부유한다.

일상을 뒤흔드는 여성주의

여성주의는 이러한 소외와 고립을 만들어내는 권력관계들을 파헤치고 균열을 내기 위한 언어를 만들면서 일상을 뒤흔들고 변화를 모색했다. 여성주의의 힘은 '그래야만 한다'는 수많은 규범과 권력관계들을 깨뜨리고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왔다.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경험과 없는 것처럼 감추어야 했던 월경의 경험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성별이본법에 따라 오직 두 가지의 성만 상징하고 특정한 역할과 위치를 부여하는 젠더 규범에 질문을 던졌다. 휠체어를 타고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계단식 강의실이 얼마나 비장애중심적인 공간인지를 폭로하고, 효율의 이름으로 파괴되는 자연과 그 자연과 함께 깃잡힌 가난한 삶들을 내보이는 것 역시 여성주의의 힘이었다. 이처럼 주변화, 비가시화 되었던 삶들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는 이념에 치우친 정치가 아니다. 누군가를 억압했던 권력을 해체하는 것은 생존 그 자체의 문제일 뿐이다.

여성주의로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23대 총여학생회 선본(Questioning)은 이제 이 소중한 언어들이 더 많은 세상의 면면과 마주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삶의 영역과 조우하려 한다. 이러한 마주침에서 각자 고립되어 있었던 삶/관계들은 부딪히고 깨지며 이어진다. 이제까지 가려져 있었던 삶과 잘라내어졌던 관계를 드러내고 이어내는 과정이 각자에게 동일할 수는 없기에, 하나의 완벽한 대안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에 대안들 속에서 누가 배제되는가를 고민하며 더듬어갈 수 있을 때만 이 과정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절대적인 경계 속에서 밀려나는 삶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주의적 관계맺음의 출발이다!

캄캄한 밤길 홀로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의 두려움과 집으로 들어간 후 밀려오는 우울함을 없는 채 하지 않고 칸칸의 방에서 꺼내어 발화함으로써 움츠러들지 않는 힘을 나눠받을 수 있음을 몸소 느껴보자. 무수한 삶들을 가리고 오직 화제의 지분으로 이루어져 왔던 생활에 역행하여 효율과 이윤의 논리에서 벗어난 색다른 생산의 가능성을 실현해보자.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지위내며 정상성의 각본 안에서 꾸러지는 삶이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느리더라도 정말 즐거울 수 있는 삶, 타인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지 않는 그런 삶을 직접 꾸려보자. 이로써 흩어져 있던 개개인의 고립된 삶은 재구성되고 여성주의의 언어는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와 새로운 가능성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23대 총여학생회 선본 Questioning 이 바라본

22대 총여학생회 speak-out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여성주의 기조로 보는 22대 총여학생회

22대 총여학생회는 "일상의 관계와 경험을 여성주의로 재구성하다"라는 기조로 활동을 하였다. '여성주의'라는 기조에서 드러나듯이 **성별권력구조에 문제제기하는 총여학생회 존재**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권력과 폭력에 문제제기 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기조는 **성별권력관계와 연관을 맺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소수성을 드러내고,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꾸려가는 기조**가 되었다. 이는 총여학생회의 목적과 의미를 권력관계 속의 소수자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반성폭력', '탈이성애중심주의', '몸바꾸기', '에코페미니즘운동', '여학생교육권', '여성주의 문화' 등은 일상의 권력관계를 드러내겠다는 기조에서 나온 22대 총여학생회의 공약들이다.

일상의 권력관계를 드러내었는가

22대 총여학생회(이하 22대)의 반성폭력운동은 학내의 성폭력적 문화를 문제제기 하는 것으로, 일상의 가부장적 권력을 드러낸다는 내용이었다. 성폭력을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구조의 문제로 조명하여, 보이지 않았던 일상의 권력관계를 드러낸다는 기조를 공약으로 잘 이어갔다고 생각한다. 22대는 여러 자료집과 자보, 문화제로 반성폭력 담론화를 했다. 오티 새터기간에는 '여연자연(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대 자치단위 연대)' 내에서 함께 발행한 <굿바이 거짓평화>라는 제목의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을 다양한 이야기들로 풀어냈다. 사람들이 새로이 들어와 자치단위들이 공동체 문화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에, 여연자연 활동을 통해 기존의 학년-성별-나이로 짜여진 권력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3월초의 <반성폭력 주간>을 통해 이야기되지 않았던, 성폭력 각본에 맞지 않는 성폭력들을 드러내고 이에 관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가시화 되지 않은 여러 성폭력을 담론화 시킴에 따라, 학내의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내고 사람들이 반성폭력 감수성을 갖게 되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성폭력적 상황을 마주했을 때, 구체적으로 대응해나갈 방법과 언어들을 좀 더 고민하고 이야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23대 총여학생회 선본 <Questioning>은 22대의 반성폭력의 의미를 이어서 가져가며, 거기에 더해 **학내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1) 47대 총학생회 22대 총여학생회 선거 자료집 중 기조 설명글 참고한 내용.

2) 정식 공약의 명칭은 '성폭력 각본을 깨는 반성폭력 운동'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나 관계를 말한다' '간하지 않는 몸, 긍정하며 피워올린다' '일상의 착고 힘 있는 한 걸음, 에코페미니즘' '여학생 교육권을 펼쳐라' '여성주의 프리즘' '무지개빛 목소리' '나 이 지면에서는 일어로 줄여서' '반성폭력' '탈이성애중심주의' '몸바꾸기' '에코페미니즘' '여학생교육권' '여성주의문화' 로 표시하기로 한다.

학내의 관계맺음을 새로이 재구성 했는가

수 있는 힘을 고민해 나갈 것이다. 학내의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일상 속 성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리플렛을 만들어서, 학내 구성원들이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일상에서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2대의 '탈이성애중심주의' 공약은 이성애중심주의와 젠더규범(성역할규범)이 상호 연관되어 차별과 배제를 낳는 지점을 문제제기 하는 내용이었다. 22대는 겨울방학의 '탈이성애중심주의'로 세미나와 5월의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퀴어의 움직임은 성>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과 관계를 드러내는 담론화 작업을 하였다. 이성애주의가 성역할 규범을 양산하고 사람을 성별이라는 틀에 가두는 각본을 만들어내는 지점들을 드러냄으로써, 학내에 성별권력관계에 묻혀진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었다는 점에서 활동 의미가 있었다. 탈이성애중심주의 의제는 성에 따른 규범과 차별의 문제로, 성별권력관계에서 '여성'이라는 소수자성을 고민하는 여학생회로서 용감 고민으로 가져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Questioning>은 탈이성애중심주의의 문제의식을 활동으로 가져감과 동시에,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젠더규범과 이성애주의를 풀어갈 수 있는 작업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학내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관계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계에 대한 사연들을 여성주의적으로 풀어내는 '영키는 라디오'로 일상의 규범들을 깨나가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 또한 세미나나 문화제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일상의 관계를 여성주의적으로 바꾸어가며 힘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이다.

22대 총여학생회는 선본시절 생협에 관련하여 공동공약을 제안했을 정도로, 생협과 에코페미니즘 공약이 22대의 중요한 과제였다. 총여학생회가 참여하여 진행한 '생태장터'의 키워드인 '생태' '유기농' '로컬푸드' '지역농민'으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사회의 이윤창출과 개발에 착취당하고 억압받았던 생태계, 지역농, 여성의 관계를 적극 드러내었다. 상품화와 이윤추구라는 자본주의 가치 하에 드러나지 않았던 먹고, 치우고, 생활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들을 고민함으로써, 일상 속에 보이지 않았던 착취와 폭력을 문제시 하고 다양한 실천으로 바꾸어 가려냈다. 22대가 조합원이 민주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생협이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적 가치를 품고자, 생협을 알리고 운영하는 일에도 적극 결합한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Questioning>은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적 가치를 학내 교육환경에 대한 고민으로 적극 가져가려 한다. 학생회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이러한 가치를 다양한 활동으로 만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였다. 이를테면 일회용품이 아닌 자기집 사용하기 문화를 위해 생협과 함께하는 텀블러 기념품 사업을 제안하거나, 오티를 생태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에코오티 키트를 빌려주는 방안을 실현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적 이윤추구논리로 재단된 비생태적인 학내

3) 47대 총학생회 22대 총여학생회 선거 자료집 중 '여학생 교육권' 공약 설명을 참고한 내용

문화를 <틈새 공작소>라는 공약을 통해 에코페미니즘적으로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갈 것이다.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관계를 쌓아가는 '재능나누기'를 추진하거나 '프리마켓'을 통해 정돈 물건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착취나 단절된 관계로 구성되지 않는 대안적인 관계를 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학생 교육권'은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스스로 교육공간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로써, 그동안 교육권의 기준이 된 남성-비장애인-이성애자 중심성에 문제제기 하며 학내 공간을 바꾸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³⁾ 22대는 여학생 휴게실이나 가로등, 샤워실 설치같은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학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실현시킬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일년간 이렇다 할 답변이나 실천이 없어서 아쉬웠다. 또한 '여학생 교육권'으로 이야기 되지 않는 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 중심적 기준에 억압된 다른 가치들이 잘 이야기 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 23대 총여학생회 선본 <Questioning>은 교육권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여성주의적인 교육권은 단순히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는 공간의 구체적인 관계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함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생태적이고, 여학생, 비이성애자, 장애학생을 배제하는 학내 공간에 문제제기하고, 공간의 관계를 바꾸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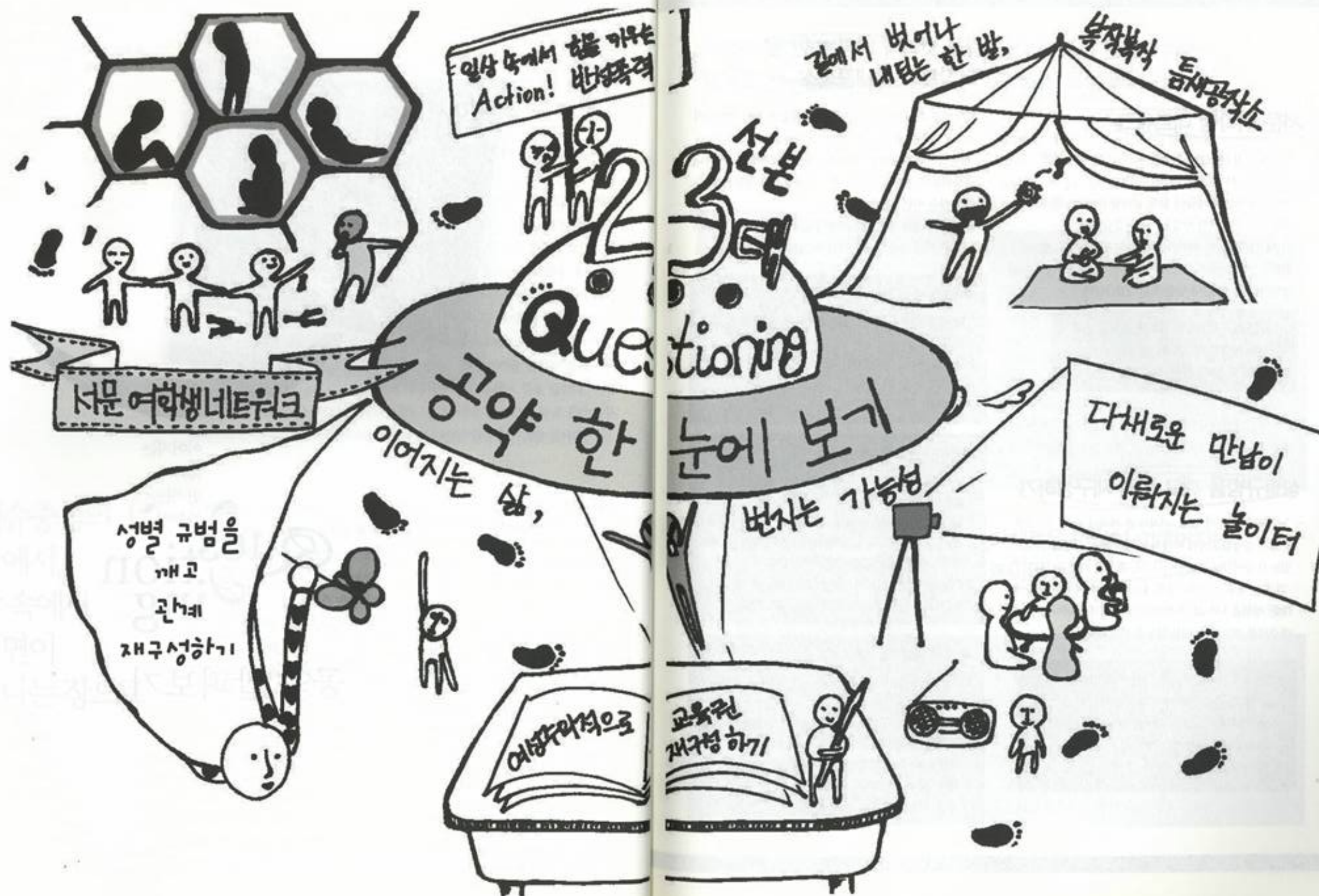
이슈중심의 장에서, 삶 속에서 면면이 만나는 장으로

22대는 일상의 권력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반성폭력과 탈이성애중심주의, 에코페미니즘 등을 구체적인 활동의 주제로 삼고, 담론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간을 바꾸어갈 의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치성을 드러내고 학내 구성원들을 설득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학내 구성원들이 일상의 삶속에서 여성주의의 정치를 만나고 느끼며 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3대 총여학생회 선본 <Questioning>은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틈새 공작소'와 같은 공약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삶을 돌아보며 바꾸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가려고 한다. 자취하는 삶과 주거라는 일상에서 여성주의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고민을 같이하고자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를 만들려 한다. 또한 도시락모임이나 수작업공작을 통해 자본주의에 균열을 내보는 삶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꾸릴 것이다. 이렇게 삶속에서 생활들이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적인 삶으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로 구성된 규범들을 깨뜨려 나가는 방향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위의 내용 중 22대 총여학생회의 공약설명과 활동내용은 22대 총여학생회에서 발간한 책자 (영무조개 네트워크 1, 2호)와 웹사이트, 47대 총학생회 22대 총여학생회 선거 자료집 그리고 22대 총여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활동보고를 참고하여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삶, 변지는 가능성 Questioning 공약 살펴보기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 서문에서 자취하는 여학생들 모여라! 일상의 뒷면에서 다시 그려내는 여학생들의 삶!
- '서문'에 사는 학생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 이 때 여학생들이 파악하는 공간을 재조명하고 자취하는 여학생들의 생존을 드러내며, 다른 삶을 만 들어가는 관계맺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1 '서문'에서 감연회와 영화제, 소모임 기획
- 2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팀 활동
(서문지도 발간, 영상 제작, 사진전 등)

성별규범을 깨고 관계 재구성하기

- '남자라면 이래야 한다, 여자라면 저래야 한다'는 성별 규범과 성역할규범이 각각의 관계와 몸을 어떻게 얽매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바꾸어나가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 '연애', '결혼', '가족' 등의 삶의 각본에 치이는 생활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며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이성애주의를 깨트릴 수 있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 1 성별규범, 이성연애각본,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등을 허무는 탈이성애중심주의 세미나
- 2 몸을 매개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몸 바꾸기 프로젝트 (탈형탈령 캠프, 눈맞추기 세미나 등)
- 3 문화제

길을 벗어나 내딛는 한 발 '복작복작' 틈새공작소

- 잊혀지고 지워진 다른 가치들과 관계들을 찾아 여성주의적으로 자본주의의 틈새 만들기!
-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학내 구성원들이 각자의 속도로 만들고 공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졸업 후의 삶과 일에 대한 고민들을 녹여내며 각자에게 의미 깊은 다른 삶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시도하겠습니다.

● <복작 복작 틈새 공작소> 팀

- 1 팀 활동 (재능나누기, 교환과외, 수작업 공작, 도시락 모임 등)
- 2 팀 내 세미나 (여성노동, 에코페미니즘, 대안화폐, 자본주의, 생협 등)
- 3 프리마켓 열기

● 생태 여행 떠나기

- 1 여름방학 기간 '생태 여행' 참가자를 모집하고 함께 생태 여행 기획
- 2 일주일가량 느릿느릿 떠돌며 여행 껌, 사대강, 지리산 등 잊혀진 공간들을 찾아가 작은 마을들을 거점으로 지역민들과 활동단체를 만나기
- 3 여행에서 만난 풍경과 생물은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자료집 발간, 사진전 등의 후속 작업 진행

● 스펙 역행하는 인턴

- 1 여름방학 기간 '스펙 역행하는 인턴' 참여자 모집 및 세미나
- 2 참여자들이 재구성에 본 일을 실제로 실험해볼 수 있는 활동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막달레나공동체, 장애여성 공간 등)와 연계하여 '스펙 역행하는 인턴' 진행
- 3 참여자들의 삶 속에서 위의 활동이 가진 의미를 풀어낼 수 있는 후속작업 진행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 재구성하기

- 수업, 강의실, 공동체, 생협을 비롯하여 학교 공간과 문화를 바꿀아내기
-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는 교육권으로서 목소리 내기

● 여학생 교육권

- ◇ 수업
- 1 여성주의 강의평가 @ 오프라인 진행
- 2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수업 개설 요구

◇ 몸

- 1 여성주의 의료생협준과 같이 여성의 건강과 삶을 고민하는 단체와 함께 전시, 진로부스 등의 활동
- 2 대안월경대 키트 판매 및 OT/세터, 농활에 생리대 배부

◇ 공동체

- 1 누구랑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하는 '아싸 도시락 모임'
- 2 아카라카, 연고제 싫어서 내가 차린 난장판

● 생협

- 1 생협학생조합원으로 목소리내기, 생협 이사회, 생협 학생식당자문위원회 결함
- 2 학생식당 내 싸고도 건강한 채식식단 개시, 샐러드+과일 바 설치
- 3 생협 매점에서 인나는 녹색가게
- 4 텀블러 제작, 에코염티 키트 대어 등을 통해 일회용품 없는 학생자치활동 만들기

● 장애학생

- 1 장애학생 수업권을 돌아보는 간담회

일상 속에서 힘을 키우는 Action! 反성폭력

- 여전한 성폭력 각본! 일상에서 마주치는 성폭력을 드러내고 통쾌하게 깨트리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성폭력 사건과 마주하는 사건 해결 주체들의 힘을 키우고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겠습니다.
-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치유를 지지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1 2011년도 확대간부수련회, 48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반성폭력 강연 진행
- 2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여언자연) 내 반성폭력 워크숍 및 자료집 발간 제안
- 3 교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여부 강의계획서 내 표기 의무화
- 4 <사건 해결 주체를 위한 리플렛> 개정 및 배포
- 5 <일상 속 성폭력 대처를 위한 상세하고 다정다감한 메뉴얼 : 레드북> 발간 및 배포
- 6 학내 언론사에 성인지 간담회 및 세미나 제안
- 7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담론화

다채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이터

함께 모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더 많은 켠리들과 만남들 만들기

- 1 매체 발행 및 블로그, 홍보데스크, 티파티 등의 활동을 병행
- 2 상시적으로 문화공연 소개하고 티켓나눔 및 후기 공유
- 3 일상이 만나는 곳, 영키는 라디오
- 4 여성주의적인 공동체를 고민하는 과/반 공동체, 학회, 동아리등을 위한 테이크아웃 커리큘
- 5 총여학생회 온라인 공간, 홈페이지/블로그/웹진 등을 통하여 상시적 홍보, 피드백, FAQ 등
- 6 일상을 뒤쫓는 여성주의 세미나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1



자취든, 기숙사든, 고시원이든, 하숙이든, 당신은 혹은 당신 주위의 누군가는 왜 집을 나와서 살기를 택했나요? 집 혹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무수한 고민들을 불러일으키고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도록 합니다. 이 와중에 '여학생'이라는 건 더 어렵지요. 학교에는 집을 나와서 사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중에서도 서문이라는 마을에 밀집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문'이라는 공간에 얽히고설킨 이러한 일상의 뒷면을 폭로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상을 그려내려고 합니다.

서문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각각이 하나의 점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좁은 방 안에서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떠돌다가 아침이 되면 부스스한 얼굴로 학교에 나왔다 들어가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이 점들이 **그물망으로, 네트워크로** 이어지면 무수한 가능성들이 번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문 안에서 벌어지는 삶을 읽어내어 공감대를 만들고 끌어당길 수 있는 장으로서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를 고민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나 따로, 미래를 고민하는 나 따로, 생활에 치이는 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열되어버린 나를 그려모아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일상을 그려내요. 여성주의적인 관계맺음, 네트워킹, 공동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생태계라는 키워드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빚어내요.

<Questioning>에서는 서문에서 영화제와 강연회를 시작으로 서문의 이야기를 끌어올리겠습니다

2월 경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는 서문대이동 시기를 맞아 자취하는 여학생들의 일상 및 여학생들이 파악하는 공간을 다루고 이를 강연회와 영화제의 기획을 통해 풀어내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집에 가는 길의 성폭력의 공포 나누기일 수도 있고, 멋진 언니들이 따로 또 같이 사는 얘기가 나오는 영화 일수도 있어요. 이러한 강연과 영화를 서문 사는 이들과 함께 보는 것을 시작으로 서문의 이야기를 불러들이겠습니다.

낮의 서문과 밤의 서문은 참 다릅니다. 낮에는 햇살아래 자못 평온해보이던 골목들이 밤이 되면 숨 한번 안 몰아쉬고 내달려야 할 것 같은 공포스러운 관문으로 탈바꿈 합니다. 집을 구할 때도 집까지 가는 길에 가로등은 있는지, 치안센터는 있는지, 아랫집 뒷집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현관문이나 창문이 주위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불안불안 따질 것도 많습니. 어렵사리 자취를 시작하고 짐을 옮기고 나서도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꼭 쥐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갑니다. 방문을 열면서도 안에 누가 있지는 않을까 서둘러 불을 켜고 문을 꼭 걸어 잠급니다. 배달음식 한번 시켜먹을라 해도 망설여지고요. 이처럼 서문이라는 공간에 얽힌 일상의 성폭력을 비롯하여 감춰지고 숨겨져 왔던 여학생들의 생존을 드러내겠습니다.

서문에 사는 여학생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겠습니다

영화제와 강연회를 통해 서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서문 사는 이들이 하나 둘 얼굴을 익히면 서문 앞 카페든, 슈파든 어디든 구체적인 공간에서 일상을 매개로 여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모여서 차도 마시고, 책 읽은 소감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고, 짜증나는 세상에 욕도 하고, 장도 보고 그러면서 서로의 일상으로 서로를 초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팀〉을 꾸리겠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만난 이들 중에서 의지가 있는 이들을 주축으로 〈서문 네트워크 팀〉을 꾸리겠습니다. 여학생들이 파악하는 공간을 담아낸 서문지도도를 만들어 뿌리고, 서문을 담아낸 영상이나 사진 등의 전시를 기획하면서 서문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자취메이트알선소, 일반친제조공장, 생협공동구매동대, 자전거배달서비스, 쓰던물건나눔 등 자취하는 여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촌에서 대학생으로서 산다는 것은 소비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내고, 교재를 사고, 음식을 사먹고, 옷을 사고, 커피를 마시는 등 소비하지 않으면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또한 각자의 생활을 각자가 책임지면서 살아갈 때 사게 되는 물건들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고립될 때 시장 경제가 팔 수 있는 것은 더 많아지고 팔 수 있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 한다는 것은 이처럼 끊임없이 소비하는 삶, 사회가 만들어놓은 삶을 벗어나 창조하고 공유하는 삶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문, 더 나아가 신촌이라는 공간에 발 딛고 서 있는 연세대학교가 얼마나 속도와 경쟁, 소비를 창출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의 지금의 생존을 묵살했는지에 대해 시원하게 털어내 봅시다. 이러한 폭로전 속에서 서문이라는 공간에서 창조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을 도모해 봅시다.

길을 벗어나 내딛는 한 발, 2 복작복작 틈새공작소

우리는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매합니다. 이때 고려하는 사항은 눈앞에 있는 상품과 그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격뿐입니다. 자본주의적 가치매김 속에서 상품은 그 상품이 얼마나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그 값이 적절한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 밖의 것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잊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고, 상품 진열대에 오기까지 연관된 사람들과 자연은 상품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자연이 사라지는 모습은 가부장제가 여성과 비이성애자와 장애인들, 소수자의 목소리들을 지워버리는 모습과 겹쳐집니다. 제3세계 여성과 아이들의 노동, 생산과정에서 파괴되는 자연과 그 자연을 기반으로 하던 가난한 실들은 자임금과 착취 속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자본주의가 설정한 방식의 가치매김은 가부장적 질서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활용합니다.

〈Questioning〉에서는 자본주의 가치매김 속에서
잊혀지고 지워진 다른 관계들을 찾아보려합니다.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사는 경제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려 합니다. 자본주의적 가치매김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던 여성과 생애, 노동에 대해서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나고 복작복작하게 벌어보려고 합니다.



복작복작 틈새공작소

복작복작 틈새 공작소는 말 그대로 복작 복작 자본주의의 틈새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노동은 '얼마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잘 생산해내느냐?'로 평가받습니다. 더 많은 화폐를 끌어 모을 수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기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절하 되지요.

저희 23대 총여학생회 선본 <Questioning>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에 틈새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자본주의, 생태, 노동, 여성, 다른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또 그런 고민의 과정 속에서 가까운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그걸 프리마켓에서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교환과외를 하는 등의 일을 펼치면서 자본주의에서의 교환관계와는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 복작 복작 틈새 공작소 팀을 만들겠습니다.

뜻이 있는 연세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모여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을 열겠습니다.

2. 틈새공작소 팀 내에서 서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재능나누기, 교환과외>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신의 손으로 시간을 들여 직접 만드는 <수작업 공작>

점심시간에 같이 도시락을 먹는 '도시락 모임'과 같은 <생활 모임>

을 가지면서 일상 속에서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 팀 내에서 여성노동, 에코페미니즘, 대안화폐, 자본주의, 생협 등의 키워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틈새공작소 팀이 활동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이렇게 쌓여진 것들을 바탕으로 프리마켓을 열겠습니다.

틈새공작소 팀이 활동을 하면 틈새공작소 팀이 만든 물건들이나,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 그리고 만들어진 관계들을 바탕으로 프리마켓을 열겠습니다. 틈새공작소 팀이 만들어낸 생산물들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정해주는 가치기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정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여행

생태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적 가치 서열화의 체계 속에서 삭제되었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태계가 아니라 단순한 매립지로 간주되던 갯벌에 가볼 수도 있고, 토건경제의 논리로 진행되어가는 4대강 공사지역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지역을 구경하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만나는 여행이 될 거예요!

1. 생태 여행의 의의를 풀어내고 사람들 모으겠습니다.

2. 여행계획을 짜겠습니다.

자본주의적 가치매김 속에서 잊혀진 공간들을 돌아볼 수 있고, 느릿느릿 떠돌면서 정해진 장소의 작은 마을들을 거점으로 지역의 사람들과 활동 단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행 계획을 짜겠습니다. 단순히 여행지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여행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물들을 포함한 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올 수 있는 여행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여행을 다녀온 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풍경들, 느낀 점들을 가지고 자료집 발간이나 사진전 등의 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스펙을 역행하는 인턴

인턴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갑니다. 자본주의적 가치서열화 아래에서 잃은 돈을 벌어오는 일에만 한정되어 버렸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은 일로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의 한정된 개념에 맞춰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품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턴은 그 스펙의 소중한 한 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턴만이 전부일까요? 인턴으로 다른 일에 대한 경험을 해볼 수는 없는 걸까요? 돈 중심의 시장경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인턴, 성적소수자에 대한 무시와 편견에서 가부장적인 위계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에서의 인턴은 없을까요? 저희 23대 총여학생회 선본 <Questioning>에서는 이런 인턴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1. 활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등의 이들 단체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가부장성에 도전하는 <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에 피해 대한 상담, 지원활동을 펼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행복과 삶과 권리를 지지하는 <막달레나공동체>와 같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침식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가부장적인 위계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물음을 던지는 활동단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에서 돈을 벌기 위한 노동으로만 여겨지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의미, 가치, 상상력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인턴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2. 활동 단체에 가기 전,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삶 얘기, 왜 이것을 하고 싶은지 등을 나누고 고민하는 세미나를 하고, 인턴이 끝난 후에는 함께 모여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별규범을 깨고

관계 재구성하기 3



유치원 아이들이 병아리색 옷을 입고 소풍을 나왔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스타킹과 치마를, 남자아이들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머리가 길고 남자아이들은 머리가 짧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역할은 요구되며 학습됩니다. 옷차림과 머리모양뿐이 아닙니다. 날씬한 몸, 높고 가는 목소리, 조곤조곤한 말하기 방식, 섬세함, 감성적인 연애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여성'이라서 가지는 특성들인가요? 아니면 '여성'으로 분류되기에 요구되고 기대되는 특성들인가요? 우리는 모두 여/남으로 나뉘어 성별에 맞는 역할을 부여받고 그것을 수행할 것을 교육받으며 자라왔습니다. 험령한 옷을 입고 뛰어다니고 싶고 힘이 세어지고 싶더라도 '여성'이고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그러한 기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나의 몸이라고 하지만 몸의 움직임들은 성별규범 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별규범은 옷차림이나 행동거지만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이가 자라서 여자/남자 청소년이 되고 이성에게 성애적인 관심을 갖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산다는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주의를 기반으로 한 생애각본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보편적이고 당연한 행동인 것처럼 교과서와 미디어는 얘기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며, 이성애자라는 것이 곧 생애각본과 일치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본에서 조금만 벗어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수많은 질문들에 부딪히고, 왜 그러는지 설명하라는 세상의 요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규범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건 아직도 까마득한 일이에요. 예로 들어 누군가가 비혼을 선택했을 때, 온갖 편견 넘치는 시선들과 함께 너 그러다 병이라도 들면 누구한테 간호 받을래, 늙어서도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니 등등 설득하려는 말들을 수도 없이 접하게 되겠죠.

세상이 성별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삶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부대낌을 느끼며 애써 쫓아가고 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의 무엇인가가 그러한 성별규범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서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여성주의의 자유로운 언어는 보편적인 삶을 설정하고 정상/비

정상을 나누는 가부장제의 권력을 신산이 깨어나갑니다. 성별규범에 갇힌 나를 바꾸어 나가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부장적 각본 역시 바꾸어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하던 것들에 균열이 생기고 규범이 깨질 때 새로운 가능성들은 피어납니다. 다양한 세미나와 문화제를 통해 그 다채로운 가능성들을 풀어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1. 성별규범 허무는 세미나

이 규범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는 기제로서의 '연애'와, 성역할규범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여 처음으로 학습되는 장소인 '가족'의 탄생과 그 역사를 공부하며 그것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성이면 이래야 해 남성이면 이래야 해, 여성과 남성은 본능적으로 서로 끌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관계는 연애가 아니면 우정으로 분류해야 해, 그러한 이성애중심적 서사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관계들이 부자연스럽게 뒤덮이고 오해와 각색을 겪어 왔는지 생각해 보는 탈이성애중심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또 성별규범을 학습하고 수행하는 장으로서의 연애각본을 수집해 재해석해 보고, 나의 경험 말하기, 미디어 비평 등을 통해 성별의 벽을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보는 세계는 지금까지의 세계와 얼마나 다른지 입을 열어 외치는 시간도 가져 봐요.

2.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관계맺음을 고민하는 몸 바꾸기 프로젝트

우선 규범에 맞추어진 옷부터 갈아입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나의 몸의 경험은 성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구획되어 있었어요. 세미나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팀을 꾸려 구획에서 벗어나 몸을 깨우는 몸 바꾸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몸 바꾸기란 성별규범이 어떻게 몸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밝혀내고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자신이 경험한 몸을 이야기하며, 다른 이와 규범에서 벗어난 몸으로 소통하여 관계맺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까지를 뜻합니다. 한 예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남성에게 보호받는 존재로서의 여성성을 몸에 각인시켜 왔던 각본을 깨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팔다리를 뚝뚝 뺏어보기도 하고 땀이 흥벅 나도록 달래보기도 하고, 타인의 공격의사를 예민하게 감지해 그에 대응하기 위해 급소를 타격하는 훈련이나 자신의 몸을 지키는 자세를 연습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몸에 새겨진 이분법적 성별의 규범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나갈 것인지를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여성주의 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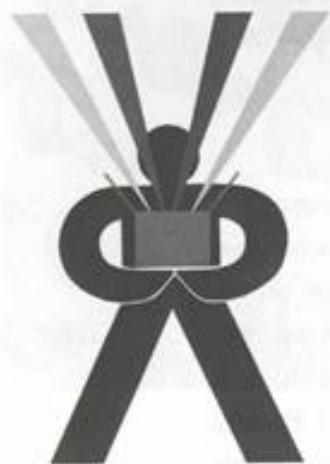
그 동안의 세미나와 프로젝트를 통해 생각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풀어내는 문화제를 만들어 봐요. 여성주의가 규범의 억압에 대한 폭로와 규범을 벗어난 상상력에 공감하고 힘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팀이 구성되어 내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와 프로젝트와는 달리, 열린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문화제는 학내에서 담론을 생성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부에서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펼쳐지면서 그것들을 학내의 다른 구성원들과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나눌 수 있는 판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피워내 봅시다.



일상속에서 힘을 키우는

Action

反 성폭력 4



을 한해도 많은 성폭력 이슈들로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학교도 그 수많은 이슈들 사이에서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 이슈들이 진행되는 과정과 얘기되는 방식들이 여전히 가해자 중심적, 행위 중심적인 것을 볼 때 반성폭력 운동은 아직 유효하며 반성폭력 운동 하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내에서 이뤄진 10년 가까이 반성폭력 운동의 결과 2000년도에 학칙으로서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반성폭력 운동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성폭력을 대하는 데 있어 더욱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학칙이 세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성폭력과 관련된 핵심단어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다 섬세한 감수성으로 자신의 불편한 경험을 드러내고 사회의 성폭력 이슈를 받아들이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1. 여전한 성폭력 각본

그렇지만 이렇게 높아진 성인지적 감수성 속에서도 여전히 일상 속에서 겪는 성폭력을 드러내는 말은 잘 발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는 성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성폭력 각본'입니다. 각본의 내용은 '면식이 없는 정신이상 남성 가해자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악하고 '순결'한 여성에게 강제로 성기삽입을 시켰다'는 것인데요. 이 각본에 들어맞으면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만 이 각본과 다르면 성폭력으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성폭력으로 인식조차 되지 않습니다. 각본에 들어맞지 않는 다른 내용의 성폭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런 것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하여 각본과 비교되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확대 간부 수련회, 중앙운영위원회 LT 내 반성폭력 강연 진행

각본에 의해 잘 보이지 않게 된 성폭력을 드러내고자 확대 간부 수련회, 중앙운영위원회 LT에서 반성폭력 강연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자리들은 거울방학 동안 단과대, 그리고 과, 반의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OT/새터 시기가 되면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이 들어오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 환경적 성폭력, 언어 성폭력, 물리적 성폭력 등 다양한 성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속 단위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구성원들의 일상적 불편함과 성폭력 경험을 해결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을지, 그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연자연 내 반성폭력 워크숍 및 자료집 발간 제안

또한 여연자연(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연치단위원회)에 함께 연대하여 앞의 강연에서 시작된 고민들을 워크숍을 통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연자연은 단과대, 과, 반 대표뿐만 아니라 동아리, 학회 등 학생회가 아닌 단위, 또 개인자격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당시 함께 나는 고민들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의 내용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강연+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할 생각이며 계획하고 있는 주차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들을 위한 사건 해결 과정 워크숍 (가제)

- 1주차 : 여성주의적으로 성폭력 바라보기
- 2주차 :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고민들 (사건 해결 과정을 공개/비공개로 진행하는 문제, 가해자나 피해/생존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의 관계, 진술서를 받는 방식 등)
- 3주차 : 사건 해결 과정에서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
- 4주차 : OT/새터/뒷물이 자리에서 술자리문화, 게임, 응원과 같은 공동체 문화 고민하기

한편, 학교 안에서 오래 이야기 해왔고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언어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만 교수-학생 간 위계적 권력관계로 인해 쉽게 말할 수 없는 성폭력이 존재합니다. 성차별 발언, 인신공격 발언, 호모포비아 발언 등의 강의실 내 교수 언어 성폭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는 주로 강의를 듣는 학생의 제보/신고가 있을 때 교수에게 직접 문제제기하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수가 사과만 할 뿐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가해 발언 이후의 조치는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신청 전에 강의가 성차별적이지 않은 환경을 학생들이 미리 알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교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강의계획서 내 표기 의무화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수에게도 의무로 되어있으나 실질적 이수여부를 학생들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수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강의계획서에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 하려고 합니다.

2.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고자 할 때

성폭력 각본과 들어맞든 들어맞지 않은 성폭력 사건을 경험했을 때 해결 주체를 앞에 펼쳐지는 길은 생경보다 복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결 주체는 피해/생존자 당사자일수도 있고 피해/생존자가 고민을 나눈 상대일수도 있고 피해/생존자가 속해있는 단위를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폭력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해결 주체들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중점으로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기 시작하지요.

2-1. 사건 해결이란 뭘까?

무엇을 사건 '해결'이라고 생각할 것인가는, 무엇을 중점으로 볼 것인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어떤 사건 해결 주체는 성폭력 사건을 특별히 가시화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 해결 주체는 학생회나 상담실 혹은 외부 기관을 통해 가해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건 해결 주체는 가해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작은 말하기 모임이나, 상담 등을 통해 치유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앞의 세 가지는 예시일뿐입니다. 사건에 따라, 사건 해결 주체의 의지에 따라 사건 해결 방향과 방법은 전략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사건 해결 주체를 위한 리플렛> 개정

몇 년간 꾸준히 OT/새터 기간에 <사건 해결 주체를 위한 리플렛>이라는 리플렛이 각 단과대 과/반 대표와 동아리 대표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리플렛에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사건 해결 과정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탓에 2차 가해, 공동체 분위기, 피해/생존자의 심정변화, 공론화 등 사건 해결 과정 속에서의 구체적인 고민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주체가 좀 더 직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리플렛의 대대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사건 해결 방향 및 방법에 따른 사례나 변수들을 담아 리플렛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성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상세하고 다정다감한 매뉴얼 : 레드북> 발간

성폭력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로 어떤 일련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즉시에 대처 있게 대처하거나 소소한 복수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치한을 만났을 때 경찰서까지 데려가는 귀찮지만 어떻게 굴탕을 좀 먹여주고 심을 때인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풀어 놓을 수 있는 모임을 갖고 이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상 속 성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상세하고 다정다감한 매뉴얼 : 레드북>을 만들고자 합니다. <레드북>에는 짜증나는 학내 공간 공간에 붙여놓을 수 있는 반성폭력 구호가 담긴 스티커도 넣을 수 있겠지요.

2-2. 2차 가해 방지

성폭력 사건을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도리어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2차 가해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피해/생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학내 언론사에 성인지 간담회 및 세미나 제안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 특히 학내 언론사와 함께 성인지 간담회 및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학내 언론은 그 영향 범위를 생각할 때 성폭력적이지 않고 피해/생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는 여론을 형성해 나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학내 언론사에 성인지 간담회 및 세미나를 제안하고 언론사로서 성폭력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3. 반성폭력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오랫동안 이어진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속에서 현재 사회와 학교를 바라보면 여전히/계속해서/또다시/새롭게 반성폭력 운동을 해야 함을 느낍니다. 변화하는 성인지적 감수성과 변화하는 성폭력 양상 속에서 수많은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07년도에 개정된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학칙)은, 협소한 성폭력 정의와 가해자 징계조치의 불충분 등으로 인해 현실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에 역부족입니다.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담론화

때문에 학칙 개정을 위한 담론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학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1년의 시간을 들여 학칙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고자 합니다. 지난간의 반성폭력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합한 문제의식을 발굴하고 그 문제의식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합한 언어와 더 많은 고민들을 담아갈 수 있는 형식 등을 다각도로 타진해보고 공론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의 힘을 키우는 Action

反 성폭력

- 공약 1 확대 간부 수련회, 중앙운영위원회 LT 내 반성폭력 강연 진행
- 공약 2 여연자연 내 반성폭력 워크숍 및 자료집 발간 제안
- 공약 3 교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여부 강의계획서 내 표기 의무화
- 공약 4 <사건 해결 주체를 위한 리플렛> 개정 및 배포
- 공약 5 레드북 발간 및 배포
- 공약 6 학내 언론사에 성인지 간담회 및 세미나 제안
- 공약 7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담론화





다채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5 놀이터

1 매체를 발행하고 블로그, 홍보데스크, 간단한 다과와 함께하는 간담회와 같은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매체를 매개로 하여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성주의적으로 비판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더 많은 까리들과 만남들을 만들겠습니다.

2 총여학생회 온라인 공간, 홈페이지/블로그/웹진, 메일 등을 통하여 상시적 홍보, FAQ, 피드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여학생회 활동에 대해 궁금한 사안을 질문하거나 제안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열어두겠습니다.

3 상시적으로 문화공연의 티켓나눔을 하고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사회의 지배사대로 재현하는 미디어물에 지쳐있다면 다른 방식의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하고픈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성영화제, 환경영화제, 인권영화제 등 상시적으로 여성주의적인 영화, 전시, 공연 등을 발굴하고 티켓나눔을 통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성주의 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람한 후의 후기들을 공유하여 다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영키는 라디오>를 진행하겠습니다.

라디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현장감 있게 일상의 소소한 관계들을 토로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테이크아웃 커리집을 만들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떻게 여성주의를 풀어낼지 고민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망설임 경험 이 있으시다면 23대 선본 <Questioning>에서는 과/반, 동아리방 등 각자의 공간에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지하겠습니다. 여성주의 주제별로 관련된 커리들을 모아 묶어둔 참고자료들을 열람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여성주의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주의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하여 일상을 뒤엎고 바꿀 수 있는 관계맺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상이 지루하고 반복된다고 느끼나요? 하지만 실제로 일상은 끊임없이 싸우고, **울다** 잠들고, **갈갈갈** 똥땀기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공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일상의 **‘문화’**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중요한 영역이고 여성주의로 이에 다가선다는 것은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의 눈동자에 고여 있는 표정들을 이해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 **무규범 댄스**를 취보아요. <Questioning>에서 준비한 문화공약 들입니다!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

6 재구성하기

학교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밥을 먹고,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이동하고, 수업을 듣고, 어떨 땐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어두컴컴한 밤에 집에 가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어 여기저기 놀러다니기도 하지요.

누구나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학생들의 일상’처럼 보이더라도 이러한 생활이 다 똑같은 일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삶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여학생에게 언어성폭력이 만발하는 수업은, 비이성애자에게 호모포비아가 만발하는 수업은 출석하기조차 힘든 것일 수 있고, 장애를 가진 학생은 이동할 때, 수업을 들을 때, 가족사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험기간 벼락치기를 할 때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학생들이 숯을 씹으로 향할 때면 그곳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밤새 카운터를 지켜야만 하는 생협 직원들이 있지요.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우리는 **‘보편적인 교육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성애자-비장애인-남성-학생만을 상정하고 있음을, 이러한 ‘교육권’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덮어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3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Questioning 은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을 재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곧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Questioning 의 교육권 공약,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수업
공동체
공생협
모임

수업

여성주의 강의평가 @ 오프라인

- **현황**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평가에서 성평등 항목은 단 한 개? YES/NO로 대답 가능? 주관식 답변은 NO를 택한 경우에 한해서만?
- **문제점** 강의실 언어 성폭력이나 환경적 성폭력을 세세하게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강의평가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다.
- **방향** 실제로 같은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실질적으로 교수와 학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강의실에서 벌어진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에 제대로 문제제기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수업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쟁점이나 우리 학과에 개설되었으면 하는 수업,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존중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싶은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와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방법

1. 중간고사 이후 학생들만의 1차 강의평가를 한다. 단과대/과·반별로 한자리에 모여서 구체적인 요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며, 단과대/과·반학생회, 총여학생회가 이 자리에서 나온 평가와 요구를 정리한다.
2. 참여한 단과대/과·반에서 실시한 강의평가 자료와 요구안을 수합하여 학교 당국이 함께하는 2차 강의평가를 한다. 이 자리에는 단과대/과·반학생회, 총여학생회와 성폭력 상담실, 단과대 학장/학과장, 교수진 등이 함께 논의를 진행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기 말 혹은 방학 중에 단과대/과·반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함께 강의평가에서 논의된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 결과를 정리하여 학생들과 공유한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수업 개설

- **현황** 자기방어와 관련한 수업으로 호신술이 유일? 이나마도 [건강과스포츠]에 포함되는 121개의 강의 중 총 4개만 개설? 모두 2학점 규모의 수업? 방어법이나 낙법과 같은 실기로만 이루어진 커리큘럼? (2010학년도 2학기 기준)
- **문제점** 성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훈련은 단지 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 한정될 수 없다.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젠더 각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동시에 여학생들이 길들여져온 몸의 역사, 소극적인 움직임이나 움츠러드는 마음에 스며든 습관을 흔들어야 한다.
- **방향**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수업을 2학점 체육수업이 아닌 3학점 교양수업으로 개설함으로써 실습만이 아니라 강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의 커리큘럼을 짜고 강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성폭력상담실과 총여학생회가 취지를 살려 교무처와 얘기해갈 수 있도록!

방법

1. 수업의 모델?

다른 학교에는? 순천향대학교 「여성의 몸과 자기방어, (3학점 교양과목)
수업 구성: 강의 45% / 영상물 시청 및 토론 10% / 몸 훈련 실습 45%
전반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강사가 몸과 권력, 성별제도, 여성의 쾌락, 폭력에 대한 강의 진행
후반부: 태권도 사범 선생님과 함께 자기방어훈련 실습 진행

외부 단체 및 학교 여학생 부처 등의 조언을 얻어 자기방어훈련 수업의 구체적인 상을 잡는다.

2. 그간 학교에서 시행해온 자기방어훈련 관련 워크샵과 논의를 정리하고, 학생들에게 자기방어훈련 수업을 홍보하고, 수업 개설을 지지받는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3. 이를 바탕으로 교무처, 여학생센터, 성폭력상담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 2010년 여름방학에 워크샵과 같은 형태로 진행하고, 2010년 2학기에 정규 수업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한다.

몸

여성주의 의료생협(준)과 함께 건강한 삶 찾아가기

● **현황+문제점** 병원에 가서 돈을 내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나의 몸 경험이나 일상 생활의 느낌은 사라지고, 건강은 언제나 5분 안에 진단받고 10분 안에 약 처방받는 것으로 권 잡은 거라고?

● **방향+방법** 학교에 다니면서 건강한 삶을 꿈꾸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여성주의 의료생협(준)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1. 서문 여학생네트워크 등과 연계한 다양한 건강 소모임이나 진료 부스 등을 통해 자신과 친구(아웃), 지역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삶의 다채로운 방식을 모색한다.
2. 여성주의 의료 강연,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전시 등을 통해 여성의 경험과 삶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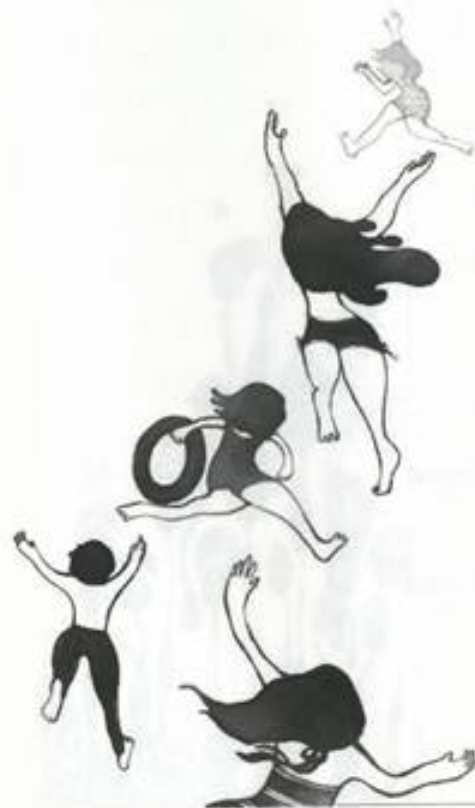
여성주의 의료생협(준)은 어떤 곳일까?

여성주의 의료생협(준)은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건강과 의료에 관련된 생활의 문제를 협동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생협입니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하고, 비의료인을 '현자'로만 위치 짓는 현재의 의료체계에 대한 대안 모색,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휘둘러 적절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의료 소외계층을 양산하는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이성애중심적 의료체계를 넘어 성폭력·가정폭력 생존 여성 지원과 심대 여성, 비혼 여성, 성소수자를 위한 건강 사업 등 다양한 여성주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www.unninet.net/femihealth)

대안월경대 키트 판매 및 OT/새터, 농활에 생리대 배부

● **현황+문제점** 월경은 알리기 부끄럽고 숨겨야 할 문제? 여학생만이 경험하는 특수한 문제? 일회용 생리대를 쓰지만 나날이 가격은 치솟고 질은 나빠진다고?

● **방향+방법** 여성이 자신의 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몸과 건강,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OT, 새터, 농활과 같은 자치활동에 생리대를 배부하여 월경을 공동체의 문제로 사고할 수 있도록! 천으로 만든 대안월경대 키트를 제작하고 총학생회실에서 상시 판매함으로써 여성의 몸과 생태와의 연결 속에서 월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간담회

● **현황+문제점** 장애를 가진 학생은 연세대학교에서 이동할 때, 수업을 들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장애학생 교육복지는 교수와 학생처 직원들로 이뤄진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통해서만 몇 년에 한 번씩 평가 될 뿐이라고? 눈빛고 찾아봐도 장애학생 당사자가 학교 환경을 평가할 공식적인 제도나 기구가 없다고?

● **방향+방법** 장애학생과 학생회, 학교 당국이 함께 연세대학교에 필요한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동아리 게르니카, 장애학생 지원센터 새움터, 학생처 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을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여기서 잠깐 비장애중심적 연세대학교 엿보기

새움터에 장애교육 전문인력이 없다고요?

새움터는 백양관에 설치된 장애학생 지원센터로서, 장애학생의 전반적인 교육사항을 담당하는 장소이자 장애학생들이 휴식하고 학교 지원자들과 만나는 공간이다. 2010년 현재 법학대학원 소속의 지도교수와 학생복지처 소속의 직원 1인,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조교 5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점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전문가를 전담 직원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단과대의 학교교육과 새움터 업무를 병행하는 지도교수나 별도의 장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조교들이 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이 수강신청이나 건물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학교 공간의 재구성이 시급하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장애학생이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와 정보들이 부족해서, 장애학생은 개인적 노력을 들여서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거나 취업정보를 탐색해야 한다.

대필, 녹취 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현재 새움터에서는 장애학생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필, 녹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필자, 녹취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학생이 아는 학생들로 메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필, 녹취자의 수가 부족하여 충분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및 대필, 녹취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속지하지 못한 상태로 대필, 녹취가 진행되기도 한다.

장애학생



공동체



아싸 도시락 모임

- **현황+문제점** 학교에 입학하고 공동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패배감과 소외감을 느낀다고? 남자 선배의 연애대상이 아니면, 술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나중엔 누구도 아웃사이드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 **방향+방법** 과, 동아리에서 부대끼던 학생들이 모여서 새로운 만남을 만들 수 있는 장소! 화학조미료와 수입산 재료를 사먹느라 지친 속을 로컬푸드와 일찬 법으로 채우는 식사

1. 정기적으로 푸른생을 빌려서 도시락 먹을 장소를 마련한다.
2. 커다란 밥솥의 전원을 끌고 푸성귀, 김치, 밑반찬을 푸지게 펼쳐놓는다.
3. 쌀과 각자의 반찬을 들고 아싸들이 모인다.
4. 밥을 먹으며 수다 떨기. 여기서의 만남이 트위터, 카카오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조? "오늘 개봉하는 이 영화 같이 보러 가실 분?" "오늘 도시락 뭐 싸왔어요?"

아카라카, 연고제 싫어서 내가 차린 난장판

- **현황+문제점** 학생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아카라카, 연고제에선 술 먹고 응원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백양로는 기업 판촉 행사장이 되어버리고, 학교 전체에 쓰레기가 버려져 미화직 노동자들이 밤새 청소해야한다고?

- **방향+방법** 축제가 다양한 학생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이에게 노동을 과중시키지 않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1. 아카라카, 연고제의 응원 문화, 술 문화가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는지 글, 사진, 그림 등으로 일린다.
2. 아카라카, 연고제에 가지 않은/가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당일 프리마켓, 야외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신나게 논다.
3. 확대운영위원회나 단과대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실천안을 과/동아리 학생회와 함께 마련한다.



과/안/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막대한 술자리와 음력 귀족의 문화는 나를 불편하게만 했다.

혼자어도 별로 상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여기엔 혼자있게 앉기는 익숙치 않은건지도 모르겠다. 나랑도 다른 사람들은 이 학교에 또 있을까? 만나고 싶다.

어, 알았어

생협

식당자문위원회, 이사회 결합

● **현황+문제점**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된다. 생협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경제 조직체로서, 이윤이 아니라 삶에 바탕을 둔 공동의 생활경제영역을 구성하는 협동체이다. 생협의 조합원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운영자로서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어떤 생산자와 연대할 것인지, 이익금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이다. 생협에 별도의 학생대의체제가 없는 연세대학교에서는, 그간 학생복지위원회와 학생회가 학생조합원의 대의자로 역할해왔다. 그러나 2010학년도에 학생복지위원회가 생협을 이주화하고,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에 생협국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학생회는 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나 실천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생협조합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Questioning>은 이 사회, 식당자문위원회를 통해 생협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태적인 식당과 매점 운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사회 : 총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교원 4명, 직원 3명, 학부생 3명, 대학원생 3명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2010학년도의 경우 학부생이사는 총학생회 1인, 총여학생회 1인, 학생복지위원회 1인으로 선임되었다.

-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
생협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소집 및 논의할 안건 상정, 운영에서 생긴 잉여금의 사용 계획 등

식당자문위원회 : 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의사수렴과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생협의 사업들을 벌여가기 위한 조직체이다.

- 식당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
식단 모니터링, 식재료 구매 기준 설정, 메뉴의 가격, 식당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

입학 기념으로 텀블러를, 3월엔 에코앤티 키트를

● **현황+문제점** 신입생에게 입학선물은 연세대학교 마스코트 테디베어나 기업 후원으로 확보한 최신 USB로 괜찮은 걸까? 새터, 오티 기간 무수히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들, MT에서 한 박스씩 사게 되는 일회용 젓가락, 스티로폼 접시들이 생태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없나고?

● 방향+방법

1. 생협의 자원을 통해 신입생 입학 기념품을 텀블러로 제작하고, 희망하는 단과대 학생회의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생수를 사먹는 대신 텀블러로 급수대 물 마시기, 종이컵 대신 텀블러로 맥주 마시기 등의 일상적인 실천을 홍보한다.
2. MT에서 필요한 다량의 수저, 컵, 그릇의 세트를 총여학생회 차원에서 구매하여, 신청하는 과/반, 동아리에 빌려준다.

싸고도 건강한 채식식단 개시, 학교 식당에 샐러드+과일바 설치

● **현황+문제점** 학생식당 밥값은 나날이 치솟고 메뉴들은 화학조미료만 가득해 먹을수록 허약해진다고? 식유 낭비하는 수입산 육류 대신에 지역농 생각하는 로컬푸드 푸성귀들을 팔겠 먹고싶다고?

● 방향+방법

1. 식당자문위원회를 통한 현재 학생식당 메뉴의 선호도 조사 및 식재료 원산지 검토
2. 타 학교 생협의 유기농 식당 및 채식식단 운영을 참고하여 적절한 메뉴와 가격대 설정
다른 학교 생협은? - 서울대학교는 2003년 하반기 생협학생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C메뉴(3000원짜리)로 채식식단을 도입하였다. 상지대학교는 2007년 학교차원에서 친환경식재료와 일반 식재료의 차액을 식단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로컬푸드 유기농식단을 1600원에 제공하였다.
3. 이를 바탕으로 이원훈과 협의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로컬푸드 채식식단 제공,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샐러드+과일바 설치

매점에서 만나는 녹색가게

● **현황+문제점** 매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대기업들의 배를 불러주는 과자나 노트밖에 없다고? 인터넷 계 시판을 통해서, 학기 초 오픈마켓에서만이 아니라 1년 내내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싶다고? 학생 조합원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 방향+방법

여성을 초과착취하지 않은 공정무역 물품,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물품, 대안적인 생산과 유통경로를 거친 물품을 매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더불어 학생들이 만들어낸 물건들, 재활용품, 중고용품들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코너를 열 수 있도록!

다른 학교 생협은? - 서울대학교 생협학생위원회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이전 존재했던 통로에 녹색가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교재나 생활용품의 벼룩시장일 뿐 아니라 미대생들이 직접 만든 악세서리를 팔거나 서울대 음반레이블에서 제작한 음반들을 팔았다.

Questioning 공약 한눈에 보기

서문여학생네트워크

- 서문의 이야기를 끌어올리는 영화제, 강연회
- 서로의 일상으로 초대하는 소모임
- <<서문 여학생 네트워크>> 팀 활동
(서문지도 발간, 영상 제작, 사진전 등)

길을 벗어나 내딛는 한 발, 복작복작 틈새공작소

- <<틈새공작소>>팀 활동
(재능나누기, 교환과외, 수작업 공작, 프리마켓 등)
- 생태 여행 떠나기
- 스펙 여행하는 인턴

성별규범을 깨고 관계 재구성하기

- 규범 허무는 세미나
- 몸 바꾸기 프로젝트
- 문화제

일상 속에서 힘을 키우는 Action! 반성폭력

- 사건해결주체를 위한 반성폭력 워크샵
- 사건해결과정을 담은 리플렛 개정
- <일상 속 성폭력 대처를 위한 상세하고 다정다감한 매뉴얼: 레드북> 발간
- 강의계획서에 담당교수의 반성폭력교양 이수 여부 표기 의무화

다채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이터

- 매체 발행
- 온라인 공간, 홈페이지/블로그/웹진 등 운영
- 상시적인 문화공연 티켓 나눔
(여성영화제, 인권영화제, 콘서트, 전시 등)
- 과/반, 동아리 등을 위한 테이크아웃 여성주의 커리큘
- 일상이 만나는 곳, 영키는 라디오
- 여성주의 세미나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 재구성하기

수업

- 여성주의 강의평가 @ 오프라인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수업 개설

몸

- 여성주의 의료생협(준)과 함께 건강한 삶 찾아가기
- 대안 월경대 키트 판매 및 OT/세터, 농활에 생리대 배부

생활협동조합

- 싸고 건강한 채식식단 개시, 학교 식당에 샐러드+과일 바 설치
- 학생들이 꾸려가는 녹색 가게
- 텀블러&에코오프티 키트

공동체

- 아싸 도시락 모임
- 아카라카, 연고제 싫어서 내가 차린 난장판

장애학생

- 장애학생 교육권을 위한 간담회



자연스러움이라는, 당연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일상을 옥죄고 있는 권력들의 홍수 앞에서,

그 물살에 나를 담그고 그에 맞게 나를 억지로 바꿔나가기보다,
그러느라 시리고 아픈 마음을 혼자 다잡기보다,

그 가면을 벗기고 힘껏 바라보기를,
그 물살이 가려버린 목소리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막혀 있던 이야기들을 잇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삶,
변재는
가능성
Questioning

공약과 함께 읽으면 좋은,
Questioning의 이야기들

여성주의가 교육권을 놓지 않으려는 까닭에 대하여



모두가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다. 중도 학생들이 시험기간 배풀지 않을 “권리”를 위해 학생회는 솜을 샘 24시간 개방을 일궈냈고, 학생들이 핫이슈를 알 “권리”를 위해 일부 세련넷 유저들은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과 사건 정황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1848년 프랑스혁명이 시민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공화정을 수립한 이후, 권리라는 단어는 성별, 나이, 국적을 불문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줄 열쇠로 부상했다. 특히 “학생”이나 “시민”과 같이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는 이름과 병렬될 때, 권리라는 단어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다. “학생”과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곧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며 그 열매를 모두가 고르게 나눠먹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권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곧 혁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시민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왕정체제를 빌미로 정치와 경제를 독점하는 가운데, 평민은 세금을 강탈당할 때만 국가에 출현할 수 있었다. 무대 뒤에 숨어있던 제3신분이 스스로에게 ‘시민’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몸으로 행한 노동의 결과물을 되찾아온 것이다. 학생이라는 이름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당국의 예결산 내역이나 건축 조감도에 학생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을 때야, 학생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시도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방기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자치공간을 없애려는 시도가 ‘학생’들의 공동체생활을 무시하고 있음을 주장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학생들 스스로 교육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교육권’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권리는 언제나 없었던 자들의 권리일 때만 정당하다.

이를 망각하고 아무데나 ‘교육권’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면, 패악이 발생한다. 2만 연세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카운터를 보는 생협 노동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밥새워 카운터에 서있어야 한다. 수많은 온라인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상노출의 위협과 끊임없이 상기의 기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오용은 학교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연세정신의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될 권리를 가진 자는 상당히 한정적이다. 학교는 로스쿨을 유치하고 송도캠퍼스를 추진하기 위해 몇 억씩 쏟아 붓긴 해도,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속기사를 고용하거나, 성폭력상담실에 정규직 상담원을 한 명 더 고용하기 위해서라면 일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 글로벌 연세 프로젝트는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창안되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가 고려하는 교육환경에는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의 수업환경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기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모두의 권리가 공평하게 상충하고 있다는 가정, 민주적 권리란 결국 다수결로 실현된다는 가정은 애초에 틀렸다. 이것은 보편적 권리라는 단어가 기실 특수한 지배집단에 보시해왔음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모든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다는 강의평가에서 언어성폭력으로 괴로워하는 학생이나 동성애자를 희화화하는 발표에 분노한 학생들의 목소리는 지워진다. 농활대원 모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왔다는 생필품에서 생리를 하는 학생의 몸은 고려대상이 아니기 일쑤고, 일상적으로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연애대상으로 절하하는 과/반에서 무수한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이 불가하기 일쑤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라는 연세대학교 교정은 계단식 강의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로 허다하고, 미화직 노동자와 생협 노동자의 식사와 휴식을 위한 방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유수한 해외 인력과 자본을 유치하여 더 넓은 세계를 제공하겠다는 송도캠퍼스는 갯벌에 살고 있는 무수한 조개, 물고기, 철새를 매렵하고 그에 기대어 살던 맨손어민들의 삶도 역시 매렵해버렸다. …… 오랫동안 연세대학교나 2만 연세인의 이름으로 주장되어왔던 교육권은 여학생, 장애학생, 생협 노동자와 같은 소수자들이 살아갈 길을 되려 흐트러놓았던 것이다.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학생’이라는 단어로 지워진 ‘여학생’, ‘장애학생’, ‘자연’, ‘노동자’의 구체적인 삶을 복원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관계에 주목하며,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포착하며, 그 속에서 어떤 정체성이 자연화되고 어떤 정체성은 사라지는지를 놓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학생이라는 범주의 보편성을 끌어내려 비장애자-이성애자-남성-소비자라는 특수한 자리에 위치시킨다. 연세대학교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개발, 행정, 예결산이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연세대학교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행복과는 별 관련이 없음을 폭로한다. 이것은 연세대학교라는 공간에 연루된 존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직시하려는 시도이며, 이에 대한 학교 당국과 학생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호소소리다.

결국 권리란 언제나 사회적 약자가 함께 살 권리를 뜻하는 말이어야 하며, 전 세계는 이들이 발화하는 권리에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제도와 정책과 개인의 무수한 교차망 속에 살게 된 바에야, 서로의 고통으로부터 깔끔하게 발 뺄 수 없기 때문이다.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이 상대를 지우거나 착취하지 않는 관계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다른 위치와 역사에도 불구하고 무구한 삶들이 공존하는 장으로 열어지기를 나는 끝까지 희망한다.



불안을 떨기 위한 폭력, 호모포비아는 있어선 안된다

최근 조선일보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말이냐”라는 광고에 이어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는 동성애 혐오 광고가 실렸다. 경악과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당혹스러움이었다. 드라마를 본 남성은 게이가 되고 그러면 AIDS에 걸리고 그러면 죽는다니,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는 내가 우스워질 정도로 무식하고 실소마저 나오는 논리다. 하지만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러한 악의적인 혐오와 비난을 위해 누군가가 엄청난 돈과 여력을 들여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저질스런 동성애 혐오 발언이 일간지에 공공연하게 실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비단 광고를 실었던 특정집단의 일이 아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타자화는 전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난다. 일상 속에서 누군가 이성애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설사 그 행동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행동에 주목하고 그에 강박적으로 대응한다. (“게이 같아!”) 누군가의 겉모습이 기존에 설정된 두 개의 범주-남성, 여성-에 따르는 규범에 딱 들어맞지 않을 때면 어떻게 해서든 그 성별을 확정짓고 나서야 안심

한다. (“남자야 여자야? 아 여자 맞구나.”) 이러한 타자화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와 맞닿아 있다. 기존의 이성애 젠더 범주(이성애자 여성/이성애자 남성)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체성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삶을 꾸려나가는 누군가는 그 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실제로 무수한 폭력에 직면한다. 동성애는 ‘질병’이므로 보듬어 안아 치료하면 ‘정상’이 될 수 있다느니 그것은 ‘죄악’이므로 ‘회개’해야 한다는 말부터, 집단 내에서 혐오, 괴롭힘이나 집단으로부터의 배제, AIDS에 걸려 죽을거라는 자꾸까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필연적으로 이러한 폭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위협하는 것까지.

어째서 이 사회는, 정확히 말하자면 이성애 성별규범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이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해 이다지도 강박적으로 반응하고 혐오하는가. 어째서 그 규범에 포섭되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한 폭력이 전 사회와 일상에서 용인, 조장되고 심지어 그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이에 대해서까지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는가. 그 혐오와 폭력은 편견과 악의로 가득차 있건만 그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말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참을 수 없음, 혐오, 두려움은 이 세상에 단 두 개의 확고한 이성애 젠더(남성을 사랑하는 여성,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만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모든 이들은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 혹은 여자는 이성의 상대를 찾아 헤매고, 짝을 만난 이들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믿음 말이다.

그 믿음이 허구라는 것은 여러 지점에서 드러난다. 생물학적 분류에 따라 지정받은 성별과 그 성별에 부과되는 성애가 ‘자연스럽고’ ‘신의 섭리’이며 ‘절대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든 이’가 반드시 이성애 젠더 정체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이성애젠더규범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이들조차도 자신이 그 규범에 맞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나가는 것이다. 남성/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이상향을 쫓아 자신을 갈고닦아야 한다는 것을 그 이들은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허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견고하다면, 다시 말해 이성애 성별규범의 기반이 확고하다면 어째서 성소수자에 대해 그다지도 참을 수 없어하며 그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포비아(phobia)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성애젠더 정체성의 정상성, 혹은 절대성이 아니다. 이성애자로 태어난 ‘나’는 순도 100%의 이성애자이며 그것이 ‘정상’이므로 그것으로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그다지도’ 혐오하는 것인가? 하지만 드라마 하나를 봤다고 아들이 게이가 될까봐 불안해하는 이들을 보고 있다면, 자신감에 차있는 정상성이 느껴지기보다 그 불안과 강박이 느껴진다. 성소수자를 ‘혐오해야’ 한다는 강박 말이다. 그러므로 성소수자 포비아는 어쩌면 이성애정체성이 되고 있는 가정, ‘이성애 여성/남성’ 정체성은 날때부터 주어진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가정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일지도 모른다. 그 취약함을 정상성으로 만연시키기 위해서 성소수자라는 타자를 만들고 그에 대해 불안과 혐오를 쏟아내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불안, 공포, 혐오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포비아(Phobia)라는 단어는 절묘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포비아는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 불안을 혐오로

표출하는 것이다.

2010년 4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동성애혐오집단들은 일간지에 동성애혐오조장 광고를 실고 법무부 사이트를 테러하는 등 대대적으로 호모포비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2007년 10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법무부가 공고한 차별금지법안의 개략적인 내용 중 ‘성적지향’ 항목이 차별금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일부 호모포비아집단을 중심으로 그 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 ‘동성애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동성애혐오행위를 자행하며 정치적 외압을 행사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차별금지대상 중 ‘성적 지향’ 등을 삭제하였고, 이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했던 법안 스스로가 특정 차별을 묵인,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3년이 지난 올해, 그 때를 떠올리게 하는 동성애혐오 행위들이 되풀이되고 있고, 심지어 10월 29일엔 동성애혐오 집단들이 국회의원, 교수들과 함께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반대포럼”을 열기에 이르렀다. 차별금지를 반대한다는 제목부터 괴이한 포럼이 국회에서 개최되는 상황은 성소수자에 대한 포비아의 현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불안을 떨기 위해 다른 이들의 삶에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성소수자 포비아는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삶에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법률, 제도, 일상 등 사회 전반에서 당연시되며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한 성소수자 포비아에 반대하고 그를 깨뜨리려는 움직임은 일상 속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혐오에 대해 성찰하고 저항하는 것으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항하는 것으로, 즉 구체적인 행위들로 가능하다. 성소수자 포비아가 작동하고 있는 곳은 다른 어떤가가 아닌, 사람들의 일상이나 관계, 삶과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사회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성애젠더규범의 취약함을 폭로하고 그것이 휘감고 있는 ‘정상성’을 깨뜨리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혹은 모든 이가 단 두개의 이성애적 젠더로 구획되어 잘려나가지 않을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

성폭력 사건에서의 통념과 2차가해

성폭력 피해생존자¹⁾의 경험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 성폭력 사건에는 너무나 많은 통념이 덧씌워져 있고 그로 인한 잘못된 해석들이 넘쳐나곤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면식이 없는 정신이상 남성 가해자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악하고 성적으로 무지한 여성에게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성기삽입을 시켰다'는 성폭력 각본 하의 사건만을 성폭력으로 인지한다. 그러다보니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74%가 아는 사람이며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현실은 가려진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남성다움이나 낭만으로 포장되는 문화에서 일상적인 성폭력은 끊임없이 은폐된다. 남자 주인공의 강제적인 스킨십은 '거친 로맨스'로 부각되고 수많은 대중매체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수많은 포르노물의 주제가 강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며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이러한 통념들은 치유를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2차 가해들이 쏟아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2차 가해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제도적 미비에 기반을 둔 가해 행위를 말한다.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여타 범죄 사건들과는 다르게 이 사건이 '진짜' 성폭력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사용되는 기준은 성폭력 사건이 각본에 들어맞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각본에 들어맞는다면 이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만 만약 사건이 각본에 들어맞지 않으면 피해생존자에 대한 2차 가해들이 쏟아지게 된다.²⁾ 2차 가해를 성폭력에 준하는 가해로 명명하는 것은 이 사회가

가해자의 시각으로 성폭력 사건을 읽어내는 것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위에서 언급했던 성폭력 사건의 내용에 관한 각본과 함께, 피해생존자의 조건에 관한 각본 또한 존재한다. 이 각본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신체적으로 약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생존 여성으로 상정한다. 만약 사건의 내용이 성폭력 각본에 들어맞을지라도 피해생존자가 각본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피해생존자의 '행실'에 대한 2차 가해가 강력하게 행해진다. 피해생존자가 '유혹'하는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고 하거나, 피해생존자가 최후까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서 성폭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의 시각에서 읽어내는 관점에서 더욱 공고하기 때문에, 피해생존자의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가해자의 시각에서 성폭력 각본에 입각하여 성폭력 사건을 읽어내는 것은 수많은 2차 가해를 불러온다. 피해생존자에 대한 일말의 이해 없이 무차별적이고 성인지적 관점이 전무한 행태를 띠는 2차 가해는 피해생존자의 치유를 방해하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피해생존 경험과 치유 방법 모색하기

사회에는 성폭력에 대한 고정된 각본이 존재하지만, 모든 성폭력 사건이 그 각본에 들어맞지 않듯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생존자들이 느끼는 면면 또한 똑같지 않다. 또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의미나 느낌들도 끊임없이 변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점이 어느 때에는 매우 강렬한 인식을 가져오는 지점이 될 수도 있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던 다른 경험이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렇듯 피해생존자에게 있어 성폭력 피해생존 경험으로 인한 느낌이나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가변적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특정한 사건이 가져오는 촉발 때문에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위한 접근은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처에 약을 바르고 낫게 하듯이 딱 맞아 떨어지는 치유 방법이 있어서 이를 적용하면 피해 경험의 치유가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생존자 개개인이 원하는 치유의 방향 또한 여러 방향일 수 있고, 이제는 다 끝났으며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에는 예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유의 갈피를 잡는 것도 쉽지 않고 방법이 5지선다형처럼 단순하게 나누어지지도 않지만 치유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피해생존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개개인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에서부터 느끼는 것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차근

1)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의 맥락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후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 꾸려가겠다는 생존, 즉 삶과 존재의 맥락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둘의 맥락을 포괄할 수 있는 피해생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이를테면, '원래 다들 그런 건데? 왜 그래?' '그런 게 잘못이지 내가 초래한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냥 잊어.' '한번뿐이니까 성폭력이 아니야.' '내가 침묵한 건 사실상 동의한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 주면 되겠니?'

차근 관찰 하고 자기 자신이 느끼는 데 대해 혼란스러워하기 보다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맞는 것인지, 내가 화가 나는 게 맞는 것인지, 잠이 오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계속해서 판단하기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감정 선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건을 겪은 자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건을 겪은 자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사건 자체를 직시하는 데에 도전할 수 있다. 여기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건을 직시하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을 직시하는 것은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공포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계속해서 직시하게 되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 불편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공포심을 극복한 용기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피해생존 경험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으로부터 피해생존자는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해생존자는 성폭력적 사건에 대한 물이해로 가득 찬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이어질 피해생존자의 삶의 시간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치유를 위한 제안

-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나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기
- 피해상황을 겪던 나 자신의 힘과 용기를 칭찬하기
- 내가 듣고 싶은 따뜻한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주고, 주변사람들에게도 요구하기
- 떠오르는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기. 떠나보내고 싶은 감정이라면 찢거나 태워보기
- 나의 경험에 공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 치유에 도움이 되는 상담이나 교육,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 여행, 음악듣기, 산책 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자주 하기
- 내가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나의 성인식을 돌아보기
- 나의 성에 대한 역사 쓰기
-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써보고, 전달해보기
- 편견을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주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고, 전달해보기
- 성폭력피해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는데 기여하기
- 성폭력피해 경험에 공감하는 여성들과 연대하기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http://www.sisters.or.kr>)

일상의공기속, 장애와 비장애중심성을 성찰하면서

여성주의적으로 교육권 재구성하기



어느 지명한 노교수가 말했다. 자신의 말이 곧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 의사의 선고를 듣고 깊은 절망에 빠져 많은 밤을 애통해했다고. 말이 세상의 온갖 빛깔을 인지하는 능력을 잃는다는 것이 너무나 무참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세칭 식자층에 속하는 그는 머리로만 장애가 부끄럽거나/숨겨야되거나/틀린 것이 아니라는 여타 구호들을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시각 장애인이 될 팔의 입장에 서서 현실을 그려보았을 때, 타자였던 장애인의 삶이 그의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제서야 이 세계에서 장애를 끌어안고 사는 것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고 많은 차별을 당하며 여러 가능성에서 배제되어가는 과정인지 비로소 절절하게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장애 '정상'인을 상징하여 짜여진 시/공간 구조 속에서 소위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몸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다. 그런 까닭인지 비장애인들의 몸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장애인구가 세계인구의 10%가량 달할 것이라는 UN의 추정이 무색하게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백양로, 강의실, 동아리방, 중앙도서관으로 가 살펴보자. 장애인의 몸이 이미 사라져버린 주변엔 온통 '정상인'들 뿐이다. 우리들/당신들/이들의 착각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타자화는 무지마치게 이루어진다. 장애는 희화화 혹은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그 외의 관계맺음에 대해서는 일절 고민하지 않는다. '너 청각 장애인가? 난 참 귀도 잘 안들리고 눈도 어둡고...어떻게 살래?' '너 (장)애자 아니냐?' '야, 개 말 더들거리는 거 정신차려봐! 그게 뭐냐?' 스스로 교양인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연세대. 이 공간, 명문 사학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거친 언어들이 일상으로 속사포처럼 쏟아진다. 장애가 열등함의 대명사로, 비속어로 쓰이는 상황 자체가 '정상인'으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체화된 비장애중심성을 바탕으로 저지르는 폭력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단순한 무지나 도덕적 마비에서 이러한 잔인한 말들이 발화되고 또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에서 단편적이나마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을 받았고, 소수자의 권의 보호가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윤리적 감수성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곧 장애를 비하하는 농담을 사석에서 별 생각없이 던지는 사람도 장애 관련 문제가 걸린 '공식' 선상에서는 돌변하여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착한' 견해를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장애를 타자화하고 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남의 문제"라고 단정 짓는 무심함에서 비롯된다. 제도권 교육에서는 별 고민없이, 아주 단순명쾌하게 말한다. 사실 장애인도 우리의 '동등한' 친구이며, 친구를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앞서 말했듯이 장애에 대한 의회화는 폭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성찰이 부족한 교육이 전파하는 장애에 대한 '연민' 또한 그리 추켜올릴 만한 것은 못된다. 이 역시 외부의 열등한 타자를 보는 시선이다. 타자에 대한 연민과 연민이 만나 나올 수 있는 산물은 고작해야 시혜이고, 이런 인식에서 나온 실천적 행동은 잠시 그들의 주머니에 몇 톨 보태주는 것뿐이다. 장애인의 고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ARS 후원을 위해 전화를 걸거나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지체 장애인의 손에 잔돈을 쥐어주는 선행들이 분명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결국엔 차별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어 시혜적 접근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장애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면, 장애와의 다른 관계맺음의 가능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란 과연 불변의 절대적 특징으로 '정상적' 일반인인 자신과 상관없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와 부대끼면서 장애라고 명명될 수 있는 불편함이 삶 속에서 정녕 '단 한 순간도' 없었는지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타자로서 존재하는 장애가 기실 얼마나 허구적인지 마주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에 장애특별입학으로 들어온 장애학생 000명과 정부가 공식 집계한 장애등록인구 약 242만 명¹⁾ 등의 숫자는 장애인들이 엄연히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적 수치가 장애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측은 시각, 청각, 지체 장애 3개 영역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을 인지하기 시작하였지만,²⁾ 사야를 넓혀 바라보면 그러한 틀로 포착하기에 굉장히 박탈 정도로 우리 안의 '장애'는 무수하다.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신장이나 심장, 호흡기, 간, 간질 장애를 포함한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한 학내 도처에 있다. 우울장애나 청동장애(어려서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등 감정조절 및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장애의 범주는 사실상 굉장히 광범위하다. 통상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영구적이고 불변한 신체적 특징으로 생각하지만, 팔이 부러져 기브스를 하고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일시적인 장애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는 시기에 따라 가변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장애란 무엇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여기서 또 고려할 것이 있다. 다음아닌 장애를 규정하는 데 있어 작용하는 사회적 맥락이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통념을 뒤엎고 장애에 대한 폭넓고 새로운 합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란 처한 상황과 조건에 의해 유동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개념으로, 장애란 절대적인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구성되는 산물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국제 장애 정의안>에서 손상, 활동, 참여, 환경이라는 네 가지 차원이 장애를 규정하는 데 작용한다고 명시했듯이, 장애는 사실상 특정 활동과 참여의 제한, 환경의 제약 등에 부딪히면서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장애화' 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³⁾ 정리하면, 장애는 일반적인 통념보다 굉장히 폭넓고 유동적인 개념인 까닭에, 이러한 현실적 지형에서 정상인/비정상인, 일반인/특수인, 비장애인/장애인의 경계는 너무나 알쏭하게 버린다.

1996년 장애학생들이 특례입학전형을 통해 입학한 이래로 학교 측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와 캠페인을 열었으며 장애학생들에게 도우미 학생을 연결해주는 등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학교의 일반적인 구성원을 비장애 학생 및 교수, 교직원 등으로 상정하고 공간이 쪼여져 있는 까닭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 생긴 위당관 카페테리아의 계단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없다는 학생의 목소리,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학술 논문들이 PDF파일 형식으로 되어있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각 장애 학생의 목소리, 먼지 방인 강의실이 기관지염을 악화시킨다는 학생의 목소리... 이들은 비장애중심성이 학내 공간에 수십년 간 축적되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국가에 의해서 몇 등급으로 판정되어 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개인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 획일적인 정상성을 강요하는 학내 공간은 다양한 몸들을 포용하지도 감당해내지도 못한다.

제 23회 총아학살의 선본 <Questioning>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는 약자일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장애' 또한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다. 장애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변환경과 내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이다. 우리들/당신들/이들이 공기 속에 흐르는 비장애중심성을 고찰하고 타파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문제이면서도 다수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모든 지형에 서서 모두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지난한 길을 자처하는 것은 '열등한 자'를 상정하고 때로는 시혜적 접근은 부분적 편견만을 일삼는 정책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 기만인 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Questioning>은 우리가 발달고 있는 이 세계를 구조적 측면에서 통찰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낼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실 속 관계를 외면하지 않고, 그 섬세한 경을 그려내고서 여성주의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풀어내는 데서 그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 다양한 몸이 승통을 타고 어울리게 될 수 있기를 꿈꾼다.

1) 보건복지가족부 등록 장애인인구(2009년 12월말 기준)

2) 연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3)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김창엽 외, 삼인 출판사, 2002, 262쪽

4)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나요? 당신에게 '일'이란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대가가 있는 노동? 몸을 움직이는 것?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은 모두 '일' 인가요? 학생으로서 하고 있는 공부도 '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일'이라는 건 결국 우리네 삶에서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모든 일련의 행위가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는 '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좁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만 일로 인정받고, 또 그 중에서도 많은 돈을 벌고 안정적인 일이면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회는 물론 우리 몸 안의 사회화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도 '너를 사회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일자리를 어서 잡아!'라는 메시지를 항상 들으며 살아갑니다. 백양로를 수놓은 수많은 기업 클량들이 그렇고, 취업게시판의 포스터들이 그렇습니다. 허리

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여성 승무원 그림이 그려진 대기업의 포스터에는 "주의: 극심한 감정노동 착취는 일하는 이의 허리와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주의 문구 대신에 "아름다운 기업"과 같은 달콤한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패기가 넘쳐 보이는 젊은 남녀가 활짝 웃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채용설명회 포스터를 보고 있노라면, '저 회사에 들어가면 덜 불안하고 더 행복해질까?' 하는 생각이 슬쩍 들기도 합니다. 일단 돈도 벌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떤 수업에서, 한 학생이 우리 세대는 '계속 준비만 하는 세대'라고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겨우 대학에 들어왔더니 아젠 취업을 준비합니다. 지금 내 옆의 누군가는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로스쿨 진학을 준

비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CPA(공인회계사 시험)를, 어떤 이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합니다.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준비, 준비, 준비... 나의, 당신의, 사람들의 준비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그렇지만 말예요, 이대로 질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 내 눈 앞에 보이는 건 이렇게 적은 수의 메뉴얼뿐일까요? 정말 세상을 사는 방법으로는 이 정도 길이 다인 걸까요? '철을 담보로 걸고 열심히 또 열심히 노력하면 (입사시험/고시에/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일단 필가에 합격하고 나서 거기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도 늦지 않아.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괜찮을까? 고옹.'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전 골절 머리가 복잡해지곤 합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졸업하기 전에 뭔가 다른 일 경험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인턴 프로그램은 많지만 대부분 기업 인턴 프로그램이고, 소위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도움이 되는 인턴만 해보면서 지치고 싶지 않습니다. 돈 중심의 시장경

제에서 하는 인턴 말고, 좀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판을 짜려고 일하는 단체에서는 인턴 같은 거 해볼 수 없나요?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이중노동의 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도 사회도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을 주지 않아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는 선배 언니들의 이야기가 태무덤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부장적인 회사에서의 인턴 말고, 나이 많은 여성들이 서로 보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일하며 꾸려나가는 여성주의 공동체에서의 인턴은 없나요?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무시, 비가시화가 대수롭지 않아서 내가 중국에는 상처받으며 건물 옥상에서 영영 울게 될 그런 무서운 곳 말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두 존중되는 일터에서 인턴해볼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이러한 다른 '일' 경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경험들을 해봐야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의 또 다른 면모들에 대해, 그리고 돈 이외에 일과 관련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면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수업에서, 한 학생이 우리 세대는 '계속 준비만 하는 세대'라고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겨우 대학에 들어왔더니 아젠 취업을 준비합니다. 지금 내 옆의 누군가는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CPA(공인회계사 시험)를, 어떤 이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합니다.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준비, 준비, 준비... 나의, 당신의, 사람들의 준비는 언제쯤 끝이 날까요?

나는 좀 더 당당히 '졸업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 여름, 한 대안문화센터가 기획한 워크캠프를 통해서 아주 짧게나마 막달레나 공동체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막달레나 공동체는 나눔, 존중, 상생을 모토로 성매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쉼터, 현장지원센터,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인 국수집 동고리, 중·장년 여성을 위한 장기쉼터 목적으로 지은 강화도 보듬네, 용감한 여성 연구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가 인간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역사와 권리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매매경험자들의 삶을 함께 복잡복잡 살아내며 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대항하고 각각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막달레나 공동체 대표님께서 실습생으로 간 저와 제 친구를 위해 알게 모르게 배려를 많이 해주신 덕에 공동체 내의 다양한 현장에 눈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이런 단체의 일상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굉장한 행운이었습니다. 가면을 겹겹이 쓰지 않고 일해도 괜찮은 일터, 일상과 밥상을 나누며 가족이 되는 사람들, 인연과 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멋진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이 인연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무척 서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서툰을 인정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인연의 중요성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일' 이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모든 일련의 행위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치와 의미란 항상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이런 인연은 모두 우리네 인생 공부와 일 경험의 끝이 아닌 시작이겠죠?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저 역시 아직도 '졸업 후에 뭐하

지?' 라는 고민을 여전히 자주 합니다. 그래도 조금 다른 인턴 경험을 해보기 이전보다는 훨씬 덜 막연해진 것 같아요. 사회의 지배 권력이 '틈새' 혹은 '주변' 이라고 사소하게 여기며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씩씩하게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외치며 일하고 있는 곳의 일상에 잠시나마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조금씩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대생 커리어 센터가 주선해주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 선배와의 만남으로는 풀 수 없었던 갈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세대 캠퍼스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복잡복잡 틈새와 일하는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부장적인 일터나 성소수자 혐오로 가득 찬 일터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와 돌봄의 윤리를 바탕으로 누군가의 비빌 언덕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일터는 어떤 모습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해본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당신과 제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가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온 '일' 의 경제 중심적 고정관념을 우리네 삶 속에서 깨면서 살아갈 에너지를 나눌 것입니다. 일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생산물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하고 살아내는 세상 전반의 복합적인 맥락에서 봐야 하는 것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 같은 다양한 "조금 다른 일 경험해보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곧 일' 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토대로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와 일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시 삶의 에너지를 되찾고 싱긋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웃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웃는 당신의 얼굴을 보며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유경

깜깜한 방, 홀로 있을 모든 쭉구리들에게

서울에 홀로 올라온지도 어언 몇 년이 흘러 이제 꽤 능숙한 자취생이 된 나는 그동안 참 많이 옮겨 다녔어. 기숙사, 하숙집, 반 지하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무릉, 오피스텔로 이사하려던 즈음에는 친하다고 믿어왔던 친구들이 너 좀 무지하게 징징거리는 것 같더라. 그만 좀 징징대라는 편지를 투옥 던지더라. 한 녀석이 시작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던 날 향한 그 끝까지 끝난 충고들, 울컥하고 서러워서 내가 정녕 그렇게 징징대는 걸까,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유독 유난을 떠는 걸까 자문을 해봤는데, 뭐 일단 내가 좀 잘 쟁쟁거리고 예민한 건 맞는 거 같긴 해. 근데 내가 편지를 들을 만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만큼 터무니없이 마냥 징징대느라 이사를 다닌 건 아니야. 난 이해를 받고 싶고 그래서 변명을 해보려고 해.

기숙사에서 난 꽤 잘 지냈어. 등 따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게 취미이자 특기였던 잉여롭고 비루한 새내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꽤 지낼 만 했어. 이듬해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지고 처음으로 홀로 살게 된 곳이 하숙집이었거든. 여기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 밥을 먹으러 가면 하숙집 아주머니랑 다른 하숙생들을 마주치잖아. 그런데 내가 그 때 한창 사람을 뚱뚱그러서 무시위했거든. 편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면 불편해서 누구든 피하고 싶어 했는데 낯선 사람들 속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하숙집이 나한테는 벅찼어. 더 숨어들어야 비로소 편안해질 것 같았고 나는 모든 생활을 홀로 할 수 있는 자취가 하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 원룸으로 옮겼어.

반 지하이긴 한데 창문은 꽤나 저상으로 나있는 애매한 집이었어. 유난 떨며 옮긴 그 원룸에서는 잘 살았던 거 같아. 반 지하라 그런지 건물이 허름해서 그런지 거대 거미랑 거대 바퀴벌레와 같은 각종 벌레들을 자주 조우했지만 혼자 잘 처리하고 살림도 잘하며 그냥 그냥 잘 지냈어. 살림이 은근 재밌더라. 그렇게 잘 지냈는데 장마가 다가오고 있던 어느 초여름 날 아침, 침대 밑에 물이 흥건한 거야. 여기서 물이 더 세면 못 살겠다 싶어서 급하게 방을 뺐어. 드디어 성공적으로 숨어들 곳을 찾았는데 나와야 한다는 게 정말 아쉬웠지.

급히 나와서 갈 곳을 못 찾은 나는 신촌 한가운데 고시원에 들어갔어. 고시원은 일단 진짜 좁고 그 안의 모든 것들도 작아. 근데 뭐 작아도 그냥 지낼만하다 생각했는데 더 힘든 건 밖으로 난 창문이 없는 거. 중앙 냉방이라 밤이건 낮이건 차갑고 무거운 에어컨 바람이 머리 위에서 쏟아져 불어와, 웬-하는 텅

빈 소리랑 같이. 그러니까 엄청 밀폐된 공간이야. 거기 살 때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 햇빛이 들어오질 않으니 시간관념이 없어져.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밤에는 불을 꺼도 작은 창을 통해서 복도 불빛이 들어와 내 얼굴을 비추고 에어컨에서 쏟아지는 바람은 탁했어. 잠을 많이 자도 늘 머리가 멍했는데 그 서늘하고 멍한 기분이 이 방에 대한 첫인상이었어.

아니 고시원에서 잘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징징대느냐고? 쯤-금만 더 들어보게. 사실 방 자체나 열악한 일조량이나 그런 것들보다 진짜 문제는 내가 마음속에 거대 주구리 한마리를 키우고 있었던 거, 요거 같아. 이 '주구리'라는 건 일종의 기생충인데 사람의 자괴감을 주식으로 삼고 나태함을 간식 삼아 자아를 열심히 갉아먹는 놈이야. 웅웅 문구로는 '나 요즘 주구리가 되었어'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 때의 나는 주구리와 제대로 혼연일체가 된 상태였던 거 같아. 그런 나한테는 주어진 일을 해낼 만큼의 힘이 없었고 그래서 일터에서 민폐를 끼칠 때가 많았어. 그럴수록 나는 더 주구리들었고 자책도 하고 합리화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냈어.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나중에는 방에 들어오면 일단 노트북을 옆으로 세우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 생각도 안하고 인터넷만 하게 되는 거야.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힘이 들었고 밥을 먹는 것도 귀찮아서 라면 봉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걸 떠먹는 걸로 하루에 두 끼를 때웠어. 그러다 하루는 과외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노래지고 땅 도는 거야. 라면이 몸에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없던 빈혈을 만들만큼 영양 균형이 안 좋은걸 그 때 알았지.

그런데 하숙 때도 그랬지만 몸이 아픈 거 보다 더 힘든 건,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한심한 나를 알아챌까 무서워 나를 숨기는 거였어. 악속에 나갈 때나 일을 하러 갈 때나 학교에 갈 때는 그 방에서 나만 쏙 빠져 나오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별 일없이 지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 나 말고는 어느 누구도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일중 쓰레기통에 내려가는 것도 귀찮아 쌓아둔 쓰레기 봉다리들이 방바닥을 어떻게 덮고 있는지, 그 봉자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발을 디디며 옷을 찾아 주워 입는지, 쌓아놓은 그릇들에서 어떤 악취가 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방은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그 때는 내가 어딜 가든 내 속에 그 방이 있는 기분이었어. 부패한 방과 그 방을 닮은 나를 숨기고 싶었고 그럴수록 나는 밝고 쾌활한 사람 코스프레를 철저히 해냈고 누구에게 어떤 것도 열어 보이지 않았어. 숨기고 숨어드는 내가 비겁하다 생각했고 송두리째 부정했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며 더 캄캄히 그 방으로 숨어들었어.

대체 네 주구리 시절의 처참하고 신파스러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 하느냐며 변명이나 어서 내놓으라고 다시 물을 수도 있는 당신을 위해 요약 정리를 하자면, 너희들이 팔방을 꼬며 너 대체 왜 그러냐고 했던 그 때 나는 몰래 몰래 저렇게 힘들었다고. 나는 그 때 백프로 액기스 고농축 주구리였고 아마 난 지금도 아니 원래가 조금은 저런 거 같다고. 징징대더라도 홀로 견딜만큼 견딘 다음에 내어놓은 일말의 투정에 불과하다고. 아이들아, 이제 알간?

이 글을 주구장창 독자를 상징하고 좀 들어보오-하며 써오긴 했는데 결국 써놓고 보니 내 자신에게 던지는 다짐이자 충고인거 같아. 한 발자국씩 방 밖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긴 한데 여전히 겁이 많아. 아직도 한번씩 마냥 틀어박혀서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방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한 것이지. 그런데도 내가 계속 걸어 나오려 노력하고 있는 건 내가 뒷걸음치대도 끝까지 널 쫓아가겠



다고 선포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 같아. 어떻게 보면 유난스러워 귀찮을 수도 있는 내 예민함의 역사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인 거 같아.

주구리들아, 한 사람의 주구리로서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 같아. 왜 수업에 들어오지 않냐는 전화에 아이고 내가 또 늦잠을 잤네 라는 애써 가공한 핑곗고도 밝은 대답으로 우리의 긴 긴 밤을 새게 만든 그 악몽 같은 우울과 자괴를 덮치는 더 이상 말자. 전화를 끊고 나서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면 울지도 말자. 나도 소심하게 걷는 중이라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우리 서로에게 방을 열어 보여주자. 일단 문을 열어서 방이 비참하든, 더럽든, 추하든 보여주면 너 이런 불쌍한 녀석 몸보신해야 되겠다며 파곤 얼큰한 삼계탕을 사주고 자기가 먹던 첼분제도 손에 쥐어주고 돌아서는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는 거니까.

나는 참 나약한 거 같아. 이전 아직도 인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두운 방에 넣어 두고 싶은 내 모습이야. 세상은 학교는 사회는 모임은 내게 여러 가지로 여전히 벽차. 그래도 나는 말을 하려고 해. 나처럼 징징대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힘을 내려고 해. 방 안에서 나는 점에 불과했고 그래서 무기력했어. 이제는 나와 다르면서도 비슷한 여러 점들을 꽤나 만났고 그래서 내 일상을 외칠 힘이 생긴 거 같아. 팍팍한 서울에서 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알아본다면 사는 게 조금 덜 팍팍하지 않을까. 동이 틀 때까지 우리를 움직여오는 수많은 상념을 함께 삭힐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없는지 같이 상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웬지 불안해서 밤이면 키클라면을 입에 털어 넣고 있을 너. 과제가 감당이 안 돼서 밤새 인터넷을 하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너. 사람이 고픈데 방이나 마음이 어지러워 초대하기는 두려운 너. 달밤에 조깅이 하고 싶은데 인적 없는 골목이 무서워 책상 앞에만 앉아 있을 너. 조금만 더 예뻐지면 좋겠는데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어보는 너. 너희들과 나는 이렇게 각자 찌질하게 이 밤을 보내지만 그래도 너와 나는 존재하고 있어. 벽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비슷하게 함께 살아있어.

- 룸메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복 터진 주구리, 치카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Questioning

23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경은 · 화정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어지는 삶 번지는 가능성
Questioning 선본에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